

各司 騰 錄
각사등록 경기도편 1
역사기후 자료집

畿營狀啓騰錄

廣州府留營狀啓騰錄

廣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 1

各司臚錄 1책, 畿營狀啓臚錄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各司臚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各司臚錄 5책, 廣營啓錄

1870년(고종 7)~1890년(고종 27)

各司膳錄
각사등록 경기도편 1
역사기후 자료집

畿營狀啓膳錄

廣州府留營狀啓膳錄

廣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20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시등록(책)	쪽수
0001-0015	1783년, 정조 7년	기영장계등록 1책	각시등록 1책	22
0016-0086	1784년, 정조 8년	기영장계등록 4책	각시등록 1책	55
0087-0102	1861년, 철종 12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1책	각시등록 4책	151
0103-0130	1862년, 철종 13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1책	각시등록 4책	167
0131-0149	1863년, 철종 14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1책	각시등록 4책	195
0150-1063	1864년, 고종 1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1책	각시등록 4책	214
0164-0165	1865년, 고종 2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시등록 4책	228
0166	1867년, 고종 4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시등록 4책	230
0167-0196	1868년, 고종 5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시등록 4책	231
0197-0206	1869년, 고종 6년	광주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시등록 4책	261
0207-0226	1870년, 고종 7년	광영계록 3책	각시등록 5책	271
0227-0255	1871년, 고종 8년	광영계록 3책	각시등록 5책	291
0256-0278	1872년, 고종 9년	광영계록 3책	각시등록 5책	320
0279-0304	1873년, 고종 10년	광영계록 3책	각시등록 5책	343
0305-0331	1874년, 고종 11년	광영계록 3책	각시등록 5책	369
0332-0348	1875년, 고종 12년	광영계록 3책	각시등록 5책	396
0349-0362	1876년, 고종 13년	광영계록 4책	각시등록 5책	413
0363-0388	1877년, 고종 14년	광영계록 4책	각시등록 5책	427
0389-0394	1878년, 고종 15년	광영계록 4책	각시등록 5책	453

0395-0405	1884년, 고종 21년	광영계록 5책	각사등록 5책	459
0406-0414	1885년, 고종 22년	광영계록 5책	각사등록 5책	470
0415-0447	1886년, 고종 23년	광영계록 5책	각사등록 5책	479
0448-0477	1887년, 고종 24년	광영계록 5책	각사등록 5책	512
0478-0488	1888년, 고종 25년	광영계록 5책	각사등록 5책	542
0489-0511	1889년, 고종 26년	광영계록 5책	각사등록 5책	553
0512-0541	1890년, 고종 27년	광영계록 6책	각사등록 5책	576

해제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찬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지역	각사등록 등	서명	작성연대
경기도	각사등록 1책	기영장계등록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각사등록 4책	광주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각사등록 5책	광영계록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화영계록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각사등록 4책	개성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각사등록 4책	이등계록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강화부유영장계등록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공문편안	1895년(고종30)
충청도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승정원일기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각사등록 6~7책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공문편안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경상도	각사등록 11책	경상감영계록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각사등록 17책	통제영계록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전라도	각사등록 18책	전라감사계록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호남계록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강원도	각사등록 27책	강원감영계록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관동계록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춘천유영계첩록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황해도	각사등록 22~24책	황해감영장계등록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공문편안 52책	공문편안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평안도	각사등록 29책	관서계록	1822년(순조 22)
	각사등록 29~33책	평안감영계록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함경도	각사등록 42책	함경감영계록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각사등록 43책	함경북병영계록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공문편안 78·91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원산해관관측소	원산해관관측소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경기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19세기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登錄)』을 비롯한 등록류 6종과 근대 공문서인 『공문편안(公文編案)』을 번역 대상으로 하였으며, 1894년에서 1907년까지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관상감의 측우기록도 함께 수록하여 서울의 강우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은 『기영장계등록』을 비롯해 광주부, 수원부, 개성부, 강화부 등 유수부에서 작성한 등록류 6종의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기영장계등록』은 경기관찰사 심이지(沈履之, 1735~1796)가 중앙에 올린 장계를 모아 놓은 등록자료이다. 『기영장계등록』에는 경기관찰사 심이지가 도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과 우택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중앙(승정원)에 장계를 올리는 한편, 경기감영(서울 돈의문 밖)에 소재한 측우기에서 수심 기록을 확인해 이를 함께 보고하는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기영장계등록』에 수록된 측우, 우택 기사는 『각사등록』에 실린 전체 측우, 우택 기사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사로서, 측우 행정이 고도화된 이후 도단위 측우 관측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경기감영에서 보고한 측우, 우택 기사는 1783년(정조 7)과 1784년(정조 8)에 한정돼 있어 경기 각읍의 측우, 우택 양상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해 기사에는 ‘우택·측우’와 ‘농형’, ‘분등장계’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측우 행정과 부세 행정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1783년(정조 7) 6월부터 9월까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당해 봄~여름 기간의 가뭄, 동풍, 찬비, 충해, 우박에 따른 이상 기후로 크게 흉년이 들었으며, 특히 서해에 인접한 7개읍에서 충해가 발생하였고, 이들 중에는 바닷물이 넘치는 침수 피해를 겪기도 하면서, 내륙의 평지읍이나 산골짜기읍보다 재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중앙에 보고되었다. 경기감사 심이지는 부임한 이후 우택과 농형을 중앙에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추수기인 9월에 이르러서는 도내 각읍의 재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중앙에 재실분등장계를 올렸다.

한편 『광주부유영장계등록』과 『광영계록』은 광주유수부(남한산성 안)에서 작성한 등록류로서, 1861년(철종 12)부터 1893년(고종 30) 걸친 우택, 측우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광주유수부의 관관이 비가 올 때마다 부내 각 곳을 돌아다니며 우택과 농형을 파악해 유수에게 보고하면 유수는 유수부에 소재한 측우기 수심을 확인하여 이를 중앙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

조선후기 유수부는 군사방어의 요충지에 설치된 지방행정기구로서, 조선 초에는 개성에만 설치되었으나 인조대 이후로는 강화, 광주, 수원에 추가로 증설되어 경기의 보장처로 역할하였다. 유수부는 경기도내 거읍에 설치된 기구이지만, 도 감사의 지위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중앙의 행정보고 권한을 가졌으며, 유수부뿐만이 아니라 타도 고을의 부세 수취 권한을 부여받아 별도의 재정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우택, 농형 보고 역시 관관이 보고해 올리면 유수가 이를 직접 중앙에 보고하는 형식을 띠었으며,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유수가 직접 기우제를 지내고 이를 중앙에 보고해 올렸다.

수원유수부에서 작성한 등록류는 『화영계록』으로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까지의 우택, 측우기사를 담고 있다. 수원부 역시 판관을 통해 부내 우택을 파악한 뒤, 유수가 유영 내 측우기 수심을 파악해 함께 중앙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부의 경우 1876년 가뭄이 심하게 들어 12차 기우제를 지낸 후 기우제를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7차에 걸쳐 기우제를 설행한 시점에 비가 내리는 내용이 실려 있다. 지방의 기우제 설행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개성의 경우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의 세 시기에 걸쳐 우택, 측우, 농형 기사가 남아 있다. 개성부는 경력이 부내 각 곳의 우택을 보고하였으며, 유수부가 유영 내 측우기 수심을 파악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특이한 점은 경력 외에 제릉 참봉 윤전의 보고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유수부 내에 위치한 왕릉의 비 피해 상황을 별도로 파악하여 이를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개성부 역시 1885년 가뭄이 들어 7차례 기우제를 시행하였으며, 비 온 후 이를 정리하는 내용까지 조정에 보고하였다(1885년 6월 일).

강화의 경우 『이등계록』과 『강화유영장계등록』 두 자료에서 우택, 측우, 농형 기사가 확인된다. 전자는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까지 단기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후자는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의 기록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개성부 경력이 부내 우택과 농사 상황을 보고해 올리면 측우기 수심과 함께 승정원에 보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화유수부의 우택보고는 경력이 각 면의 임장에게서 면의 농형과 우택 상황을 문서로 보고받고 이를 유수에게 정리해 보고하는 절차가 확인되는 점이다. 이를 통해 면 단위 우택 정보를 유수부 판관 혹은 경력이 수렴한 후 이를 유수에게 보고하면, 유수가 유영 내 측우기 수심과 함께 중앙에 보고하는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1895년 『공문편안』 기사 8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경기관찰사가 도내 측우기 수심을 보고한 내용과 더불어 수원부의 우택, 측우기 수심도 관찰사가 함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미개혁 당시 지방행정체제를 23부 337개군으로 재편함에 따라 경기의 각 고을이 한성부와 인천부에 편입되고, 관찰사가 각 부의 수장이 되었는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에 수록된 『공문편안』 기사에는 이처럼 지방제 개편을 전후로 한 시기의 과도기적 행정 보고 양상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관상감에서 측량한 측우기 기록도 수록해 놓았는데, 이는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한 것이다. 『승정원일기』에는 비가 내린 시점부터 그친 시점까지의 시간과 측우기의 강우 총량을 기록해 놓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울의 강우 패턴과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하겠다.

2) 자료의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은 조선후기~대한제국기 경기도내 강우량 및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장기적인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기후 변화의 장기 추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감영에서 작성한 우택, 측우 기록이 소략하기는 하지만, 광주, 수원, 개성, 강화유수부의 기록이 19세기 상당 기간 남아 있고 각 유수부가 경기의 동부와 남부, 북부와 서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경기 각읍의 기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사의 대부분이 19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 우택, 측우 기록을 통해 과연 19세기에 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있었는지를 재검토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에는 측우와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종류뿐 아니라 파종, 제초, 이앙, 추수에 관한 절기별 농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경기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충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주로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우제 설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 후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경기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경기도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송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 1

0001. 1783년(정조 7) 6월 29일(양력 7월 28일)

畿營狀啓謄錄 1책(0072~008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3c~4a)

道內各邑農形雨澤, 前監司臣李 在任時, 連爲登聞爲白有在果, 臣於到界之後, 接見邑報, 面詢邑宰是白乎則, 農形段, 野邑之早稻·黍·粟胚胎, 中晚稻·黍·粟, 方張三除草, 木綿今始開花, 峽邑之早稻·黍·粟, 已盡三除草, 中晚稻·黍·粟·木綿幾盡再除草. 汛下引溉處, 早移秧者, 毋論峽野, 初除已畢, 間多再除, 晚移秧及根耕各穀, 方始初除草是如爲白乎旆, 雨澤段, 今月初十日得雨之後, 東風不止, 烈陽下曝, 有水根洞沓之外, 早移者日漸焦枯, 晚插者仍爲乾涸, 高燥奉天之處, 節屆中庚, 已無移秧之可論, 而乾播根耕之地, 土堅如甃, 亦難鋤役之及時. 目下民情之渴急罔措, 道內同然, 而其中或不無深淺緩急之可言是白乎所, 高陽·交河·坡州·長湍·豐德·南陽·水原·通津·金浦·仁川·陽川等十一邑段, 自春徂夏, 終斬一霈. 近日被旱, 比他稍甚, 未移居多, 各穀焦損是如爲白有旆, 陽城·果川·廣州·安城·龍仁·驪州·砥平·楊州·抱川·永平·積城·漣川·竹山·陰竹·衿川·喬桐·永宗等十七邑鎮段, 高燥處外, 舉皆移秧, 而東風連吹, 旱氣益熾, 已移之秧, 方茂之穀, 漸就萎黃是如爲白有旆, 安山·富平·振威·陽智·利川·楊根·加平·麻田·朔寧等九邑段, 毋論早晚移間得驟雨, 幾盡移插矣. 近因風旱, 田畝各穀, 不無受損者, 而水根猶未盡涸, 民情不至遑急, 祈雨祭觀勢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東風之後, 尚未得雨, 田畝各穀, 舉皆受損. 言念民事, 萬萬渴悶, 祈雨祭參量農形, 進退日字, 各別虔誠, 期於得雨之意, 申飭分付爲白乎旆,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경기도 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전임 감사 이형규(李亨逵)가 재임할 때 연이어 아뢰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고 고을의 수령을 대면해 물어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알을 배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산골 고을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보 아래에서 물을 끌어대는 곳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는데, 그사이에 두벌 김매기를 한 경우도 많고, 늦게 모내기한 것 및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10일에 비가 내린 뒤 동풍이 그치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니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 외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타들어 가고 늦게 심은 것은 이내 바짝 말랐으며, 높고 메마르거나 하늘만 바라보는 곳은 중복 절기가 닥쳐 이미 모내기를 따질 수 없으며,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렸거나 그루같이한 땅은 흙이 벽돌처럼 딱딱하여 또한 때맞춰 김매기 하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백성들 사정이 매우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가 똑같지만, 그 가운데 더러 피해의 정도나 시기의 다급함에 말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고양·교하·파주·장단·풍덕·남양·수원·통진·김포·인천·양천 등 11개 고을의 경우, 봄부터 여름까지 끝내 한차례도 비를 퍼붓지 않아 요즘 당하는 가뭄이 다른 곳보다 조금 심하여 모내기하지 못한 곳이 다수를 차지하며 각종 곡식이 타들어 가며 손상된다고 합니다. 양성·과천·광주·안성·용인·여주·지평·양주·포천·영평·적성·연천·죽산·음죽·금천·교동·영종 등 17개 고을과 군영의 경우, 높고 메마른 곳 외에는 대부분 모내기하였으나 동풍이 연이어 불고 가뭄의 기세가 더욱 세차서 이미 모내기하여 바야흐로 무성한 곡식이 점점 누렇게 시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산·부평·진위·양지·이천·양근·가평·마전·삭녕 등 9개 고을의 경우, 일찍 읍기는 것이나 늦게 읍기는 것이나 따질 것 없이 그사이에 소나기를 만나 그의 다 읍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람과 가뭄으로 논밭의 각종 곡식이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물의 근원은 오히려 더 마르지 않아 백성들의 심정은 매우 다급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풍이 분 뒤 아직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의 각종 곡식이 대부분 손상을 입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됩니다. 기우제는 농사 상황을 참작하여 진행 날짜에 각별히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하여 기어 이 비가 내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고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2. 1783년(정조 7) 7월 3일(양력 7월 31일)

畿營狀啓謄錄 1책(0131~013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6a~6b)

長湍等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鱗次到付富平府使尹光裕牒呈內，今日辰時以後，一向霏灑，巳時乃止，而所得殆過一鋤，田畚各穀，顯有霑潤之效，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今以列邑所報觀之，則所得雖有多寡之不同，一路之均霑，可以推知，焦燥渴望之餘，得此霑潤之澤，民事誠萬萬多幸是白乎等以，雨後田畚各穀之蘇醒形止，詳細飛報之意，申飭列邑爲白遣，目今未來諸邑段，程途稍遠，未及齊到乙仍于，更加各別嚴飭爲白有在乎，待其報來卽刻上聞計料爲白乎旡，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장단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잇따라 도착한 부평 부사 윤광유가 문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진시 이후 줄곧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거의 1서에도 지나지 않으나 논밭의 각종 곡식은 축축이 적신 효과가 뚜렷하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 고을의 보고로 보자면 내린 양은 비록 같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셨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타들어 가는 조바심으로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축축하게 적시는 우택을 만났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비온 뒤 논밭의 각종 곡식이 되살아나는 경위를 상세히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아직 보고가 오지 않은 여러 고을의 경우 거리가 조금 멀어 일제히 도착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각별히 엄중하게 지시하였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각 위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3. 1783년(정조 7) 7월 15일(양력 8월 12일)

畿營狀啓謄錄 1책(0161~016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7d~8a)

道內各邑雨後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蘇醒向茂形止, 躬審詳報之意, 連加申飭爲白有如乎, 得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日或十二日, 雨意快霽, 而野邑之早稻·黍·粟, 已盡發穗, 間或向熟, 中晚稻·黍·粟舉皆胚胎. 木花豆太方始結顆, 峽邑之早稻·黍·粟今方發穗, 中晚稻·黍·粟幾盡胚胎, 木花·豆·太方張開花, 早移秧及根耕各穀, 毋論峽野, 鋤役垂畢. 木花善爲立苗, 晚移秧之未着根, 乾播處之已除草, 而酷被旱氣, 幾乎萎黃者, 新抽莖葉, 日漸生新是如爲白有臥乎所, 高燥之初未移插, 沿海之發鹹已枯, 雖無可論是白乎乃, 纔得霈澤之周洽. 又值日氣之清朗, 田野之物色改觀, 民情之遑急稍定, 前頭成就, 雖未預料, 目下形止, 庶有望, 言念民事, 萬萬喜幸, 緣由竝以馳啓云云.

경기도 내 각 고을의 비온 뒤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곡식이 되살아나 무성해지는 경위는 몸소 살펴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더러는 12일에 비을 조금씩이 말끔하게 개었는데, 들판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그 가운데 간혹 익어가는 것도 있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는 대부분 알을 났고, 목화·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으며, 산골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알을 났고, 목화·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늦게 모내기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과 마른 곳에 씨앗을 뿌리고 이미 김매기를 한 것은 혹심하게 가뭄을 당해 거의 누렇게 시들었지만, 새로 나오는 줄기나 잎은 날로 점점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높고 메마른 곳에 애초에 옮겨 심지 못했거나 바닷가에서 염분 때문에 이미 마른 것은 비록 따질 게 없지만, 겨우 두루 흡족하게 내리는 단비를 만나자마자 또 맑고 탁 트인 날씨를 만나 들판의 곡식들 모습이 달라 보이니, 다급한 백성들 심정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무는 것은 비록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경위로 보자면 거의 가뭄이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4. 1783년(정조 7) 7월 23일(양력 8월 20일)

畿營狀啓謄錄 1책(0271~027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12d~13a)

道內各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一日寅卯時, 更爲始雨, 昨日未申時至, 連爲霖下, 陽川·衿川·高陽·富平·安山·楊州·坡州·水原·振威等邑段, 川渠漲流, 金浦·交河·通津·抱川等邑段, 一向滂沱, 成霖可慮是如爲白有臥乎所, 今以已到邑報觀之, 姑無溝塍潰決之患, 而方當中稻胚胎之時, 雨勢一直不止, 似有受傷之慮. 言念民事, 誠爲憂悶是白遣, 列邑形止, 待其報來, 亦爲條列狀聞計料爲白乎旆, 臣營測雨器, 自二十一日卯時, 今日辰時至, 水深爲九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云云.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인시·묘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어제 미시·신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양천·금천·고양·부평·안산·양주·파주·수원·진위 등 고을의 경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김포·교하·통진·포천 등 고을의 경우, 줄곧 콧물 쏟아지는 데 장마가 될까 염려할 만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도착한 각 고을의 보고로 보자면 일단 개울이나 둑이 터질 근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야흐로 중벼가 이삭을 맺 때를 맞아 비의 형세가 줄곧 그치지 않으니 아마도 손상될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또한 조목별로 나열하여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21일 묘시부터 오늘 진시까지 수심은 9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5. 1783년(정조 7) 7월 23일(양력 8월 20일)

畿營狀啓謄錄 1책(0272~028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13a~13b)

謹啓爲相考事. 節到付備邊司關內節啓下教, 今七月二十三日, 傳曰, 喜雨成霖, 今爲四日, 測雨器水深, 合以計之, 五寸有餘, 雖與一直滂沱有異, 然秋序漸近, 恐有傷稼之慮. 田畝各穀之水沈浦落與否, 不待霽後農形, 先從目下形止, 遍問列邑狀聞事, 令廟堂分付畿營, 畿內雨澤如此, 兩湖諸邑, 亦果如何, 詳細狀聞之意, 一體分付. 嶺南·關東, 則前此所得, 反有過多處, 今番雨後形止, 亦令先從營下所見狀聞事, 分付事, 傳教教是置. 傳教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甘雨稍稍成霖, 至于四日不霽, 霖霖之勢, 異於暴霖, 膏潤之餘, 勝於暎乾, 果能無大段傷稼之慮是喻, 各穀受損與否及水浸, 浦落有無, 先從目下所見, 卽速馳啓, 列邑形止, 亦爲鱗次登聞, 宜當向事關是白置有亦. 雨水過多, 或慮我稼之卒瘁, 田野形止, 使卽遍問而陳聞, 一雨一暎, 聖念之憂勤如此, 臣不勝欽仰感頌之至. 不敢遲待列邑之有報, 各穀之受損與否, 田疇之浦落有無, 卽刻星火飛報之意, 別關嚴飭爲白乎旃, 舉行形止, 爲先馳啓云云.

삼가 보고하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 공문 내용에, “이번에 임금님이 재가한 지시에, 이번 7월 23일에 전교하기를, ‘기쁜 비가 장마가 된 지 지금 4일이고 측우기 수심이 합쳐 계산하면 5치 남짓이니, 비록 줄곧 콕콕 쏟아지는 것과는 다름이 있다고 하지만, 가을 절기가 점점 가까운데 아마도 벼를 손상할 염려가 있을 듯하다. 논밭의 경우 각종 곡식이 물에 잠기거나 떨어져 나갔는지 여부를 날이 갠 뒤까지 기다리지 말고 농사 상황은 먼저 현재의 경위부터 여러 고을에 두루 물어서 문서로 아뢴 일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경기도 감영에 분부하여 경기도 내 우택이 이와 같은지, 충청도와 전라도 여러 고을 또한 정말로 어떠한지 상세히 문서로 아뢰라는 뜻을 일체 분부하라. 영남·관동은 저번에 내린 것이 도리어 지나치게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온 뒤의 경위를 또한 먼저 감영에서 본 것부터 문서로 아뢰게 하라는 일로 분부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교 내 일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십시오. 단비가 점점 장마가 되어 4일이 되도록 개이지 않지만, 가랑비의 형세여서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는 달라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나머지 가뭄보다 나으니, 정말로 곡식을 손상할 염려는 크게 없습니다. 각종 곡식이 받는 손상 여부 및 침수, 논밭이 떨어져 나갔는지 유무를 먼저 눈앞에 본 것부터 즉시 신속하게 긴급 보고하되, 여러 고을의 경위 또한 잇따라 아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빗물이 지나치게 많아 저희 경기도의 벼가 끝내 손상될까 더러 염려되지만, 밭과 들판의 경위는 즉시 두루 묻고 보고하게 하였더니, 한차례 비와 한차례 햇볕으로 임금님께서 이처럼 근심하고 애쓰시니, 저로서는 삼가 우러러 지극한 감격과 칭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히 여러 고을의 보고를 기다리며 지체할 수 없어 각종 곡식이 입은 손상 여부와 논밭이 떨어져 나간 것의 유무를 즉각 부리나케 보고하라는 뜻을 별도의 공문으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거행한 경위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06. 1783년(정조 7) 7월 28일(양력 8월 25일)

畿營狀啓謄錄 1책(0292~030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14a~14b)

砥平等五邑雨後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谷邑所報, 則陰竹段, 大小川渠, 舉皆漲溢, 傍川之地, 各穀沈水, 峽水之過, 浦落亦多, 而被害多少, 水退後可以詳知是如爲白遣. 豐德·喬桐兩邑段, 今番雨後, 浦邊田畝, 間或有水沈浦落之處, 而不至大段, 野地各穀, 姑無所損是如爲白遣. 朔寧段, 今番所得, 只是二犁許. 故田畝各穀, 別無所損, 水浸浦落, 又無此患是如爲白有臥乎所, 邑報阻水, 今始齊到, 而水浸浦落等災患, 列邑皆以水退後詳知報來, 則深淺多寡, 姑未預料是白乎乃, 至於平野各穀, 正當發穗胚胎之時, 其所傷損, 一路同然, 旱旱晚澇, 民情誠極哀悶是白乎矣, 第今雨既挾收, 日候清朗, 庶幾有更蘇之望是白乎喻, 霽後形止, 卽速報來之意, 嚴飭諸邑爲白乎旆, 緣由竝以馳啓云云.

지평 등 5개 고을의 비온 뒤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음죽의 경우,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대부분 불어나 넘쳤고, 시냇가 땅은 각종 곡식이 침수되고 산골짜기 물이 지나간 곳은 떨어져 나간 곳 또한 많은데, 피해의 정도는 물이 빠진 뒤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풍덕·교동 2개 고을의 경우, 이번 비온 뒤 포구 주변 논밭이 간혹 침수되거나 떨어져 나간 곳이 있는데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고, 들판 지역의 각종 곡식은 일단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삭녕의 경우, 이번 에 내린 것은 단지 2려가량이므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별다른 손상이 없고 물이 들이쳐 떨어져 나간 것도 또 이렇게 근심이 없다고 합니다. 고을의 보고는 물에 막혀 지금 일제히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침수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등의 재해는 여러 고을이 다 물이 빠진 뒤 상세히 알아서 보고가 오겠지만, 피해의 정도와 양은 일단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야의 각종 곡식은 바로 이삭이 패고 알을 뱉 때 손상된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데, 이른 가뭄과 늦은 장마로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그지없이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비는 이미 깨끗이 걷히고 날씨가 맑고 탁 트였으니 거의 다시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개인 뒤의 경위는 즉시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7. 1783년(정조 7) 7월 30일(양력 8월 27일)

畿營狀啓謄錄 1책(14b~14c)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0301~0311)

道內各邑雨後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廣州·水原·安城·楊州·竹山·朔寧·喬桐·豐德·加平·積城·麻田·漣川·陽城·砥平·永宗等邑鎮段, 早稻·黍·粟, 已爲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今方胚胎, 根耕豆太, 方張起花, 木花結穎, 木麥向苗, 而積雨所被, 各穀種種受傷, 巨浸所過, 浦落間間爲災是乎乃, 看審霽後形止, 則比諸當初所料, 猶不至大段是如爲白遣. 驪州·坡州·南陽·富平·長湍·仁川·通津·交河·金浦·安山·高陽·振威·永平·龍仁·陽川·利川·楊根·陽智·果川·衿川·抱川·陰竹等邑段, 早稻·黍·粟間間刈取, 中稻·黍·粟已爲發穗, 晚稻·黍·粟及移秧處, 次第胚胎, 根耕豆太間或結穀, 木花結穎, 木麥苗茂, 而今此諸邑之, 或濱海而潮水相亘, 或沿江而水勢泛濫, 或處地低下而川流渟滯處段, 起花之豆太, 發穗之禾穀, 披靡墊沒, 難望更蘇是如爲白臥乎所, 高燥未移之處, 海邊發鹹之地, 及移插而仍卽乾枯者, 雖無可論是白乎乃, 早餘得霽, 各穀頗有向茂之勢矣. 意外霪霖, 又被傷損, 一路穡事, 將不免失稔, 荐飢民情, 誠極罔涯, 而今若日候連得調順, 霜降又復差遲, 則受病之穀, 庶或成熟, 晚移之秧, 亦能食實是白乎乙喻, 今方以此冀祝爲白乎旆, 緣由馳啓云云.

경기도 내 각 고을의 비온 뒤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수원·안성·양주·죽산·삭녕·교동·풍덕·가평·적성·마전·연천·양성·지평·영종 등 고을과 군영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익어가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막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메밀은 싹이 자라는데, 쌓인 비를 맞아 각종 곡식은 종종 손상을 입었고, 크게 들이치고 휩쓸고 지나가 간간이 떨어져 나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뒤에 경위를 살펴보니 애초에 헤아렸던 것에 비해 오히려 대단하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주·과주·남양·부평·장단·인천·통진·교하·김포·안산·고양·진위·영평·용인·양천·이천·양근·양지·과천·금천·포천·음죽 등 고을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곳은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메밀은 싹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번에 여러 고을의 바닷가는 더러 바닷물이 이르고, 강 주변은 더러 물이 범람하고, 낮은 곳에 있는 땅은 더러 냇물이 흘러 고인 곳의 경우 꽃이 핀 콩·팥이나 이삭이 팬 벼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겨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기 어렵다고 합니다. 높고 메말라 옮겨 심지 못한 곳이나 해변에 염분이 발생한 지역 및 옮겨 심었으나 이내 말라버린 것은 비록 따질 것도 없지만, 가뭄 끝에 비가 세차게 내려 각종 곡식이 거의 무성해질 형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장마로 또 손상을 입으니 전체적으로 농사는 장차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둬 굶주리는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그지없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날씨가 연이어 순조롭고 서리도 또다시 조금 늦게 내린다면 병든 곡식은 더러 거의 성숙할 것이고 늦게 모내기한 것 또한 제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이렇게 기대하며 빕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08. 1783년(정조 7) 8월 7일(양력 9월 3일)

畿營狀啓謄錄 1책(0331~034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15b~15d)

道內各邑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近日農形, 野邑之早稻·黍·粟方張刈取, 中稻·黍·粟間間向熟, 晚稻·黍·粟及早移秧, 方始發穗, 木花及早豆太, 已盡結穎, 根耕豆太今方結穀, 木麥次第開花, 峽邑之早稻·黍·粟已皆登熟, 中稻·黍·粟今始向熟, 晚稻·黍·粟及早移秧, 間或發穗, 木花及早豆太, 今方結穎, 根耕豆太舉皆起花, 木麥近益茁茂, 而其中豐德·通津·交河·金浦·安山·衿川·永宗等七邑鎮段, 浦田之根耕豆太, 間有蟲災, 其形如蠹而色青, 大者寸許而蝕葉, 被損最甚處, 似無結實之望是如爲白遣. 通津·抱川·衿川·龍仁等四邑段, 今初三日申酉時, 一陣雨雹, 霎時驟過, 既不遍境, 直不過一面內一二里, 而所過之地, 起花之豆太, 結穎之木花, 或不無如干撲傷, 而不至大段. 其外各穀, 別無所損是如爲等如, 報來爲白有臥乎所, 田穀中豆太兩種, 最被旱澇所傷, 一路已判歉荒之中, 沿海諸邑之蟲損, 又復如此, 民情去益失望是白如乎, 酺祭設行, 似不容少緩, 而蝕損只在豆太, 姑無延及他穀之事, 則設酺一款, 不敢遽然仰請, 姑觀熾熄形止, 舉行計料是白乎旆, 至於畝穀段, 近因日候之夜涼晝曝, 被雨傷損者, 或不無回蘇之望, 而晚移之得雨最後者, 尙未茁茂, 難期食實, 此則毋論峽野, 幾皆同然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云云.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요즈음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간간이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막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 및 올콩·올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지금 막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차례로 꽃이 피고, 산골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 및 올콩·올팥은 지금 막 꼬투리를 맺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대부분 꽃이 피었고, 메밀은 요즈음 더욱 싹이 무성한데, 그 가운데 풍덕·통진·교하·김포·안산·금천·영종 등 7개 고을과 군영의 경우, 포구의 밭에 그루갈이한 콩·팥은 그사이에 벌레 재해가 발생했는데 모양은 누에 같고 색깔은 푸르며

크기는 1치가량이고 잎을 먹는데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아마도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통진·포천·금천·용인 등 4개 고을의 경우, 이번 초3일 신시·유시에 한바탕 우박이 순식간에 몰려왔다가 지나가서, 이미 지역에 두루 미치지 않는고 바로 1개 면에서 1·2개 리에 지나지 않지만, 지나간 지역은 꽃이 핀 콩·팥과 다래를 맺은 목화가 더러 두들겨 맞아 손상된 곳이 어지간히 없지는 않지만 대단하기에 이르지 않는고, 그 밖의 각종 곡식은 손상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밭곡식 중 콩·팥 2종류는 가뭄과 장마로 가장 많이 손상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미 흉작으로 판가름 난 가운데, 바닷가 여러 고을은 벌레로 인한 손상이 또다시 이와 같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희망을 잃습니다. 따라서 포제의 시행은 아마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하지만, 벌레 먹는 손상은 단지 콩·팥에만 있고 일단 다른 곡식에는 번지지 않은 일이어서, 포제 시행 한가지 사항은 감히 선불리 요청하지 않고 일단 번지는지 그치는지 경위를 살펴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논곡식의 경우, 요즈음 날씨가 밤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쬘므로 인하여 비에 손상된 것은 더러 되살아날 가망이 없지 않으나, 늦게 모내기하여 가장 뒤에 비를 맞은 것은 아직 싹이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여 열매 먹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9. 1783년(정조 7) 8월 16일(양력 9월 12일)

畿營狀啓謄錄 1책(0431~043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19c~20a)

承政院開圻

道內農形, 前已連續馳啓爲白有在果, 近日連接各邑所報, 則野邑之早稻·黍·粟幾盡刈取, 中稻·黍·粟方張成熟, 晚稻·黍·粟盡爲發穗, 根耕豆太已爲結殼, 木花間或摘取, 木麥漸次結實. 峽邑之早稻·黍·粟間間刈取, 中稻·黍·粟漸向成熟, 晚稻·黍·粟方張發穗, 根耕豆太幾盡結殼, 木花結穎而間或摘取, 木麥爛漫開花是如爲白遣, 豐德等七邑之豆太蟲災, 日氣生涼, 近稍止息, 而蝕損最酷處, 花葉脫落, 無所結實是如爲白有臥乎所, 無水根之初未移秧, 高燥地之移插旋枯, 濱海處之發鹹被損, 已無可論是白乎矣, 得雨以後, 民情之所恃而爲望者, 惟在於晚移與乾播之善爲成實, 而白露已過, 節序向晚, 淒風連吹, 涼意日緊, 已發穗者直立不屈, 未發穗者含縮不吐, 霜候早晚, 雖未可知, 目下農形, 已判歉荒是白遣, 至於豆太, 一路俱未免失稔之中, 濱海諸處之蟲損, 又若是孔酷, 災邑民事, 尤極罔涯,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들판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거둬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고, 메밀은 점차 열매를 맺고, 산골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고, 중벼·기장·조는 점점 성숙해 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다래를 맺는데 간혹 따서 거두고, 메밀은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풍덕 등 7개 고을의 콩·팥의 벌레 재해는 날씨가 서늘해지자 요즈음 조금 그치는데, 벌레로 인한 손상이 가장 혹심한 곳은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의 근원이 없어서 애초에 모내기하지 못했거나 높고 메마른 지역에서 옮겨 심고 곧바로 말랐거나 바닷가에 서 염분 때문에 손상된 곳은 이미 따질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가 온 뒤 백성들의 심정상 믿거나 바라는 것은 오직 늦게 모내기한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이 열매가 잘

영그는 것에 있는데, 백로가 이미 지나 절기가 늦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서늘한 조짐이 날마다 다급하니, 이미 팬 이삭은 곳곳이 선 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삭이 패지 못한 것은 움츠린 채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서리 철이 되는데 비록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농사 상황은 이미 흉작으로 판가를 났습니다. 콩·팥의 경우 한결같이 모두 열매가 여물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닷가 여러 곳의 벌레로 인한 손상은 또 이처럼 매우 혹독하니, 재해가 발생한 고을의 백성들 사정은 더욱 그지없이 끝이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10. 1783년(정조 7) 8월 20일(양력 9월 16일)

畿營狀啓謄錄 1책(0432~044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20a~20b)

承政院開圻

卽接安山·仁川·富平三邑所報, 則今月十九日未申時, 雷電大作, 雨雹交下, 移時乃止, 而安山段, 其形大如楸子, 小如鳥卵, 田野渾白, 布地如雪. 經過之處, 垂穎之禾, 穗粒盡落, 殆無餘地是如爲白遣. 仁川·富平兩邑段, 其體或如梧子, 或似黃豆, 所經諸處, 禾穀之穗粒, 舉皆脫落, 豆太之莖葉, 亦皆披靡. 哀彼民事, 茲益罔涯是如爲等如, 報來爲白有臥乎所, 備經旱澇, 又被淒風. 近日農形, 已判歉荒之中, 非時雹災, 又復如此, 言念民事, 節節罔措. 此非遍境之災, 一邑之中, 必有劇歇之不同乙仍于, 更令詳細報來爲白乎旆,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방금 안산·인천·부평 3개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미시·신시에 천둥·번개가 크게 치고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잠시 뒤 이내 그쳤습니다. 안산의 경우 모양이 큰 것은 가래나무 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였으며, 밭과 들판이 온통 하얗고 땅에 눈처럼 펴졌는데, 지나간 곳은 고개 숙인 벼는 알갱이가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천·부평 2개 고을의 경우 모양은 더러는 오동나무 열매 같고 더러는 흰콩 비슷한데, 거쳐 간 여러 곳은 벼 곡식의 알갱이가 대부분 떨어졌고, 콩·팥의 줄기와 잎 또한 다 쓰러져, 애달프게도 저 백성들의 사정은 이에 더욱 끝이 없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가뭄과 장마를 갖가지로 겪었는데 또 서늘한 바람을 맞아 요즈음 농사 상황은 이미 흉작으로 판가름 난 가운데 때아닌 우박 재해가 또다시 이와 같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마디마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역이 두루 겪은 재해가 아니고, 한 고을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심한 곳과 덜한 곳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지시하여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11. 1783년(정조 7) 8월 21일(양력 9월 17일)

畿營狀啓謄錄 1책(0451~046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20c~20d)

承政院開坼

安山等三邑雹災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龍仁·陽智·衿川·金浦所報, 則今月十九日申酉時, 雨雹暴霑, 移時乃止, 而龍仁段, 其形大者或如鷄卵, 小者或如鳥卵, 布地如雪, 殆至尺許, 所過之地, 畓穀之向熟者, 無不剝落, 田穀之結穀者亦爲摧折, 東西十面, 被災尤酷. 南北六面, 姑未及摘奸是如爲白遣, 陽智段, 大如兒拳, 小似鳥卵, 田畓各穀, 不無摧傷, 而其中已熟之禾稼, 只存藁草, 景色哀痛是如爲白遣, 衿川段, 其狀如棗如太. 西南兩面之畓穀, 穗粒剝落, 田穀莖葉糜傷, 而一坪之內, 亦有淺深之別是如爲白遣, 金浦段, 雹災淺深, 詳細摘奸, 則別無大段受傷之事是如爲等如, 報來爲白臥乎所, 陽智·龍仁等邑, 今年農形, 比他稍勝, 而意外雹災, 若是孔酷. 言念民事, 萬萬罔措, 面里被災淺深, 使之躬審, 詳報爲白去乎, 待其報來, 迫于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안산 등 3개 고을의 우박 재해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용인·양지·금천·김포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신시·유시에 우박이 세차게 후드득 쏟아지다가 잠시 뒤 이내 그쳤는데, 용인의 경우 모양이 큰 것은 더러 달걀만 하고, 작은 것은 더러 새알만 했으며, 땅에 눈처럼 덮였는데 거의 1자가량에 이르렀고, 지나간 지역의 경우 익어가던 논곡식은 꺾이거나 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꼬투리를 맺은 밭곡식 또한 꺾였는데, 동쪽·서쪽 10개 면이 피해가 더욱 혹독하고, 남쪽·북쪽 6개 면은 아직 캐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지의 경우 큰 것은 아이 주먹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 비슷했는데, 논밭의 각종 곡식은 꺾이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가운데 이미 익은 벼곡식은 단지 쪼만 남았으니 광경이 애통하다고 합니다. 금천의 경우 모양이 대추나 콩알만 했는데, 서면·남면 2개 면의 논곡식은 이삭의 알갱이가 꺾이거나 떨어지고 밭곡식의 줄기와 잎은 진무르고 손상되니 한 들판에서도 또한 정도의 구별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의 경우, 우박 재해의 정도를 상세히 캐냈는데 크게 입은 손상은 별로 없는 일이라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양지·용인 등의 고을은 올해 농사 상황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나았는데, 뜻밖에 우박 재해가 이처럼 매우 혹독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면과 리가 입은 재해의 정도는 몸소 살펴서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2. 1783년(정조 7) 8월 22일(양력 9월 18일)

畿營狀啓謄錄 1책(0481~048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21d~22a)

承政院開坼

竹山等五邑雹災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利川縣監李德鉉所報, 則今月十九日未申時之間, 雨雹交下, 移時乃止, 而其大或如鵝卵, 或似鷄卵. 所過之處, 畚穀則顆粒盡落, 只存藁草, 田穀則莖葉折落, 有若沈菹, 而十五面中, 長壽旺面六洞, 麻田面一洞, 大陽面一洞, 戶法面三洞, 合西南四面十一洞里, 酷被其害. 民情哀痛, 景色愁慘是如, 報來爲白有等以, 被災民人等慰諭撫摩, 毋或有一民失所之意, 別關嚴飭爲白乎旆,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죽산 등 5개 고을의 우박 재해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이천 현감 이덕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미시와 신시쯤에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잠시 뒤 이내 그쳤는데, 크기가 더러는 거위알만 하고 더러는 달걀 비슷했는데, 지나간 곳의 논곡식은 알갱이가 다 떨어지고 단지 쪼만 남았고, 밭곡식은 줄기와 잎이 꺾이고 떨어져 김칫거리를 절인 것 같았습니다. 15개면 가운데 장수왕면 6개 동, 마전면 1개 동, 대양면 1개 동, 호법면 3개 동, 합하여 서남쪽 4개 면 11개 동·리의 피해가 혹독한데, 백성들의 심정은 애통하고 모습은 근심스럽고 참담하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혹시 한 명의 백성이라도 의지할 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별도 공문으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13. 1783년(정조 7) 8월 27일(양력 9월 23일)

畿營狀啓謄錄 1책(0551~059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24b~25d)

承政院開圻

道內諸邑雹災被傷淺深, 近日東風以後, 民情穡事詳細報來之意, 嚴飭發關爲白有如乎, 連接安城等十四邑鎮所報, 則安城段, 本郡十八面內, 雨雹被災, 爲四面, 而大門面四里爲尤甚, 二里爲之次, 居乎谷面三里爲尤甚, 一里爲之次, 加士面一里爲尤甚, 加乎谷面三里爲之次, 而被災尤甚里段畝穀顆粒, 太半剝落, 田穀莖葉, 無不摧折是乎所, 本郡穡事, 較諸沿海, 可謂稍實, 而東風連吹, 日候淒冷晚移者直立不實, 已胎者含縮不吐, 食實無望, 民事罔措是如爲白遣. 龍仁段, 十一面中, 駒興·水餘兩面, 全數被雹, 枝內面二里, 光曲面二里, 亦慘被其災, 中稻之登熟者, 晚移之向實者, 舉皆剝落. 只存藁草, 豆太木花木麥, 亦皆糜爛, 有若經霜, 無復餘望. 其餘七面段, 各穀受傷, 比諸他面, 雖云稍歇, 無望其成實是如爲白遣. 陽智段, 境內十一面, 同被雹災, 而朱北等五面, 田畝各穀莖摧葉落, 無復餘存, 朱東等六面段, 其所被傷, 差有淺深之別, 而目下民情, 萬萬哀痛是如爲白遣, 富平段, 伊日風雹, 自南及西, 一境十四面, 無處不及, 而馬場面二里, 西面四里, 尤甚被災. 向熟之禾穀, 幾半剝落, 結穀之豆太, 亦皆糜爛, 其餘十二面被傷, 比諸兩面稍歇, 而初既備經旱澇, 未又東風連吹, 田畝各穀, 無不受傷之餘, 意外雹災, 又復孔酷, 目下民事, 萬萬罔措是如爲白遣. 安山段, 六面中郡內面七里, 草山面八里, 仍火面四里, 被雹尤甚, 早穀之已熟者, 剝落無餘, 晚穀之未熟者, 莖葉摧折, 無異經霜, 萬無成實之望. 瓦里馬遊大月等三面, 爲之次, 而莖摧顆落, 大同小異是乎所, 大抵本郡年事, 備傷旱澇, 又被風雹, 無復餘地, 民情遑汲, 更無可言是如爲白遣. 仁川段, 九面中多所面四里, 遠又爾面四里, 朱安面一里, 南村面二里, 新古介面二里, 黃等川面二里, 田又面三里之早稻顆粒, 不至全數剝落, 而晚稻與豆太之未成實者, 最被傷損是乎所, 大體言之, 屢經水旱之災, 意外風雹, 又如是孔慘民事罔措是如爲白遣. 衿川段, 六面中南面五里, 田畝各穀之被損者, 十居三·四, 西面九里, 比諸南面, 似有少間. 餘外四面段, 其所受傷, 不甚大段是乎乃, 統以論之, 雨雹所過之處, 田穀酷被其災, 終無食實之望是遣, 至於畝穀, 則晚移過半, 而東風連吹, 日候淒冷, 或穗而不垂, 或胎而不發, 成實無望, 民情罔涯是如爲白遣. 果川段, 七面中南面四里, 西面五里, 尤爲被災. 中稻之已熟者, 晚稻之向實者, 幾半剝落, 豆太木麥, 亦皆糜爛, 風損之

餘，雹災又復如此，民情實爲罔涯是如爲白遣。通津段，十一面中府內面二里，古里面四里，大坡面二里，早穀之成熟者，間或有傷落處，而不至大段。餘外八面段，驟雨飛雹，間間散落，別無被傷，而水旱風蟲，無災不有，田畝各穀，已判無秋是如爲白遣。金浦段，八面中黔丹面二里，蘆長面三里之災損，甚於他面，而各穀雖無大段被雹剝落之患，當此成實之時，東風連吹，日氣淒冷，無望西成是如爲白遣。水原段，伊日雨雹所過之處，中晚稻向熟者，大半剝落，豆太木麥亦皆糜爛。被雹處躬審則五十面中，荊石面六里，古等村面一里，光教面六里，長足面三里，最被傷損是乎所，今年旱澇，均之爲災，一境穡事，大體判歉，而今此四面，比他稍實矣。今番風雹，又出意外，民事誠爲遑悶是如爲白遣。陰竹段，伊日雨雹淺深，縣監躬審摘奸，則所過處，禾稼之已熟者，多有剝落，發穗者，亦爲受傷。田穀段，又多葉落莖折，所見愁慘，而八面中北面五里內，一里慘被其災，四里間間被害，東面三里內，二里慘被其災，一里亦或受傷，今此東北兩面之雹災，雖非全一坪舉一里而受損是乎乃，近者東風連吹，日候過冷，晚移及豆太，全無成實之望，穡事已判凶歉，民情去益罔措是如爲白遣。永宗段，今番雨雹，暫時驟過，田畝各穀，別無大段受傷之患。面里分等，不爲舉論是如爲白遣。其餘廣州·驪州·楊州·抱川·永平·加平·楊根·砥平·積城·麻田·漣川·朔寧·豐德·長湍·坡州·交河·高陽·陽川·喬桐·南陽·振威·陽城等二十二邑農形段，早稻·黍·粟已盡刈取，中稻·黍·粟間間刈取，晚稻·黍·粟方張成熟，豆太舉皆結穀，木花今方摘取，木麥見方結實，而風後農形，大違所料，禾穀之晚移者，已無成實之意，豆太之被災者，亦無食實之望，中晚黍稷之未及，成熟者，間間萎損，已多乾枯是如爲等如，報來爲白有臥乎所，今年漢南畝農，視諸沿海，可謂稍實，峽邑田農，比之昨年，雖有所遜，亦可謂登稔矣。近日以來，災害多端，野邑之雹傷，峽邑之風損，未免卒痒，穡事民情，俱極罔涯，各別慰諭撫摩，毋或一民騷擾，以待朝家前頭處分之意，嚴飭列邑是白遣，竹山段，被雹形止，前已陳聞是白乎矣，面里區別，尚未報來，星火馳報之意，更爲別關嚴飭爲白如乎，其外各邑，穡事民情，亦姑未報來，待其報來，卽爲登聞計料爲白乎旆，緣由竝以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여러 고을이 우박의 재해로 손상을 입은 정도와 요즈음 동풍이 분 이후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엄중히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이어 안성 등 14개 고을과 군영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안성의 경우, 안성군 18개 면 중 우박의 재해를 입은 곳은 4개 면인데, 대문면은 4개 리가 더욱 심하고, 2개 리가

그 다음이며, 거호곡면은 3개 리가 더욱 심하고, 1개 리가 그 다음이며, 가사면은 1개 리가 더욱 심하고, 가호곡면은 3개 리가 그 다음인데, 입은 재해가 더욱 심한 리의 경우 논곡식은 알갱이가 대부분 깎이거나 떨어지고 밭곡식은 줄기와 잎이 꺾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안성군의 농사는 바닷가와 비교하면 조금 여물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동풍이 연이어 불고 날씨가 서늘해져 늦게 모내기한 것은 곳곳하게 선 채 여물지 않고, 이미 이삭을 뻗은 것은 움츠린 채 이삭이 나오지 않아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용인의 경우, 11개 면 중 구흥·수여 2개 면은 전체가 우박을 맞았고, 지내면은 2개 리, 광곡면은 2개 리가 또한 참혹하게 재해를 입었는데, 익어가던 중벼와 여물어가던 늦벼는 대부분 깎이거나 떨어지고 단지 쉼만 남았으며, 콩·팥·목화·메밀 또한 다 썩어 문드러졌으니, 만약 서리를 맞았다면 다시는 남은 가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7개 면의 경우, 각종 곡식이 입은 손상은 다른 면에 비하면 비록 조금 덜하다고 하지만 열매가 영글 가망은 없다고 합니다.

양지의 경우, 지역 내 11개 면이 똑같이 우박의 재해를 입었는데, 주북면 등 5개 면은 논밭의 각종 곡식이 줄기는 꺾이고 잎은 떨어져 다시는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주동면 등 6개 면은 손상을 입은 정도의 구별이 조금 있으나, 눈앞의 백성들 심정은 매우 애통하다고 합니다.

부평의 경우, 그날 바람과 우박이 남쪽부터 서쪽까지 미쳐 지역 내 14개 면 전체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마장면은 2개 리, 서면은 4개 리가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었으니, 익어가던 벼곡식은 거의 절반이 깎이거나 떨어지고, 꼬투리를 맺은 콩·팥 또한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머지 12개 면은 입은 손상이 2개 면에 비하면 조금 덜하지만 애초에 이미 가뭄과 장마를 갖가지로 겪은 데다 끝내 또 동풍이 연이어 불어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는 끝에 뜻밖에 우박의 재해가 또다시 매우 혹독하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은 도저히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안산의 경우, 6개 면 중 군내면은 7개 리, 초산면은 8개 리, 잉화면은 4개 리가 우박의 피해가 더욱 심한데, 이미 익은 올곡은 깎이거나 떨어져 남은 것이 없고, 익지 않은 늦곡은 줄기와 잎이 꺾이고 부러져 서리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 열매가 영글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와리면·마유면·대월면 등 3개 면은 그 다음인데, 줄기가 꺾이고 알갱이가

떨어진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대체로 안산군의 농사는 가뭄과 장마에 갇가지로 손상되고 또 바람과 우박을 맞아 다시는 여지가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이 황급함은 다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 9개 면 중 다소면 4개 리, 원우이면 4개 리, 주안면 1개 리, 남촌면 2개 리, 신고개면 2개 리, 황등천면 2개 리, 전우면 3개 리는 올벼 알갱이가 전부 깎이거나 떨어지기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열매가 영글지 않은 늦벼와 콩·팥이 가장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대체로 말하자면 여러 번 빗물과 가뭄의 재해를 겪은 데다 뜻밖에 바람과 우박이 또 이처럼 매우 참혹하니, 백성들의 사정은 어찌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금천의 경우, 6개 면 중 남면 5개 리는 손상된 논밭의 각종 곡식이 10 중 3, 4를 차지하고 서면 9개 리는 남면에 비하면 아마도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고, 그 밖의 4개 면의 경우 입은 손상이 대단히 심하지는 않으나, 통틀어 따지자면 우박이 지나간 곳은 밭곡식이 혹독하게 재해를 입어 끝내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논곡식의 경우 늦게 모내기한 것이 절반 이상인데 동풍이 연이어 불고 날씨가 서늘하여 더러는 이삭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더러는 이삭이 패지 않아 열매가 영글 가망이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과천의 경우, 7개 면 중 남면 4개 리, 서면 5개 리는 입은 재해가 더욱 심한데, 이미 익은 중벼와 여물어가던 늦벼는 거의 절반이 깎이거나 떨어지고, 콩·팥·메밀 또한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바람에 손상된 끝에 우박의 재해가 또다시 이와 같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망막하다고 합니다.

통진의 경우, 11개 면 중 부내면은 2개 리, 고리면은 4개 리, 대파면은 2개 리가 성숙한 올곡식은 간혹 손상되고 떨어진 곳이 있으나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8개 면의 경우 소나기와 날리는 우박이 간간이 흩어지며 떨어져 손상된 것이 별로 없지만, 빗물과 가뭄에 바람과 벌레의 재해가 없는 곳이 없어 논밭의 각종 곡식은 이미 거둘 것이 없는 것으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김포의 경우, 8개 면 중 검단면은 2개 리, 노장면은 3개 리가 재해로 입은 손상이 다른 면보다 심한데, 각종 곡식은 비록 우박으로 깎이거나 떨어지는 근심이 대단치 않으나, 이렇게 열매가 영그는 때에 동풍이 연이어 불고 날씨가 서늘하니 수확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수원의 경우, 그날 우박이 지나간 곳은 익어가던 중벼와 늦벼는 대부분 깎이거나 떨어졌고, 콩·팥·메밀 또한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우박 맞은 곳을 몸소 살펴보니, 50개 면 중 형석면은 6개 리, 고등촌면은 1개 리, 광교면은 6개 리, 장죽면은 3개 리가 가장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올해는 가뭄과 장마로 고루 재해를 입었으니 전 지역의 농사가 대체로 흉년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이번에 4개 면은 다른 면에 비하여 결실이 조금 나았는데, 이번 바람과 우박이 또 뜻밖에 발생하여 백성들의 사정은 정말로 다급하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음죽의 경우, 그날 우박의 정도는 현감이 몸소 살피고 캐냈는데, 지나간 곳의 벼곡식 중 이미 익은 것은 깎이거나 떨어진 것이 많고, 이삭이 팬 것 또한 손상됐으며, 밭곡식의 경우 또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꺾인 것이 많아 보기에 근심스럽고 참담하였습니다. 8개 면 중 북면의 5개 리 중에서 1개 리가 참혹하게 재해를 입었고, 4개 리가 간간이 재해를 입었으며, 동면은 3개 리 중에서 2개 리가 참혹하게 재해를 입었고 1개 리 또한 더러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동면·북면 2개 면의 우박 재해는 비록 온 들판과 온 리가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동풍이 연이어 불고 날씨가 지나치게 서늘하여 늦게 모내기한 것 및 콩·팥은 열매가 영글 가망이 전혀 없어 농사는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 났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영종의 경우, 이번 우박은 잠깐 빠르게 지나가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해를 입을 우려가 별로 크지 않아 면과 리의 재해 등급은 거론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밖에 광주·여주·양주·포천·영평·가평·양근·지평·적성·마전·연천·삭녕·풍덕·장단·파주·교하·고양·양천·교동·남양·진위·양성 등 22개 고을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중벼·기장·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성숙하고 있고, 콩·팥은 대부분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메밀은 현재 막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이 분 뒤 농사 상황은 해아렸던 것과 크게 어긋나는데, 늦게 모내기한 벼곡식은 이미 열매가 영글 조짐이 없고, 재해를 입은 콩·팥 또한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중기장·늦기장·중수수·늦수수는 간간이 시들어 손상되거나 이미 바삭 마른 것이 많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올해 한강 남쪽의 논농사는 바닷가에 비교해 보면 조금 결실이 있다고 할만하고, 산골 고을의 밭농사는 작년에 비하면 비록 덜하기는 하지만 또한 풍년이라고 할만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재해가 여러 가지여서 들판 고을은 우박으로 손상되고 산골 고을은 바람으로 손상되어 끝내 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농사와 백성들의 심정은 모두 그지없이 망막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위로하고 어루만져 혹시 한 명의 백성이라도 소란을 피우지 말고 앞으로 조정에서 내리는 처분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엄하게 지시하였습니다.

죽산의 경우, 우박 피해 경위는 앞서 이미 아뢰었는데, 면과 리를 구별한 것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다시 별도 공문으로 엄하게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농사와 백성들 심정 또한 보고가 오지 않았는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4. 1783년(정조 7) 9월 3일(양력 9월 28일)

畿營狀啓謄錄 1책(0601~062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26b~27a)

承政院開圻

前因備邊司啓下關, 竹山府被雹淺深面里區別, 星火馳報之意, 連爲發關嚴飭爲白有如乎, 節到付該府使李彥忠牒呈內, 境內坊里被災淺深, 一一躬審, 則本府十五面內, 尤甚爲四面, 之次爲七面, 免災爲四面, 而遠三面六里內, 加佐杜村柳洞篤村等四里爲尤甚, 粉村勝竹等二里爲之次, 遠一面五里內, 孟洞佐贊內洞山炭谷等四里爲尤甚, 沙田洞一里爲之次, 近三面五里內, 水谷稼谷狹洞石谷等四里爲尤甚, 加里山洞一里免災, 山外面五里內, 七長杜村佳尺等三里爲尤甚, 東花木洞等二里免災, 而以上四面爲尤甚. 西一面四里內, 栗峴一里爲尤甚, 土山排台極智等三里免災, 西三面六里內, 加次岩一里爲尤甚, 葛峴南光楓井東坪加佐等五里免災, 川北一面五里內, 銀石新垵等二里折半被災, 巨云里鎮里草幕等三里免災, 川南一面四里內, 山前里一邊被災, 山北佳業栗洞等三里免災, 近一面五里內, 內草湧泉等二里被災, 外草洞山里牙松等三里免災, 川北二面五里內, 池內洞一里一邊被災, 杜茂仙遊岩馬岩愚谷等四里免災, 府內一面五里內, 山城洞一里一邊被災, 邑內南山衙洞九山等四里免災, 而以上七面爲之次. 其餘府內二面, 西二面, 川南二面, 山內面等四面, 免災是如乎, 之次七面, 雖有一·二里被災者, 互相推移, 庶有延活之道, 而尤甚四面段, 民情遑汲. 若不保朝夕, 抄其尤甚者, 爲先以年還略略分給是在果, 因傳教, 面里區別, 尤宜十分詳慎乙仍于, 府使罔夜還官, 洞里坊曲, 逐庫躬審, 面面慰諭, 俾各奠安是如乎, 周行之際, 自爾費日, 登聞之事, 若是稽滯, 萬萬惶悚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 今以該府使所報觀之, 本府十五面內, 四面免災, 七面爲之次, 而九里被災, 四面爲尤甚, 而四里免災是白如乎, 之次七面段, 同里之中, 被災亦有深淺之別, 彼此之殊, 推移相資, 民情姑不至遑汲是白乎乃, 若其尤甚四面段, 田野既無穀物之見存者, 則目下民情, 實有渙散之慮. 牟種爲先略略分給後, 另加慰諭, 以待來後救活之意, 嚴飭題送爲白乎旃,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앞서 비변사에서 임금님의 재가를 받은 공문에 따라 죽산부의 우박 피해 정도를 면과

리로 구별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이어 공문을 보내 엄하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해당 부사 이언충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역 내 방과 리의 피해 정도를 하나하나 몸소 살펴보았습니다. 죽산부 15개 면 중 더욱 심한 곳은 4개 면, 그다음은 7개 면, 재해를 면한 곳은 4개 면인데, 원삼면은 6개 리 중 가좌·두촌·유동·독촌 등 4개 리가 더욱 심하고, 분촌·승죽 등 2개 리가 그다음이고, 원일면은 5개 리 중 맹동·좌찬·내동·산탄곡 등 4개 리가 더욱 심하고, 사전동 1개 리가 그다음이고, 근삼면은 5개 리 중 수곡·가곡·협동·석곡 등 4개 리가 더욱 심하고, 가리산동 1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산외면은 5개 리 중 칠장·두촌·가척 등 3개 리가 더욱 심하고, 동화·목동 등 2개 리는 재해를 면했는데, 이상 4개 면이 더욱 심하고, 서일면은 4개 리 중 율현 1개 리가 더욱 심하고, 통산·배소·극지 등 3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서삼면은 6개 리 중 가차암 1개 리가 더욱 심하고, 갈현·남광·풍정·동평·가좌 등 5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천북일면은 5개 리 중 은석·신대 등 2개 리는 절반이 재해를 입었고, 거운리·진리·초막 등 3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천남일면은 4개 리 중 산전리의 한쪽만 재해를 입고, 산북·가업·율동 등 3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근일면 5개 리 중 내초·용천 등 2개 리가 재해를 입었고, 외초동·산리·아송 등 3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천북이면은 5개 리 중 지내동 1개 리 한쪽만 재해를 입었고, 두무·선유암·마암·우곡 등 4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부내일면은 5개 리 중 산성동 1개 리의 한쪽만 재해를 입었고, 읍내·남산·이동·구산 등 4개 리는 재해를 면했는데, 이상 7개 면이 그다음입니다. 그 밖에 죽산부의 내이면·서이면·천남이면·산내면 등 4개 면은 재해를 면했습니다. 그다음인 7개 면은 비록 피해를 입은 리가 1, 2개 있지만, 서로 빌려주면 거의 살아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한 4개 면의 경우, 백성들의 심정이 황급하여 아침·저녁을 보장하지 못하니, 더욱 심한 자를 뽑아 우선 1년 환곡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교에 따라 면과 리를 구별하는 것은 마땅히 더욱 충분하게 상세하고 신중해야 하므로 부사가 밤을 새워 관아로 돌아와 동네와 마을을 곳곳마다 몸소 살피고 사람마다 위로하며 달래 각자 편안히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두루 다닐 즈음 자연히 시일이 걸려 아뢰는 일이 이처럼 지체되어 매우 두렵습니다.”라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지금 해당 부사의 보고로 보자면 죽산부 15개 면 중 4개 면은 재해를 면했고, 7개 면은 그다음이고, 9개 리는 재해를 면했고, 4개 면이 더욱 심한데, 4개 리는 재해를 면했습니다.

그다음인 7개 면의 경우, 같은 리 중에서도 입은 재해의 정도에 구별이 있고 서로 다르니, 변통하고 서로 의지하여 백성들의 심정은 일단 다급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한 4개 면의 경우, 들판은 이미 남아 있는 곡식이 없으니, 눈앞의 백성들 심정은 정말로 흠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보리 씨앗을 우선 조금씩 나눠준 뒤 별도로 위로하며 달래 앞으로의 구호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엄하게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5. 1783년(정조 7) 9월 22일(양력 10월 17일)

畿營狀啓謄錄 1책(0672~073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1책(29b~31c)

承政院開坼

臣於陵園奉審之行，先從右沿災邑，轉海入峽，仍遍漢南諸州，而若其深遠僻迂之地，分遣福裨，一一看審，道內之災形淺深民情緩急，粗得領略是白如乎，今年穡事，慘被諸般災損，水田旱田，俱爲大歉之由，朝家旣已下燭教是白呼則，雖不敢更事章皇是白乎乃，大抵民間，纔經大侵，怯於荐歉，忍飢竭力，及時服田，犁墾視他頗勤，播種比前稍廣，而春夏以來，一直元旱，旣移者就枯，未移者失時，雖於得霈之後，茁茂豐熟，固無其望，而伊後雨暘若均，免他災損，則庶不至若是之孔酷是白乎矣，季夏以後，淒風彌月，冷雨連日，早晚各穀，竝皆被損，方胎者蹲而不吐，已穗者萎而不垂瓮不喻，秋氣早生，實爲田家之大忌，新移之秧，遂未發暢[揚]，以至于今，無所成就，目下所見，便同六·七月間農形是白遣，傍川近汙之地，得賴灌溉之力，洞畚生水之處，幸免乾涸之患，早付早移者，得以成實是白乎乃，方茁之際，未霑雨澤，已舒之後，又被風損，莖穗細瘦，顆粒稀疏，比常年不可謂之有秋是白乎旃，至於旱田，則嘆滂之所極，蟲風之所兼，豆太之早種者，虛穀徒存而無實，根耕者，起花絕罕而無穀，則大小豆之慘歉，道內莫不同然是白如乎，峽邑藏風之地，黍粟雖不至全棄，而漢南諸邑之不務黍粟只業豆太者，或舉一坪通一洞，間多有全不掛鎌者是白乎所，摠而言之，則峽邑田農，以黍粟參半之故，少勝於野邑，而畚農則全失，野邑畚農，以移秧稍多之故，似優於峽邑，而田農則大無，其餘木綿蕎麥等各穀，毋論峽野，無一成樣是白遣，竹山等諸邑，被雹雖有多少輕重之別，又是他邑之所無，其被災遑遑之民，舉蒙蠲恤分糴之恩，得以安意奠保，而哀惻惻怛之情，則比他尤倍，此是一路農形民情之大略是白如乎，臣行所過諸邑，上下民人男女老弱，十百爲羣，扶携攔道，擁馬泣訴曰，歸奏吾君，活我窮命，此非尋常希覬之言，顧瞻四野，其勢誠急矣，其情誠慙矣，臣隨處停驂，面面慰安，謹以我聖上宵旰一念，不啻若躬臨蔀屋，代播之教，蠲稅之令，陞戶之停抄，衛士之退番，皆出於愛恤撫摩之大恩，至於貢蟹之勿封，察隱之德，至矣盡矣教是遣，又於月初，值宗社莫大之慶，以聖上貽燕之謨，先軫窮民括龜之難，舊糴則一併停退，新還則從便代捧，而大同之納，姑勿發令，其所以渙降德音於開倉催科之前者，或慮一民繹騷，不得奠居，而至若恃無恐之恩教，實是汝小民再生之秋，須體聖德，毋或流散，各相勸勉，期於安堵之意，宣

布曉諭，則舉皆攢手祝天，以歸俟處分爲言是白如乎，以今實狀論之，籌車無收，甌石俱空，方秋如此，來春可知。言念民事，萬萬罔措，顧臣不才無狀，蒙荷殊恩，畀以一路生靈之責，夙夜祗懼，思所以仰報萬一，而不幸值此歉荒無前民勢孔棘之時，若使災實不明賑濟失宜，則終必爲孤恩尸職之歸，私心懷惕，如集于木。蓋此倭災之政，上關國計，下係民命，特教勉飭，前後截嚴，其在仰體俯恤之道，固當十分惕念，不敢一毫泛忽，關飭列邑，面諭守宰，幾乎舌弊而辭竭是白如乎，通計一道穡事，固無彼此優劣，而一邑之中，既有災面之多寡，一面之中，亦有災里之大小，就其僅免設賑者，謂之稍實，賑而不至全邑者，謂之次，舉一境遑汲者，謂之尤甚。分以三等，謹此開錄爲白在果，稍實之邑，有尤甚之面，尤甚之面，有稍實之里，稍實之里，亦有尤甚之坪，上下前後，稔荒判異，必一一檢覈，無少失實然後，田政可以較著之故，列邑之看坪，自爾差遲災摠姑未齊到，待其概狀之畢捧，細加點檢。事目頒下之外，隨其不足之數，謹當枚舉實摠，更爲陳請計料爲白乎旆，顧今賑飢之方，專係儲穀一事，而公私蓄積，舉皆枵然，上而國計罔涯，下而民邑俱竭，且諸路通歉，轉粟無處，哀我畿甸民事，可謂措手無地。一分用力，惟在於某條捧糴，以備種糧，而以如許年事，如許民勢，准數收捧，實無其路是白如乎，臣於今行，以官民各自盡心，期於準捧之意，丁寧飭諭，而專意納糴，要在寬紓民力乙仍于，採探物情，參以已例。其中已蒙特恩者外，凡係便宜之道，不計煩猥，亦爲條列仰聞，以冀令廟堂稟處是白乎旆，荐飢將劉之民，開賑濟活，斷不可已。尤甚諸邑，固無可論，而之次邑尤甚面里之最切急處，一例設賑是白乎矣，民穀多寡，姑難預料。臣謹當與災邑守令，博議深究，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제가 능·원을 받들어 살피러 가면서 먼저 서해 바닷가의 재해를 입은 고을부터 산골 고을로 들어가며 한강 남쪽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폈는데, 깊게 구석지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은 비서를 나눠서 보내 하나하나 살펴보고, 도내 재해 상황의 정도와 백성들 심정의 다급한 정도를 대략 파악하고 짐작하여 알았습니다.

올해 농사는 여러 가지로 재해를 참혹하게 입었는데, 밭과 논이 모두 크게 흉년인 연유는 조정에서 이미 굶어살았으니 비록 감히 다시 장황한 말을 일삼지는 않겠으나 대체로 백성들이 좀 전에 크게 재해를 겪어 거듭된 흉작에 겹을 먹고 굶주림을 참고 힘을 다하여 때에 맞춰 밭일에 종사하며 보습으로 일구는 것은 보기에 다른 해에 비해 자못 부지런했

고 씨앗을 뿌린 것도 이전에 비해 조금 넓었습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 이후 줄곧 가뭄이 심하여 이미 모내기한 것은 말라가고, 모내기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것은 비록 단비가 내린 뒤라도 싹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익을 가망은 없었습니다. 그 뒤 비와 햇볕이 약간 고르니 다른 재해는 벗어나 이처럼 매우 혹심한 지경에는 거의 이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늦여름 이후 서늘한 바람이 한 달 동안 불고 찬비가 연이어 내려 각종 올곡·늦곡이 모두 다 손상됐고, 바야흐로 이삭은 웅크린 채 나오지 않고, 이미 팬 이삭은 시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 기운이 일찍 생겼는데 정말로 농가에서 크게 꺼리는 것이며 새로 옮겨 심은 것은 마침내 떨어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러 이론 것이 없습니다. 눈앞의 것으로 보자면 바로 6·7월 사이의 농사 상황과 같습니다. 시냇가나 보에 가까운 지역은 물을 대는 덕을 보고, 동네 논 중 물이 나는 곳은 다행히 바짝 마를 근심에서 벗어나고, 일찍 씨앗을 뿌리거나 일찍 모내기한 것은 여물 수 있었는데 막 싹이 자랄 즈음 우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였고, 이미 늦은 뒤에 또 바람에 손상을 받아 줄기와 이삭이 가늘고 알맹이가 드무니 평년에 비하여 거들 것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밭의 경우, 가뭄과 장마가 그지없었고 벌레와 바람이 겹쳐 일찍 심은 콩·팥은 빈꼬투리만 남아 알맹이가 없고, 그루같이한 것은 꽃이 핀 것이 매우 드물어 꼬투리가 없으니 콩과 팥은 참혹한 흉년인데 도내에 같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산골 고을의 바람이 잠잠한 지역은 기장과 조가 비록 전부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한강 남쪽의 여러 고을은 기장과 조에 힘쓰지 않고 단지 콩과 팥 농사만 한 경우 더러 온 들판과 한 동네를 통틀어 그사이에 낫을 댈 것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산골 고을의 밭농사는 기장과 조가 절반을 차지하므로 들판의 고을보다 조금 낮고, 논농사는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들판 고을의 논농사는 모내기한 것이 조금 많으므로 아마도 산골 고을보다 나은 듯하고 밭농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밖에 목화와 메밀 등 각종 곡식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하나도 모양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죽산 등 여러 고을의 우박 피해는 비록 수량과 정도의 구별이 있고, 또 이는 다른 고을에는 없는 것이니, 재해를 입어 허둥대는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하고 환곡을 나누어주는 은택을 모두 입어 안심하고 편안히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엽고 측은한 정황은 다른 곳에 비하여 곱절로 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농사 상황과 백성들 심정의 대략입니다. 제가 지나간 여러 고을에서 높고 낮은 신분의 백성과 남녀·노소가 열 명, 백 명씩

우리를 지어 서로 이끌며 길을 막고, 말을 둘러싸고 울며 호소하기를, “돌아가 우리 임금님께 아뢰어 우리 곤궁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는 예사로운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사방 들판을 두루 돌아보면 그 형세는 정말로 다급하고 그 정황은 정말로 근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는 곳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위로하며 안심시키기를, “삼가 우리 거룩한 임금님께서서는 밤낮 한결같은 생각으로 몸소 백성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대신 씨앗을 뿌리라 지시하고 세금을 감면하라고 명령하고, 승호 뽑는 것을 멈추고, 위사를 퇴근하게 한 것은 다 사랑하며 보살피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는 큰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게를 봉물로 바치지 말게 한 것의 경우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는 덕이 매우 극진한 것이다. 또 이달 초에 종묘사직의 막대한 경사를 맞아 거룩한 임금님께서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내림으로써, 먼저 공색한 백성에게 세금을 박박 긁어내는 어려움을 헤아려 이전 환곡을 모두 중지하거나 물리고 새 환곡은 편한 대로 대신 받고, 다 함께 바치는 것은 일단 명령을 내리지 말게 하셨다. 창고를 열고 세금을 독촉하기 전에 덕스러운 말쑥을 두루 내린 까닭은, 더러 한 명의 백성이라도 시끄럽고 편안히 지내지 못할까 염려한 것이다. 믿고 두려워 말라는 은혜로운 지시의 경우, 정말로 이는 너희 힘없는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름지기 성스러운 덕을 본받고 혹시라도 흠어지지 말고 각각 서로 권하고 힘써서 기어이 안심하고 지내도록 하라.”는 뜻을 널리 퍼뜨리고 깨우쳤더니 대부분이 손을 모아 하늘에 빌며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으로 따지자면 소쿠리와 수레는 거둔 것이 없고 항아리와 가마니는 모두 비었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이와 같으니 오는 봄을 알 만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돌아보건대 저는 제주도 없고 볼 만한 것이 없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한결같이 백성을 보살피는 책임을 주시어,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며 만에 하나라도 은혜를 갚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흉년과 이전에 없던 백성들의 형세가 매우 어려운 때를 만나 만약 재해와 결실이 분명하지 않고 구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끝내는 분명히 은혜를 저버리고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니, 사사로이 두려운 마음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렇게 재해에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은 위로는 국가 재정에 관련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목숨에 관계됩니다. 특별한 지시와 힘쓰라는 지시가 지금까지 매우 엄중한데 위를 받들고 아래를 살피

는 도리에 진실로 충분히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할 수 없어 여러 고을에 공문으로 지시하고, 수령을 대면하여 타이르기를 거의 혀가 닳고 말이 바닥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농사를 통틀어 계산하면 진실로 서로 우열이 없는데, 한 고을 중에도 이미 재해를 입은 면에 양의 차이가 있고, 또한 재해를 입은 리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진휼 시행을 겨우 면한 경우 ‘조금 결실’이라 하고, 진휼하되 전 고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다음’이라 하고, 한 지역 전체가 다급한 경우 ‘더욱 심함’이라 하여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삼가 이렇게 죽 기록합니다. ‘조금 결실’의 고을에도 더욱 심한 면이 있고, 더욱 심한 면에도 조금 결실의 리가 있으며, 조금 결실의 리에 또한 더욱 심한 들이 있습니다. 위아래·앞뒤로 풍작과 흉작이 뚜렷하게 다르니 반드시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 뒤에야 농사 정책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고을에서 들을 살피다 보니 자연히 조금 지체되었고, 재해를 총괄한 것은 아직 일제히 도착하지 않았고, 개요를 모두 바치기를 기다려 상세히 점검하고, 사목으로 반포된 것 외에 부족한 수에 따라 삼가 실제 총수를 하나하나 거론해야 마땅하니 다시 아뢰어 요청할 계획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굶주림을 진휼하는 방법은 오직 저장한 곡식 한 가지에 해당하는 일이고, 공적·사적으로 저장한 것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위로는 국가 재정이 끝이 없고 아래로는 백성과 고을이 모두 바닥나고, 또 여러 길이 흉작으로 통하고 곡식은 돌릴 곳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저희 경기도 백성들의 사정은 손쓸 길이 전혀 없다고 할 만합니다. 한 톨이라도 쓸 만한 힘은 오로지 어떤 조목의 환곡을 받아 씨앗과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얼마간 농사를 짓게 하고 백성들의 형세를 허용하여 수효대로 거두는 데에 달렸는데, 정말로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행차에 관아와 백성이 각자 힘을 다하여 기어이 만들겠다는 뜻을 진실하게 지시하고 타일렸는데, 오직 한마음으로 환곡을 바치게 하는 요체는 백성들의 능력을 너그럽게 펴도록 하는 데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형편을 캐내고 이전 사례를 참조하는데, 그중 이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외에 무릇 편리하고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면 번거로움이나 두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또한 조목을 나열하여 삼가 아웁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거둬진 굶주림으로 장차 죽으려는 백성에게 진흙을 베풀어 구제하고 살리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더욱 심한 여러 고을은 진실로 따질 것도 없고, 그다음 고을과 더욱 심한 면·리 중 가장 절실하고 다급한 곳은 한결같은 규정으로 진흙을 베풀되, 백성들의 곡식 양은 일단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저는 삼가 마땅히 재해를 입은 고을의 수령과 널리 상의하고 깊이 살펴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6. 1784년(정조 8) 3월 16일(양력 4월 5일)

畿營狀啓謄錄 4책(2982~299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19b~119d)

承政院開坼

節祇受有旨內, 今番雨後兩麥, 果有沾潤之益, 而多寡亦果適中, 令各該邑宰, 躬審田野, 從所見報來狀聞之意, 令廟堂卽爲分付諸道, 畿伯則方在巡路, 亦從所見狀聞事, 有旨教是白置有亦. 大抵近日以來, 雨澤稍闕, 種麥者望雨是白在如中, 昨今日所得, 不多不少, 適中於牟農, 而秋牟頓然脫甲向青, 春牟幾盡畢耕, 而早耕者已多立苗. 以臣巡路所經觀之, 則可謂知時好雨, 民情胥悅乙仍于, 臣在廣州境, 方以目下所見, 枚舉登聞之際, 得接衿川·果川·安山·富平·陽川·高陽等六邑所報, 則今月十五日未申時, 始雨霏灑, 同日亥時或今日子丑時至. 所得俱爲一鋤, 而其膏潤於兩麥, 一如臣在道所見是白乎等以, 爲先馳啓爲白遣, 未到諸邑段, 今方發關知委, 躬審田野, 使之從所見報來, 待其齊報, 參以前路見聞, 更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이번에 삼가 임금님의 지시를 받은 내용에,

“이번에 비가 온 뒤 보리와 밀은 정말로 촉촉하게 윤기를 더하고 양 또한 정말로 알맞으니, 각각 해당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논밭을 몸소 살펴서 본 것을 보고하는 대로 문서로 아뢰라는 뜻을 조정에서 즉시 여러 도에 분부하게 하고, 경기도 감사는 바야흐로 순시하는 길에 있으니 또한 본 것을 문서로 아뢰도록 하라.”

라는 일로 임금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얼마 전부터 우택이 조금 줄고 씨앗을 뿌린 보리는 비를 바라는데, 어제오늘 내린 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보리농사에 딱 맞으니, 가을보리는 갑자기 겹질을 벗고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일찍 씨앗을 뿌린 것은 이미 다 싹이 났습니다. 제가 순시하는 길에 거친 곳으로 보자면 때를 아는 좋은 비라고 할 수 있고, 백성들의 심정은 서로 기쁘므로 저는 광주 지역에서 막 눈앞에 본 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아뢴 즈음에 금천·과천·안산·부평·양천·고양 등 6개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미시·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 혹은 오늘 자시·축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모두 1서였는데,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이 하나같이 제가 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으로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의 경우 지금 막 공문을 보내 알려서 몸소 논밭을 살펴서 본 대로 보고하게 하였는데,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앞길에 본 것을 참작하여 다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7. 1784년(정조 8) 3월 17일(양력 4월 6일)

畿營狀啓謄錄 4책(2992~300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19d~120a)

承政院開坼

節祇受有旨內, 卿以巡路雨澤事, 馳啓矣. 前路麥事, 雨後形止, 隨即一一登聞事, 有旨教是白置有亦. 臣於昨日, 廣州境內各陵寢奉審後, 方到本府監賑爲白有知乎, 行邁五·六十里之間, 雨澤均洽, 秋牟舉皆發青, 而或有向茂之處, 春牟幾盡畢耕, 而已多出土之田, 且貯此水而治早付之水田者有之是白遣, 此際得接各邑所報, 則廣州·坡州·長湍·交河·仁川·南陽·驪州·竹山·永平·陰竹等邑, 所得爲一犁, 楊州·抱川·金浦·利川·陽城等邑, 所得爲一鋤, 而皆以秋牟脫黃向青. 春牟善耕立苗, 方當兩麥發苗之際, 得此時雨膏潤之澤, 民事萬幸是如, 一齊報來, 則可知道內均霑, 所得適中是白乎旆, 臣於當日, 聚集本府飢民, 饋飯給糧, 察其形貌, 審其動靜, 則比諸漢北諸邑, 有勝無損, 已有蘇安之色, 少無捐瘠之慮, 而舉皆持飯受糧, 齊聲攢手曰, 至今延活, 罔非吾君愛欲生之至恩云云. 此則一路飢民, 可知同情是白遣, 雖以還民言之是白良置, 有軍餉之故, 還分比他稍優, 口食種子, 似無不足之慮是白乎旆, 雨澤之未到諸邑段, 臣方發向利川·驪州, 隨其報來, 參以經過見聞, 更爲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이번에 삼가 임금님의 지시를 받은 내용에,

“그대가 순시하는 길에 우택에 대한 일을 긴급 보고하였는데, 나아가는 길의 보리에 대한 것과 비온 뒤의 경위를 즉시 하나하나 아뢰도록 하라.”

라는 일로 임금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광주 지역의 각 왕릉을 받들어 살핀 뒤 막 본 감찰부에 도착하여 진황을 살폈습니다. 지나간 50·60리 사이에 우택이 고르게 흡족하여 가을보리는 대부분 푸른색을 띠는데, 더러 무성해지는 곳도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이미 싹이 땅 밖으로 나온 밭이 많고, 또 이번 빗물을 보고 일찍 씨앗 뿌릴 논을 손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과주·장단·교하·인천·남양·여주·죽산·영평·음죽 등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양주·포천·김포·이천·양성 등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가을

보리는 다 누런색을 벗고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씨앗을 잘 뿌려 싹이 트는데,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막 싹이 틀 즈음에 이처럼 때에 반짝반짝 윤기 나는 비를 맞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이라고 일제히 보고가 왔으니, 도내에 고루 적셨고 딱 알맞게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당일에 본 관찰부에 굶주린 백성들을 모아 밥을 먹이고 양식을 주며 모습을 살피고 움직임을 살피니 한강 북쪽 여러 고을에 비하여 극복은 있고 손상은 없는데, 이미 편안함이 살아난 모습이 있고, 조금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며, 대부분 밥을 지니고 양식을 받아 일제히 손을 모아 소리치기를, “지금 살아나가게 되었으니 우리 임금님의 아끼고 살리고자 하는 지극한 은혜 아님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굶주린 백성들은 한결같이 같은 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환곡 백성으로 말하더라도 군량이 있으므로 다른 것에 비하여 조금 넉넉하게 환곡을 나눠주면 식량과 종자로 아마도 부족할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우택에 대한 보고가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의 경우 제가 막 이천과 여주로 출발하였는데, 보고가 오는 대로 지나가면서 본 것을 참작하여 다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8. 1784년(정조 8) 3월 10일(양력 3월 30일)

畿營狀啓謄錄 4책(3002~301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20a~120b)

承政院開坼

廣州等十五邑雨澤及臣巡路所經麥事, 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朔寧·麻田·積城·漣川·楊根·砥平·喬桐·永宗等邑鎮所報, 則今十五·六日之雨, 俱得一犁, 而秋牟舉皆脫甲發青, 春牟幾盡耕播立苗是如爲白遣, 更以臣巡路所經觀之, 則驪利兩邑之間, 今番雨澤, 及時適中, 老農之言, 舉以爲寒食之雨, 最爲田家吉兆, 兩牟無欠. 民情稍以爲慰是如爲白臥乎所, 數日之間, 天氣暄妍, 牟田之向青立苗, 洞畚之治墜翻耕, 田野景色, 日漸改觀是白乎旆, 民勢之當春艱窘, 雖無漢南北之差殊, 而糶穀之排巡不得, 漢南比諸漢北, 略有勝焉, 亦足幸甚是白乎旆, 列邑雨報, 毋論峽野, 幾皆齊到, 而或鋤或犁, 一路均霑, 非徒牟麥蘇潤之喜, 付種亦將及期無慮是白遣, 臣驪州境內兩陵寢奉審後, 監賑次今方發向陽智·龍仁·水原等邑, 前路之麥農形止, 民勢緩急, 隨所見聞, 更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광주 등 15개 고을의 우택 및 제가 순시하는 길에 겪은 보리농사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삭녕·마전·적성·연천·양근·지평·교동·영종 등 고을과 군영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15·16일의 비로 모두 1려가 내렸으며, 가을보리는 대부분 겹질을 벗고 푸른색을 띠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튼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순시하는 길에 겪은 것으로 보자면 여주·이천 2개 고을 사이에 이번 우택은 때맞춰 딱 들어맞는데, 늙은 농부의 말로는 한식 절기의 비는 농가에 가장 큰 길조이고 가을보리와 봄보리에 부족함이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에 조금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 날씨가 따사롭고 좋으니 보리밭은 푸르러지며 싹이 트고, 동네 논은 두둑을 손질하고 땅을 갈아엎는데, 밭과 들판 모습은 날로 점점 모양이 바뀝니다. 백성들의 형세는 봄을 맞아 가난하고 궁색한데 비록 한강 남쪽과 북쪽에 차이는 없지만 환곡은 배순할 수 없는데, 한강 남쪽은 한강 북쪽에 비해 약간 낮고, 또한 밭걸음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 보고는 산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거의 다 일제히 도착하였는데

더러는 1서가, 더러는 1려가 내려 한결같이 고루 적셨으니 보리와 밀의 윤기가 되살아나
기쁠 뿐만 아니라 무논에 씨앗을 뿌린 것 또한 장차 시기에 맞을 것이니 염려 없습니다.
저는 여주 지역 내의 2개 능침을 받들어 살핀 뒤 진흙을 살피려고 지금 막 양지·용인·수원
등의 고을로 출발하였는데, 앞길의 보리농사 경위와 백성들 심정의 다급한 정도는 보고
듣는 대로 다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9. 1784년(정조 8) 윤3월 5일(양력 4월 24일)

畿營狀啓謄錄 4책(3312~331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5b~135b)

承政院開坼

道內農形段, 秋牟日漸茁長, 春牟亦皆向茂, 有水根洞沓, 已畢鍤役, 或付種或注秧, 峽邑早黍粟方始耕播, 而近日雨澤稍闕, 民望方切之中, 甘澍伊始, 兩牟蘇潤. 民事, 尤爲幸甚, 列邑形止, 今方待其報來, 而先以臣營下所見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봄보리 또한 다 무성해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이미 가래질을 마쳤고, 더러는 무논에 씨앗을 뿌리고 더러는 모에 물을 대고, 산골 고을의 올기장·올조는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요즈음 우택이 조금 줄어 백성들의 바람이 바야흐로 절실한 가운데 단비가 시작되어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윤기가 되살아나니, 백성들의 사정은 더구나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지금 막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며, 먼저 저의 감영에서 본 것을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道內農形及今日營下始雨形止, 朝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高陽·衿川·果川等邑所報, 則高陽段, 今月初五日巳時始雨, 衿川·果川兩邑段, 同日辰時始雨, 目下所得, 俱爲浥塵, 而當此早穀播種, 牟麥向茂之時, 得此沾潤. 民事, 幸甚是如報來, 爲白有等以, 先爲登聞爲白乎旆, 此外各邑段, 姑無所報, 而雨澤之隨即登聞, 飭教際降, 今方分付列邑, 使之馳報, 待其報來, 陸續狀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농사 상황 및 오늘 감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는 아침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고양·금천·과천 등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고양의 경우 이번 달 초5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금천·과천 2개 고을의 경우 같은 날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앞에 내린 것은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이렇게 올곡의 씨앗을 뿌렸는데 보리와 밀이 무성해질 시기에 이렇게 윤기 나게 적시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이라고 하며 보고가 왔으므로 먼저 아뢰입니다. 이 밖의 각 고을의 경우 아직 보고가 없는데, 우택을 곧바로 아뢰라는 임금님의 지시가 내릴 즈음에 금방 여러 고을에 분부하여 긴급 보고하게 하였는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20. 1784년(정조 8) 윤3월 6일(양력 4월 25일)

畿營狀啓謄錄 4책(3321~332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5c~135d)

承政院開坼

昨日高陽等三邑沍塵之由, 已爲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坡州·富平·通津·金浦·陽川等五邑, 皆於初五日辰巳時始雨, 俱爲沍塵. 所得雖小, 猶能沾潤兩牟, 而雨意尙濃是如爲白遣, 見今日氣蒸鬱, 陰雲四低, 霏微不止, 一霽有望, 方切顚企,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어제 고양 등 3개 고을에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렸다는 연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파주·부평·통진·김포·양천 등 5개 고을은 다 초5일 진사·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는데, 내린 비가 비록 적지만 오히려 가을보리와 봄보리를 윤기나게 적실 수 있었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다고 합니다. 현재 날씨가 수증기로 답답하고 먹구름이 사방에 깔렸으며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으니 한차례 퍼부를 가망이 있어 바야흐로 절실히 기대합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21. 1784년(정조 8) 윤3월 6일(양력 4월 25일)

畿營狀啓謄錄 4책(3322~333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5d~135d)

承政院開圻

坡州等五邑始雨沍塵之由, 俄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楊州·長湍等邑段, 初五日辰巳時始雨, 優得一鋤, 驪州·利川·永平等邑段, 巳·午時始雨, 俱爲沍塵, 坡州·富平·高陽·陽川等邑段, 初六日寅·卯時, 更爲始雨, 又得一鋤. 交河段, 同日辰時始雨, 亦爲沍塵, 衿川段, 初五日巳時以後, 或霏或灑, 今日巳時至, 又爲沍塵是如, 報來爲白有等以, 先此登聞爲白乎旂, 此外各邑段, 待其所報, 隨即狀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파주 등 5개 고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먼지만 적실 정도였던 연유는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주·장단 등 고을의 경우, 초5일 진시·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넉넉한 1서가 내렸고, 여주·이천·영평 등 고을의 경우 사시·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파주·부평·고양·양천 등 고을의 경우 초6일 인시·묘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또 1서가 내렸고, 교하의 경우 같은 날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또한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금천의 경우 초5일 사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오늘 사시에 이르렀는데 또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보고가 왔으므로 먼저 이렇게 아뢰니다. 이밖에 각 고을의 경우 보고를 기다려 곧바로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22. 1784년(정조 8) 윤3월 6일(양력 4월 25일)

畿營狀啓謄錄 4책(3331~333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5d~136a)

承政院開圻

楊州等十一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永平段, 自初五日午時, 酉時至所得, 爲一鋤. 抱川段, 同日辰時始雨, 午時至所得, 爲浥塵, 高陽段, 初六日未時至, 又得一鋤. 通津·交河等邑段, 同日午未時至, 前後所得, 合爲一鋤, 而兩麥沾潤, 一倍蘇醒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得雨, 次第報來, 而雲陰不散, 雨意方濃, 一路均霑, 從此可期, 誠爲喜幸是白乎旂, 測雨器水深, 自昨日辰時, 至今日亥時, 或灑或止, 所得合爲一分,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양주 등 11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영평의 경우 초5일 오시부터 유시까지 내린 것이 1서이고, 포천의 경우 같은 날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시까지 내린 것이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고양의 경우 초6일 미시까지 또 1서가 내렸고, 통진·교하 등 고을의 경우 같은 날 오시·미시까지 앞뒤로 내린 것이 총 1서인데, 가을보리와 봄보리를 윤기 나게 적셔 곱절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보고가 차례로 오는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바야흐로 짙고 한결같이 고루 적셨으니 이로부터 기약할 수 있어 정말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측우기 수심은 어제 진시부터 오늘 해시까지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쳤는데, 내린 것은 총 1푼입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23. 1784년(정조 8) 윤3월 7일(양력 4월 26일)

畿營狀啓謄錄 4책(3332~334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6a~136b)

承政院開圻

永平等五邑得雨形止, 前夜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積城·麻田, 俱於昨日辰·巳時, 下雨, 而積城爲一鋤, 麻田爲浥塵, 猶未開霽是如爲白遣, 永平段, 亦於昨日丑·寅時, 又得一鋤, 抱川段, 浥塵之後, 亦得一鋤是如爲白乎所, 漢南若而邑, 姑未報來, 而已得之處, 其膏潤於牟麥之田, 沾滋於注種之畝, 恰慰三農之望是白遣, 自昨日亥時, 今日卯時至, 臣營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영평 등 5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전 밤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적성·마전은 모두 어제 진사·사시에 비가 내렸는데 적성은 1서였고, 마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여전히 개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평의 경우 또한 어제 축시·인시에 또 1서가 내렸고, 포천의 경우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또한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한강 남쪽의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는데, 이미 내린 곳은 보리와 밀밭에 반짝반짝 윤기나 나고, 물을 대고 뽕씨를 뿌린 논은 더욱 적서 3차례 농사일의 가뭄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어제 해시부터 오늘 묘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4. 1784년(정조 8) 윤3월 7일(양력 4월 26일)

畿營狀啓謄錄 4책(3341~334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6b~136c)

承政院開坼

積城等四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廣州段, 今月初六日寅·卯時始雨, 申時至霏微浥塵, 果川·安山等邑段, 同日亥時至, 所得俱爲一鋤, 富平·高陽·陽川·衿川等邑段, 初七日丑·寅時, 霏然霑下, 毋論田畝, 舉皆周洽. 加平段, 初五日未時始雨, 初六日卯時至, 亦得一鋤, 朔寧段, 同日未時始雨形止, 先爲報來爲白有臥乎所, 漢南諸處, 近地若而邑外, 姑無報來之事. 以此推之, 則得雨多寡, 漢南似遜於漢北是白乎矣, 前夜之雨, 想必同得, 方待邑報, 卽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적성 등 4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의 경우 이번 달 초6일 인시·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신시까지 부슬부슬 내려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과천·안산 등 고을의 경우 같은 날 해시까지 내린 것은 모두 1서였고, 부평·고양·양천·금천 등 고을의 경우 초7일 축시·인시에 세차게 내리거나 주룩주룩 내렸는데, 논밭을 따질 것 없이 대부분 두루 흡족했고, 가평의 경우 초5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6일 묘시까지 또한 1서가 내렸고, 삭녕의 경우, 같은 날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는 먼저 보고가 왔습니다. 한강 남쪽 여러 곳은 가까운 지역의 고을 외에는 아직 보고가 온 일이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내일 비의 양은 한강 남쪽은 아마도 한강 북쪽보다 적은 듯합니다. 지난밤의 비는 생각건대 분명히 같이 내렸을 텐데, 바야흐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5. 1784년(정조 8) 윤3월 7일(양력 4월 26일)

畿營狀啓謄錄 4책(3342~335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6c~136d)

承政院開圻

廣州等九邑雨澤,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各邑所報, 次第來到, 而交河段, 自今日丑時, 卯時至連爲注下, 田畚周洽, 廣州·坡州·通津·金浦·安山·果川段, 自同日寅時, 巳時至所得, 俱爲一犁, 朔寧漣川段, 初六日巳時至, 所得亦爲一犁. 仁川·龍仁·利川·陽智段, 自今日丑寅時, 卯時至俱得一鋤, 砥平段, 初五日辰時始雨, 水原段, 初七日丑時始雨浥塵, 而雨意不散, 霈然有望是如爲白有臥乎所, 稍遠之邑, 姑未報來, 已得之處, 亦有多寡, 而牟田膏潤而一倍青新, 秧畚沾漑而方張注種, 霈澤知時, 農務無愆. 民事, 誠爲萬幸是白乎旆, 此外未到諸邑段, 待其報來, 續卽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광주 등 9개 고을의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보고가 차례로 도착하였는데, 교하의 경우 오늘 축시부터 묘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렸는데 논밭에 두루 흡족하고, 광주·파주·통진·김포·안산·과천의 경우 같은 날 인시부터 사시까지 내린 것이 모두 1려이고, 삭녕·연천의 경우 초6일 사시까지 내린 것 또한 1려이고, 인천·용인·이천·양지의 경우 오늘 축시·인시부터 묘시까지 모두 1서가 내렸고, 지평의 경우 초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수원의 경우 초7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먼지만 적실 정도였는데, 비올 조짐이 흠어지지 않아 세차게 내릴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먼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으며, 이미 비가 내린 곳 또한 양의 차이가 있는데, 보리밭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곱절로 푸르름이 새롭고, 모내기할 논은 물을 대 적시고 한창 물을 대 벼씨를 뿌리고 있고, 때를 알고 큰비가 내리니 농사에 힘써 시기에 늦지 않으면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 밖에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의 경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이어서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6. 1784년(정조 8) 윤3월 8일(양력 4월 27일)

畿營狀啓謄錄 4책(3351~335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6d~137a)

承政院開坼

交河等十五邑雨澤, 昨已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長湍段, 自初五日一鋤之後, 初七日寅時至, 連爲注灑, 田畝舉皆周洽, 豐德段, 初五日寅時始雨, 初六日卯時至, 所得洽滿一犁, 楊根段, 初六日戌時始雨, 初七日卯時至, 亦得一犁. 驪州段, 初七日丑時, 更爲始雨, 同日卯時至, 又得一鋤, 南陽·安城·陽城段, 俱於初七日寅時始雨形止, 先爲報來, 知時好雨, 民事萬幸, 列邑同情是白乎所, 未到若而邑段, 待其齊報, 農形竝以更爲登聞計料, 緣由馳啓云.

승정원 열람

교하 등 15개 고을의 우택은 어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장단의 경우 초5일 1서가 내린 뒤 초7일 인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려 논밭 대부분이 두루 흠족하고, 풍덕의 경우 초5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6일 묘시까지 내린 것이 흠족하게 1려에 가득 찼고, 양근의 경우 초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묘시까지 또한 1려가 내렸고, 여주의 경우 초7일 축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묘시까지 또 1서가 내렸고, 남양·안성·양성의 경우 모두 초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가 왔습니다. 때를 아는 좋은 비는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인 것은 여러 고을이 같은 상황입니다. 도착하지 않은 고을의 경우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농사 상황과 아울러 다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27. 1784년(정조 8) 윤3월 8일(양력 4월 27일)

畿營狀啓謄錄 4책(3352~336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37a~137a)

承政院開圻

長湍等七邑雨澤, 俄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鎮所報, 則竹山·振威段, 初七日寅卯時, 始雨霏灑, 同日午時, 仍爲開霽, 而僅爲浥塵, 永宗段, 初六日卯時始雨, 初七日丑時至, 所得洽滿一犁, 水原段, 自初七日丑時浥塵之後, 至初八日辰時, 或灑或止, 雖未滿鋤, 沾膏兩麥, 一倍青茁, 永平·積城段, 初七日卯時至, 連爲霏下, 田畚舉皆周洽是如爲白有等以, 先此登聞爲白乎旆, 此外只報浥塵之處及不報始雨之邑段, 今方撥馬關間, 待其報來, 卽爲狀聞計料,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장단 등 7개 고을의 우택은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과 군영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죽산·진위의 경우 초7일 인시·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오시에 이내 개었는데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영종의 경우 초6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축시까지 흠족하게 1려에 가득 찼고, 수원의 경우 초7일 축시에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로부터 초8일 진시까지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쳤는데, 비록 1서에도 차지 못했지만, 가을보리와 봄보리를 반짝반짝하게 적셨고 곱절로 싹을 푸르게 했고, 영평·적성의 경우 초7일 묘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논밭은 대부분 두루 흠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먼저 아뢰니다. 이 밖에 단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보고한 곳 및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우 지금 막 파발마 공문으로 물어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

0028. 1784년(정조 8) 윤3월 9일(양력 4월 28일)

畿營狀啓謄錄 4책(3432~344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40a~140b)

承政院開坼

竹山等六邑得雨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楊州·抱川·漣川等邑所報, 則初七日子丑時以後, 連爲霪下, 初八日卯辰時開霽, 田畚無不周洽. 陰竹段, 初七日辰時, 始爲下雨, 同日午時至, 洽得一鋤, 兩牟潤色青茂, 野畚治塋注秧是如爲白遣, 沍塵報來諸邑段, 姑未得周洽之報, 待其有報, 卽爲登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죽산 등 6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어제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양주·포천·연천 등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 자시·축시 이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묘시·진시에 개었는데 논밭은 두루 흠족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음죽의 경우 초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시까지 흠족하게 1서가 내려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윤기가 나고 푸르게 무성하고, 들판과 논은 두둑을 손질하고 모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보고가 온 여러 고을의 경우 아직 두루 흠족하다는 보고가 없는데 보고하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29. 1784년(정조 8) 윤3월 9일(양력 4월 28일)

畿營狀啓謄錄 4책(3441~344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40b~140c)

承政院開圻

楊州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南陽·陽城段, 初八日申酉時, 浥塵之後, 仍爲開霽. 水原段, 初八日辰時報雨之後, 雖未下雨, 雲陰尙濃是如爲白遣, 安城段, 初八日卯時開霽, 前後所得, 洽爲一鋤. 麻田·砥平段, 同日巳時開霽, 田畚舉皆周洽, 喬桐段, 以候風越海之地, 雨報尙未來到, 此則迫于登聞計料爲白乎旆, 漢南五·六邑, 雖未浹洽是白乎乃, 沾潤兩牟, 勃然青茂, 亦極幸甚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양주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남양·양성의 경우 초8일 신시·유시에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이내 개었고, 수원의 경우 초8일 진시에 비를 보고한 뒤 비록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아직 짙다고 합니다. 안성의 경우 초8일 묘시에 개었는데 앞뒤로 내린 것이 흡족하게 1서이고, 마전·지평의 경우 같은 날 사시에 개었는데 논밭은 대부분 두루 흡족하고, 교동의 경우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넘는 지역으로 비에 대한 보고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이는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한강 남쪽 5·6개 고을은 비록 두루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가을보리와 봄보리를 흡족하게 적셔 갑자기 푸르고 무성하게 하였으니 또한 그지없이 매우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0. 1784년(정조 8) 윤3월 10일(양력 4월 29일)

畿營狀啓謄錄 4책(3442~345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40c~140d)

承政院開坼

南陽等邑雨澤,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喬桐府使李文德所報, 則初六日辰時始雨, 只陰霏而終不霑下是如可, 自初七日丑時, 初八日未時至, 或注或灑. 兩日所得爲一犁, 而仍爲開霽是如爲白乎旆, 各邑農形段, 野邑秋牟間或胚胎, 春牟被雨茁茂, 付種注秧, 幾乎垂畢. 移秧畚鍤役, 方張爲之是白遣, 峽邑秋牟幾盡茁長, 春牟日漸向茂, 早稻早黍粟過半畔播是如爲白臥乎所, 列邑雨報, 今已畢到, 而漢之南北, 所得雖有多寡之不同是白乎乃, 一路均得沾潤, 兩牟胚胎茁茂, 次第成就是白遣, 峽野田畚, 注種耕播, 皆能及時. 荐飢民情, 賴以欣悅, 目下所見, 誠爲萬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남양 등 고을의 우택은 어제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교동 부사 이문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단지 음산하게 부슬부슬 내리기만 하고 끝내 주룩주룩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초7일 축시부터 초8일 미시까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렸는데, 이틀간 내린 것이 1려인데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각 고을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가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봄보리는 비를 맞아 싹이 무성하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못자리에 물을 대는 것은 거의 마쳤고, 모내기할 논의 가래질은 한창 하고 있으며, 산골짜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무성해지고, 올벼·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비 보고는 지금 이미 모두 도착했는데, 한강의 남쪽과 북쪽에 내린 것은 비록 양이 같지 않지만, 한결같이 고루 윤기 나게 적서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알을 배고 싹이 무성해지고 차례로 여물어갑니다. 산골짜기나 들판의 논밭은 물을 대어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는데 다 제대로 때를 맞춰 거듭된 굼주린 백성들의 심정은 덕분에 기뻐합니다. 눈앞의 보는 바로는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31. 1784년(정조 8) 윤3월 20일(양력 5월 9일)

畿營狀啓謄錄 4책(3562~357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46b~146b)

承政院開圻

道內雨澤農形, 前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列邑報牒, 則野邑秋牟已盡胚胎, 善爲發穗, 春牟苗長青潤, 日漸改觀, 付種注秧已爲立苗, 黍粟木花方張耕播, 中稻畚已爲播種, 移秧畚今方翻耕是白遣, 峽邑段, 秋牟幾皆胚胎, 春牟日漸苗長, 早稻·黍·粟·木花已多畊播, 中稻·黍·粟亦爲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者得雨之後, 日氣暄妍, 牟麥漸次成就, 注種亦皆了畢. 兩歲饑困之餘, 農務皆能及時, 目下民事, 誠爲萬幸是白乎矣, 漢南之水原·南陽·陽城·安城·振威·竹山等六邑, 初七日浥塵之雨, 僅爲沾潤, 而伊後更未得雨, 兩牟不無受病之慮, 望雨之民情方切, 是甚憂悶,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여러 고을의 보고문서를 접수해 보니, 들관 고을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을 났는데 이삭이 잘 패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서 푸르게 윤기가 나는데 날로 점점 모습이 바뀌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못자리에 물을 댄 것은 이미 싹이 트고, 기장·조·목화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중벼 논은 이미 볍씨를 뿌렸고, 모내기할 논은 지금 막 갈아엎었습니다. 산골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을 났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중벼·기장·조 또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내린 뒤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보리와 밀은 점차 여물고, 물을 대고 볍씨를 뿌리는 것 또한 다 마쳤습니다. 2년 동안 굶주림 끝에 농사일은 다 제대로 때를 맞춰 눈앞의 백성들 사정은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한강 남쪽의 수원·남양·양성·안성·진위·죽산 등 6개 고을은 초7일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려 겨우 적서 윤기가 나는데 그 뒤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병이 들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비를 바라는 백성들의 심정은 바야흐로 절실한데, 이는 매우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道內農形，俄已登聞爲白有在果，今日申時始雨，頗有霈然之意，漢水以北，則望雨雖不緊急，被澤已過旬餘，得此霑溉，亦已幸甚是白遣，至於漢水以南，久旱之餘，民情渴悶，若因此浹洽，則誠爲萬幸，今方撥馬探問於漢南諸邑是白遣，臣營下始雨形止，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농사 상황은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오늘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자못 세차게 내릴 조짐이 있었는데 한강 이북은 비를 바랐는데 비록 긴급하지는 않았지만, 비가 내린 지 이미 10여 일이 지나서 이렇게 적시고 물을 대니 또한 이미 매우 다행입니다. 한강 이남의 경우 오랜 가뭄 끝에 백성들의 심정은 애타고 걱정스러웠는데 이처럼 두루 흡족하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막 파발마로 한강 남쪽 여러 고을에 탐문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32. 1784년(정조 8) 윤3월 20일(양력 5월 9일)

畿營狀啓謄錄 4책(3572~357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46c~146d)

承政院開坼

臣營下始雨形止, 俄已馳啓爲白有在果, 自未時至申時, 或霏或止, 測雨器水深, 合爲一分是白遣, 雨意尙濃, 繼此霏然, 方〈切〉顯祝,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는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미시부터 신시까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총 1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올 조짐이 짙으니, 이에 이어서 세차게 내리기를 바야흐로 절실히 빕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臣營測雨器水深一分, 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衿川·果川兩邑所報, 則衿川段, 今日未時, 驟雨霎時注下, 所得爲浥塵. 果川段, 今日未時始雨, 申時至所得爲一鋤, 而尙未開霽, 沾潤兩牟是如, 報來爲白有等以, 隨其所到, 先此登聞爲白遣, 餘外各邑, 待其有報, 連此馳啓計料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푼인 것은 겨우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금천·과천 2개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금천의 경우 오늘 미시에 소나기가 순식간에 주룩주룩 내렸는데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과천의 경우 오늘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신시까지 내린 것은 1서였는데 아직 개이지 않았고 가을보리와 봄보리를 윤기 나게 적셨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이렇게 아웁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를 기다려 이에 연이어 긴급 아뢴 계획입니다.……

0033. 1784년(정조 8) 윤3월 20일(양력 5월 9일)

畿營狀啓謄錄 4책(3581~358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46d~146d)

承政院開坼

衿川·果川兩邑雨澤, 已爲登聞爲白有在果, 自戌時更爲始雨, 連爲霪下, 亥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臣營下所得, 先爲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금천·과천 2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술시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더니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내린 것을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0034. 1784년(정조 8) 윤3월 21일(양력 5월 10일)

畿營狀啓謄錄 4책(3642~365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0b~150c)

承政院開坼

昨日亥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之由, 前夜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水原段, 二十日未時始雨, 或霏或灑, 優爲潤土, 密雲四集, 一霏有望, 富平·陽川段, 同日戌時始雨, 目下所得, 俱爲浥塵, 高陽段, 同日亥時始雨, 今日子時至, 爲一鋤. 果川段, 二十日亥時, 更爲始雨, 今日子時至, 洽過一犁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昨日亥時, 今日寅時至, 水深又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先此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어제 해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였다는 연유는 지난밤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수원의 경우 20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렸는데 넉넉하게 흙을 적셨고 뽁뽁한 구름이 사방에 몰려 한차례 퍼부을 가망이 있고, 부평·양친의 경우 같은 날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눈앞에 내린 것은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고양의 경우 같은 날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자시에 이르렀는데 1서였고, 과천의 경우 20일 해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자시에 이르렀는데 흠족하게 1려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어제 해시부터 오늘 인시까지 수심은 또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먼저 이렇게 긴급 보고합니다.……

0035. 1784년(정조 8) 윤3월 21일(양력 5월 10일)

畿營狀啓謄錄 4책(3651~365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0c~151a)

承政院開坼

水原等五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廣州·仁川段, 未申時始雨, 亥時至得一鋤, 陽川·衿川段, 同日戌亥時, 更爲始雨, 今日子丑時至, 俱爲一犁, 而飛灑不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수원 등 5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인천의 경우 미시·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해시에 이르러 1서였고, 양천·금천의 경우 같은 날 술시·해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자시·축시에 이르러 모두 1려였는데, 날리며 뿌리면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廣州等四邑雨澤, 連續登聞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安山·龍仁段, 二十日酉戌時始雨, 亥子時至, 俱得一鋤, 交河·金浦段, 同日未時始雨, 申酉時至, 俱爲浥塵. 陽川段, 今日丑時一犁之後, 卯時至又得一鋤, 而雨意尙濃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 漢南遠邑, 姑未有報, 今方嚴飭, 使之飛報爲白遣,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광주 등 4개 고을의 우택은 연달아 아뢰었습니다. 이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안산·용인의 경우 20일 유시·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해시에 이르렀는데 모두 1서가 내렸고, 교하·김포의 경우 같은 날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신시·유시에 이르렀는데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양천의 경우 오늘 축시까지 1려가 내린 뒤 묘시에 이르렀는데 또 1서가 내렸는데, 비올 조짐이 아직 짙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한강 남쪽 먼 고을은

아직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막 엄하게 지시하여 신속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安山等五邑雨澤, 纔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富平段, 二十日戌時浥塵之後, 今日丑時至, 又得一鋤, 水原段, 同日戌時, 更爲始雨, 一場霏下, 亥時至洽滿一犁, 方有大霈之望, 長湍·通津段, 同日午未時, 始雨飛灑, 所得俱爲浥塵. 坡州段, 二十一日子時始雨, 寅時至亦得一鋤, 而尙有雨意, 衿川·果川段, 今日子時以後, 連爲霏下, 辰時至又得一犁, 未付乾畚, 舉皆生水, 洞野幾皆周洽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 水原沿海之面, 被旱最甚, 而已得一犁, 又有霈注之望, 誠爲幸甚,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안산 등 5개 고을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부평의 경우 20일 술시에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오늘 축시에 이르렀는데 또 1서가 내렸고, 수원의 경우 같은 날 술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주룩주룩 내리다가 해시에 이르렀는데 흠족하게 1려를 가득 채웠는데 바야흐로 크게 쏟아질 가망이 있고, 장단·통진의 경우 같은 날 오시·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날리며 뿌리더니 내린 것은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파주의 경우 21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인시까지 또한 1서가 내렸는데 아직 비올 조짐이 있고, 금천·과천의 경우 오늘 자시 이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진시까지 또 1려가 내렸는데, 뽕씨를 뿌리지 못한 마른 논은 대부분 물이 생겼고, 동네와 들판은 거의 다 두루 흠족하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수원의 바닷가 면은 가뭄을 가장 심하게 당했는데 이미 1려가 내렸고 또 쏟아붓거나 주룩주룩 내릴 조짐이 있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6. 1784년(정조 8) 윤3월 21일(양력 5월 10일)

畿營狀啓謄錄 4책(3661~367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1a~151b)

承政院開坼

節祗受有旨內, 昨今雨澤, 高低必當周洽, 目下所見, 詳細報來之意, 各別申飭, 待晴仍令各其守宰, 躬審田野, 細察雨後農形, 報來後狀聞事, 有旨教是白乎等以, 今方更爲嚴飭列邑, 雨澤農形, 毋敢晷刻遲滯, 星火飛報爲白乎旃, 卽接各邑所報, 則豐德·南陽·陽城段, 二十日午未時始雨, 所得爲浥塵, 竹山·利川段, 同日申時始雨霏微, 而連有雨意. 交河段, 酉時浥塵以後, 或灑或止, 今日卯時至, 又爲一鋤, 安山段, 亥時一鋤之後, 今日寅時至, 又得一犁, 金浦段, 昨日亥時, 更爲始雨霏灑, 今日辰時至, 亦得一犁, 洞野幾皆周洽, 廣州段, 昨日亥時一鋤之後, 達夜大霑, 田畝無不周洽是如報來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이번에 삼가 받은 임금님의 지시 내용에,

“어제오늘 우택으로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분명히 두루 흠족했을 것이니 상세히 보고 하라는 뜻으로 각별하게 단단히 지시하고 맑기를 기다려 이내 각 수령이 몸소 논밭과 들판을 살피되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피게 하고, 보고가 온 뒤 문서로 아뢰도록 하라.”

라는 임금님의 지시였습니다. 지금 막 여러 고을에 다시 지시하여 우택과 농사 상황을 감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부리나케 신속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풍덕·남양·양성의 경우 20일 오시·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죽산·이천의 경우 같은 날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렸는데 연이어 비올 조짐이 있고, 교하의 경우 유시까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더러 뿌리다가 더러 그치면서 오늘 묘시에 이르렀는데 또 1서였고, 안산의 경우 해시까지 1서가 내린 뒤 오늘 인시까지 또 1려가 내렸고, 김포의 경우 어제 해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오늘 진시까지 또한 1려가 내렸고, 광주의 경우 어제 해시까지 1서가 내린 뒤 밤새 크게 주룩주룩 내려 두루 흠족하지 않은

논밭이 없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豐德等九邑雨澤，已爲登聞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楊州段，今日子丑時始雨，一場霏下，卯時至洽滿一犁，南陽段，二十日未時溫塵之後，亥時更爲始雨，今日卯時至，連爲霏下，田畚舉皆周洽，驪州·振威·楊根段，二十日申酉時始雨，戌時至俱爲溫塵，利川段，同日申時溫塵以後，或霏或灑，戌時至洽得一犁，水原段，同日亥時得一犁以後，霏灑不止，今日卯時至，又得一犁，一境周洽，三農叶望是如報來爲白有等以，枚舉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풍덕 등 9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주의 경우 오늘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주룩주룩 내리면서 묘시에 이르렀는데 흠족하게 1려를 가득 채웠고, 남양의 경우 20일 미시까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해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묘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렸는데 논밭은 대부분 두루 흠족하고, 여주·진위·양근의 경우 20일 신시·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술시에 이르렀는데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이천의 경우 같은 날 신시까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술시에 이르렀는데 흠족하게 1려가 내렸고, 수원의 경우 같은 날 해시까지 1려가 내린 뒤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고 오늘 묘시까지 또 1려가 내렸는데 온 지역이 두루 흠족하니 3차례 농사일에 맞을 가망이 있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0037. 1784년(정조 8) 윤3월 21일(양력 5월 10일)

畿營狀啓謄錄 4책(3672~368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1c~151d)

承政院開坼

楊州等七邑雨澤, 俄已登聞爲白有在果, 麻田·抱川段, 二十日未時始雨, 酉時至俱得一鋤. 驪州·陽城段, 同日未時, 或灑或霏, 申酉時至, 又得一鋤. 安城·永平·漣川段, 亦於未申時始雨, 俱爲浥塵, 通津段, 今日丑時, 更爲始雨, 卯時至又爲一鋤, 富平段, 同日丑時以後, 辰時至連爲霏灑, 田畚舉皆周洽. 長湍段, 二十日午時浥塵之後, 自戌時更爲始雨, 今日卯時至大霏, 遠近各面, 亦皆周洽是如爲白有等以, 先此登聞爲白遣, 此外未到各邑段, 待其報來, 隨即馳啓計料云云.

승정원 열람

양주 등 7개 고을의 우택은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마전·포천의 경우 20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유시에 이르렀는데 모두 1서가 내렸고, 여주·양성의 경우 같은 날 미시에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신시·유시에 이르렀는데 또 1서가 내렸고, 안성·영평·연천의 경우 또한 미시·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통진의 경우 오늘 축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묘시까지 또 1서였고, 부평의 경우 오늘 축시 이후 진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려 논밭은 대부분 흡족하고, 장단의 경우 20일 오시까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술시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묘시까지 크게 주룩주룩 내렸는데 멀고 가까운 각 면 또한 다 두루 흡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먼저 아웁니다. 이 밖에 도착하지 않은 각 고을의 경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곧바로 긴급 아뢴 계획입니다.……

承政院開坼

麻田等十邑雨澤, 已爲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積城段, 二十日巳時, 始雨霏灑, 申時至得一鋤, 陽智·砥平·永宗段, 同日申酉時始雨, 所得俱爲浥塵. 龍仁段, 同日戌時一鋤之

後, 今日卯時至, 又得一犁, 永平段, 自二十日酉時, 霏灑不止, 亥時至又爲一鋤, 振威段, 同日戌時浥塵以後, 今日辰時, 又得一犁是如報來爲白有等以, 謹此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마전 등 10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적성의 경우, 20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1서가 내렸고, 양자·지평·영종의 경우 같은 날 신시·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린 것은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용인의 경우 같은 날 술시까지 1서가 내린 뒤 오늘 묘시까지 또 1려가 내렸고, 영평의 경우 20일 유시부터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으면서 해시에 이르렀는데 또 1서였고, 진위의 경우 같은 날 술시까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오늘 진시까지 또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삼가 이에 긴급 보고합니다.

0038. 1784년(정조 8) 윤3월 22일(양력 5월 11일)

畿營狀啓謄錄 4책(3681~369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1d~152b)

承政院開坼

積城等七邑雨澤, 昨已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仁川·永平段, 二十日亥時一鋤之後, 連爲霏灑, 昨日巳午時開霽, 而所得洽滿一犁. 豐德·通津·麻田段, 同日未時, 更爲始雨, 昨日巳時乃霽, 亦得一犁是如爲白臥乎所, 今番之雨, 多寡適中, 一路均得, 秋牟之發穗者, 春牟之茂茁者, 視諸雨前, 一倍生色. 高燥奉天之處, 亦能添水付種, 而秧苗之出水者, 黍粟之出土者, 亦皆被澤而向長是白乎所, 望雨則雨, 待霽則霽, 民欲天從雨賜適宜, 田野景光, 萬萬欣幸是白乎乃, 至若漢南諸邑段, 南陽·水原, 已報周洽, 而竹山·安城, 溫塵之後, 更無所報. 陽城之一鋤, 振威之一犁, 牟麥各穀, 舉皆蘇潤, 而稍闕之餘, 猶未浹洽是白如乎, 其他始雨報來者及形止未到處, 竝爲嚴飭, 使之飛報是白遣, 農形段置, 亦令躬審報來, 待其有報,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적성 등 7개 고을의 우택은 어제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인천·영평의 경우 20일 해시까지 1서가 내린 뒤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가 어제 사시·오시에 개었는데 내린 것은 흡족하게 1려를 가득 채웠고, 풍덕·통진·마전의 경우 같은 날 미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어제 사시에 이내 개었는데 또한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의 비는 양이 딱 알맞게 한결같이 고루 내려 이삭이 팬 가을보리와 싹이 무성한 봄보리는 보기에 이전보다 곱절로 색깔이 나고 높고 메마르거나 하늘만 바라보는 곳 또한 물을 더하여 제대로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물 밖으로 나온 모와 땅 밖으로 나온 기장·조도 또한 다 우택을 입어 자라갑니다. 비오기를 바라면 비가 오고 개이기를 기다리면 개었는데, 백성들이 바라면 하늘은 따라서 비를 적절하게 내리니, 논밭과 들판의 모습은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는 거의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 남쪽 여러 고을의 경우, 남양·수원은 이미 두루 흡족하다고 보고했고, 죽산·안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다시는 보고가 없고, 양성은 1서가 내렸고 진위는 1려가

내려 보리와 밀 각종 곡식은 대부분 되살아나 윤기가 나는데, 비가 좀 오지 않았던 끝인데 여전히 두루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가 온 것 및 경위가 도착하지 않은 곳은 모두 엄하게 지시하여 신속히 보고하게 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도 또한 몸소 살펴서 보고하게 하였으니, 보고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仁川等五邑雨澤，俄已登聞爲白有在果，朔寧·陰竹段，二十日戌亥時始雨，昨日卯時至，俱得一鋤，抱川·利川段，自同日戌亥時，更爲霑灑，昨日寅時至，田畚舉皆周洽，喬桐段，同日未時始雨二十一日辰時至，高低亦皆周洽，陽智段，二十日申時溫塵以後，昨日卯時至，洽爲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竹山·安城·楊根·漣川·砥平·加平·永宗等邑鎮外，舉皆浹洽是白乎等以，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인천 등 5개 고을의 우택은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삭녕·음죽의 경우 20일 술시·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어제 묘시에 이르렀는데 모두 1서가 내렸고, 포천·이천의 경우 같은 날 술시·해시부터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면서 어제 인시에 이르렀는데, 논밭은 대부분 두루 흡족하고, 교동의 경우 같은 날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높거나 낮은 곳 또한 다 두루 흡족하고, 양지의 경우 20일 신시까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어제 묘시에 이르렀는데 흡족하게 1려라고 합니다. 죽산·안성·양근·연천·지평·가평·영종 등 고을과 군영 외에는 대부분 두루 흡족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39. 1784년(정조 8) 윤3월 22일(양력 5월 11일)

畿營狀啓謄錄 4책(3692~370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2b~152c)

承政院開坼

朔寧等六邑雨澤, 朝已登聞爲白有在果, 砥平段, 自二十日申時沍塵以後, 二十一日卯時至, 連爲霏下, 田畚舉皆周洽, 楊根·漣川段, 同日卯時所得, 又爲一犁, 永宗段, 同日未時所得, 又爲一鋤. 竹山·安城段, 同日卯時至, 一向霏微, 前後所得, 止於沍塵是如爲白遣, 加平段, 姑無所報, 待其來到, 迫于狀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삭녕 등 6개 고을의 우택은 아치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지평의 경우 20일 신시부터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뒤 21일 묘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렸는데, 논밭은 대부분 두루 흠족했고, 양근·연천의 경우 같은 날 묘시까지 내린 것은 또 1려이고, 영종의 경우 같은 날 미시까지 내린 것이 또 1서였고, 죽산·안성의 경우 같은 날 묘시까지 줄곧 부슬부슬 내렸는데 앞뒤로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가평의 경우 아직 보고가 없는데 도착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砥平等六邑雨澤, 俄已登聞爲白有在果, 加平段, 二十日酉時始雨霏灑, 二十一日卯時至, 所得洽滿一犁. 積城段, 同日巳時一鋤以後, 昨日申酉時至, 所得又爲一犁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 列邑雨報, 今已齊到, 或爲周洽, 或得鋤犁, 均霑一路, 大慰三農是白乎矣, 安城·竹山終未浹洽, 誠爲憂悶是白乎旆, 雨後農形段, 待各邑守宰之躬審齊報, 鱗次狀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지평 등 6개 고을의 우택은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가평의 경우 20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면서 2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흡족하게 1려를 가득 채웠고, 적성의 경우 같은 날 사시까지 1서가 내린 뒤 어제 신시·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1려였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 보고는 지금 이미 일제히 도착했는데, 더러는 두루 흡족하였고 더러는 1서·1려가 내렸으나 고루 적시기는 한결같이 3차례 농사일을 크게 위로합니다. 안성·죽산은 끝내 두루 흡족하지 못하여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비온 뒤 농사 상황의 경우 각 고을 수령들이 몸소 살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0. 1784년(정조 8) 윤3월 23일(양력 5월 12일)

畿營狀啓謄錄 4책(3702~371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2c~152d)

承政院開圻

臣謹奉聖旨, 雨後農形, 守令躬審田野, 詳細馳報之意, 行移分付於列邑矣. 邑牒今纔齊到, 而野邑段, 秋牟已盡發穗, 春牟間多胚胎, 付種注秧, 已盡立苗, 中稻·黍·粟·木花幾皆出土, 移秧畚過半翻耕, 乾播畚次第耕種. 峽邑段, 秋牟已盡胚胎間始發穗, 春牟茁長青潤, 早稻·黍·粟·木花今方立苗, 中晚稻·黍·粟已多耕播, 而好雨如期霑下, 兩牟逐日改觀, 各穀次第向長, 顧瞻四野, 不勝欣幸是如報來爲白遣, 安城·竹山等邑, 際此均霑之時, 獨阻霈洽之澤, 農形姑不至大段被損是白乎乃, 民情方切憂悶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제가 삼가 임금님의 지시를 받들어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을 수령들이 몸소 논밭과 들판을 살피고 상세히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문서를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고을의 문서가 지금 막 일제히 도착했는데, 들판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쫓고, 봄보리는 그사이에 이삭을 뻗은 것이 많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물을 댄 못자리는 이미 다 싹이 텄고, 중벼·기장·조·목화는 거의 다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모내기할 논은 절반 이상 갈아엎었고, 마른논에 벼씨를 뿌리는 것은 차례로 땅을 갈아 벼씨를 뿌리고, 산골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을 뻗었는데 그사이에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 푸르게 윤기가 나고, 올벼·올기장·올조·목화는 지금 막 싹이 트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 것이 많은데, 좋은 비가 시기에 맞춰 주룩주룩 내려 가을보리와 봄보리 날마다 모습이 바뀌고, 각종 곡식은 차례로 싹이 자라니, 사방 들판을 돌아보면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안성·죽산 등 고을은 이즈음 고루 적실 시기에 유독 흡족하게 쏟아지는 우택이 없는데, 농사 상황은 아직 피해가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심정은 바야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1. 1784년(정조 8) 윤3월 24일(양력 5월 13일)

畿營狀啓謄錄 4책(3712~371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3a~153b)

承政院開坼

臣營測雨器水深五分, 朝已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水原段, 自二十四日戌時, 今日寅時至, 連爲霪下, 一境周洽, 果川·衿川段, 自同日亥時, 今日丑時至, 俱得一犁, 楊州·坡州·安山·陽川·抱川段, 自同日申酉時, 今日丑寅時至, 亦得一鋤. 富平·仁川·通津·高陽·交河·陽智段, 自同日未申時, 今日寅卯時至, 所得爲浥塵是如爲白有等以, 先此馳啓爲白遣, 此外各邑段, 待其有報, 追于狀聞計料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푼인 것은 아침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수원의 경우 24일 술시부터 오늘 인시까지 연이어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온 지역이 두루 흠족했고, 과천·금천의 경우 같은 날 해시부터 오늘 축시까지 모두 1려가 내렸고, 양주·파주·안산·양천·포천의 경우 같은 날 신시·유시부터 오늘 축시·인시까지 또한 1서가 내렸고, 부평·인천·통진·고양·교하·양지의 경우 같은 날 미시·신시부터 오늘 인시·묘시까지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이밖에 각 고을의 경우 보고를 기다려 나중에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0042. 1784년(정조 8) 윤3월 25일(양력 5월 14일)

畿營狀啓謄錄 4책(3711~371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2d~153a)

承政院開坼

臣營下自昨日申時以後, 今日寅時至下雨,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乎所, 前日雨澤周洽處, 姑無緊急之事是白乎矣, 如安城·竹山之數次浥塵, 振威·陽城之未及生水處, 牟麥雖得解渴, 注種慮在愆期, 民情方切悶是白乎等以, 今方走馬探問於安城等邑, 待其報來, 卽爲登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어제 신시 이후로 오늘 인시까지 내린 비는 측우기 수심이 5푼이었습니다. 전날 우택으로 두루 흠족했던 곳은 아직 긴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죽산은 몇 차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진위·양성은 물이 생기기에 미치지 못한 곳은 보리와 밀이 비록 해갈은 하였지만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린 곳은 시기를 놓칠 염려가 있고 백성들의 심정은 바야흐로 매우 걱정입니다. 지금 막 말을 달려 안성 등 고을에 탐문하게 하였으니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43. 1784년(정조 8) 윤3월 26일(양력 5월 15일)

畿營狀啓謄錄 4책(3712~372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3b~153c)

承政院開圻

水原等十四邑雨澤, 昨已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廣州·龍仁段, 二十五日子丑時始雨, 寅卯時至, 連爲霏下, 田畝舉皆周洽, 呂州·楊根·利川·砥平·振威·安城·竹山·陽城段, 二十四日戌亥時始雨, 寅卯時至, 所得洽滿一犁. 南陽·長湍·金浦·加平·麻田·永平·漣川·陰竹段, 亦於同日酉戌時始雨, 所得爲浥塵, 積城段, 同日申時始雨, 昨日寅時至得一鋤, 楊州·抱川·陽智段, 昨日寅卯時至, 又得一犁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 日前得雨之後, 已洽處更潤兩牟, 不足者添水付種, 而安城·竹山之一犁, 比他尤爲幸甚是白乎等以, 雨後農形, 卽爲親審詳報之意, 嚴飭分付,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수원 등 14개 고을의 우택은 어제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용인의 경우 25일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인시·묘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논밭은 대부분 두루 흠족하였고, 여주·양근·이천·지평·진위·안성·죽산·양성의 경우 24일 술시·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인시·묘시까지 내린 것은 흠족하게 1려를 가득 채웠고, 남양·장단·김포·가평·마전·영평·연천·음죽의 경우 또한 같은 날 유시·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적성의 경우 같은 날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어제 인시까지 1서가 내렸고, 양주·포천·양지의 경우 어제 인시·묘시까지 또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내린 뒤 이미 흠족한 곳은 다시 가을보리와 봄보리를 윤기 나게 하고, 부족했던 경우 물을 더하여 씨앗을 뿌리게 하였는데, 안성·죽산의 1려는 다른 곳에 비하여 더구나 매우 다행입니다.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을 즉시 직접 살피고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엄한 지시로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4. 1784년(정조 8) 윤3월 27일(양력 5월 16일)

畿營狀啓謄錄 4책(3722~373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4책(153c~153d)

承政院開坼

道內雨澤, 已爲登聞爲白有在果, 豐德·朔寧段置, 今<月>二十五日子丑時始雨, 同日巳時至, 所得亦爲浥塵是如爲白遣, 各邑農形野邑段, 秋牟已盡發穗, 春牟亦皆胚胎, 或有發穗, 付種注秧, 盡爲立苗而向長, 中稻·黍·粟·木花方張出土, 乾播畝已盡耕播. 峽邑段, 秋牟已多發穗, 春牟幾皆胚胎, 早稻·黍·粟·木花善爲立苗, 中晚稻·黍·粟幾盡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日之如期得霈, 已極幸甚. 今番之又被甘澍, 尤叶民望, 牟麥過半成就, 民有不食之飽, 秧苗日漸抽長, 庶占大有之望是白遣, 安城·竹山之閏月被旱者, 兩牟舉皆回蘇, 振威·陽城之未及付種者, 今方次第耕播, 目下民情, 萬萬欣幸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우택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풍덕·삭녕의 경우도 이번 달 25일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사시까지 내린 것 또한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들관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켜고, 봄보리 또한 다 이삭을 맺는데 더러 이삭이 켜 것이 있고, 벼씨를 뿌리고 못자리에 물을 댄 것은 다 싹이 터서 자라가고, 중벼·기장·조·목화는 한창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있고, 마른논에 벼씨를 뿌리는 것은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산골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많이 이삭이 켜고, 봄보리 거의 다 알을 맺고, 올벼·올기장·올조·목화는 싹이 잘 트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시기에 맞춰 비가 쏟아져 이미 그지없이 매우 다행인데 이번에 또 단비가 내려 백성들의 바람에 더욱 맞아서 보리는 절반 이상이 여물었으니 백성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모는 날로 점점 쑥쑥 자라고 거의 큰 가마이 있다고 점칩니다. 안성·죽산은 한 달 동안 가뭄을 당했던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대부분 되살아 났고, 진위·양성은 씨앗을 뿌리지 못했던 것은 지금 막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니, 눈앞의 백성들 심정은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5. 1784년(정조 8) 4월 7일(양력 5월 25일)

畿營狀啓謄錄 5책(4272~427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78a~178b)

承政院開圻

雨後農形, 前月已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列邑所報, 則近日農形, 野邑段, 秋牟間多入實, 春牟方張發穗, 早付種早注秧, 間或初除草, 中稻·黍·粟·木花及豆太, 舉皆向青, 野畚乾播及晚稻, 耕播已畢. 峽邑段, 秋牟已盡發穗, 春牟方始發穗, 早稻·黍·粟·木花及豆太, 盡爲向長, 中晚稻·黍·粟, 已爲出土是如, 報來爲白有臥乎所, 伊來日氣, 朝涼晝曝, 兩牟食實不遠, 各穀立苗俱善, 諸般農形, 優占豐兆, 大饑民情, 舉皆慰滿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비온 뒤 농사 상황은 지난달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여러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요즈음 농사 상황은 들판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그사이에 많이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일찍 씨앗을 뿌리고 일찍 물을 댄 모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들판의 마른논에 씨앗을 뿌리는 것 및 늦벼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산골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목화 및 콩·팥은 다 자라가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니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열매 먹을 날이 머지않았고, 각종 곡식은 모두 싹이 잘 트니, 여러 가지 농사 상황은 넉넉하게 풍년을 점치고, 크게 굶주린 백성들의 심정을 대부분 흡족하게 위로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46. 1784년(정조 8) 4월 11일(양력 5월 29일)

畿營狀啓謄錄 5책(～)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1d～181d)

承政院開坼

今日午時量驟雨乍過旋止，臣營測雨器水深爲一分是白乎旆，際此得見水原·利川·果川·振威四邑所報，則水原段，今月初十日申時以後得一鋤，利川·果川·振威段，移時霏微，溫塵而止。楊根段，始雨報來爲白有臥乎所，當此兩牟成實之時，能得沾根，爲益不少，亦爲幸甚是白遣，驟過之雨，難望均霑是白乎乃，列邑形止，更待有報，續卽上聞計料，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오늘 오시쯤 소나기가 잠깐 지나가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우택이 1푼이 있습니다. 이즈음 수원·이천·과천·진위 4개 고을의 보고를 보았더니, 수원의 경우 이번 달 초10일 신시 이후 1서가 내렸고, 이천·과천·진위의 경우 얼마 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니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양근의 경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보리와 봄보리 열매가 영그는 시기에 제대로 뿌리를 적셨으니 적지 않게 이익이 되고 또한 매우 다행이지만, 갑자기 지나가는 비가 고루 적시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이어서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7. 1784년(정조 8) 4월 12일(양력 5월 30일)

畿營狀啓謄錄 5책(4342~435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2a~182b)

承政院開圻

水原等五邑今月初十日雨澤及臣營下十一日驟雨形止, 已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呂州·楊根·砥平·南陽·龍仁·陽智等邑段, 初十日之雨, 俱爲沍塵, 陽城段, 乍霏旋霽, 別無所得之可言. 通津段, 十一日驟雨, 亦爲沍塵是如爲白遣, 近日農形野邑段, 秋牟日漸向熟, 春牟幾盡發穗, 早稻·黍·粟, 間多初除草, 中稻·黍·粟·木花及豆太, 今方向長, 晚稻間或立苗, 早注秧方始移插. 峽邑段, 秋牟間入實, 春牟方張發穗, 早稻·黍·粟, 間或初除草, 中稻·黍·粟·木花及豆太, 次第向長, 晚稻或爲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兩日微雨雖未均霑, 當此兩牟向熟之時, 不無沾根之效是白遣, 前月之得霑周洽處, 毋論洞淤, 舉皆貯水, 除草移秧, 皆能以時. 春秋牟麥, 日漸成就是白乎矣, 至於竹山·安城·振威·陽城等四邑段, 前月雨澤, 既不浹洽, 伊來日候, 又復嘆乾, 晚稻尙多未付之處, 牟麥間有枯白之慮, 民情憂悶,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수원 등 5개 고을의 이번 달 초10일 우택 및 저의 감영에 11일 소나기의 경위는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여주·양근·지평·남양·용인·양지 등 고을의 경우 초10일의 비로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양성의 경우 잠깐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바로 개어서 말할 만큼 내린 것이 별로 없고, 통진의 경우 11일 소나기 또한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즈음 농사 상황은 들판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는 그사이에 많이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지금 바야흐로 자라가고, 늦벼는 간혹 싹이 트고, 일찍 물을 댄 모는 막 옮겨 심기 시작했고, 산골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간이 알이 들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맺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차례로 자라가고, 늦벼는 더러 싹이 튼다고 합니다. 이틀간의 보슬비로 비록 고루 적시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익어가는 시기에 뿌리를 적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쏟아진 비로 두루 흡족한 곳은 동네나 보를 따질 것 없이 대부분 물을 저장했고, 김매기와 모내기가 다 제대로 시기를 맞춰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날로 점점 여물어갑니다. 죽산·안성·진위·양성 등 4개 고을의 경우, 지난달 우택으로 이미 두루 흡족하지 않았는데 요사이 날씨가 또다시 바짝 가물어 늦벼는 아직 씨앗을 뿌리지 못한 곳이 많고, 보리는 그사이에 하얗게 마를 염려가 있어 백성들의 심정은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8. 1784년(정조 8) 4월 20일(양력 6월 7일)

畿營狀啓謄錄 5책(4351~435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2b~182b)

承政院開圻

道內雨澤稍闕, 民情渴望之由, 日前已爲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今月十九日辰巳時微雨霏灑, 南陽·水原·陽智等邑段, 所得優爲浥塵. 果川·龍仁·陽川·安山·富平·驪州·利川等邑段, 僅爲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今此微雨, 雖未均霑是白乎乃, 牟麥賴以霑根, 各穀亦將蘇潤, 此亦幸甚, 而密雲釀雨, 一霑有望, 方切顙企,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우택이 조금 없어 백성들 심정이 애타게 바라는 연유는 며칠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진시·사시에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는데, 남양·수원·양지 등 고을의 경우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과천·용인·양천·안산·부평·여주·이천 등 고을의 경우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슬비가 비록 고루 적시지는 못했지만 보리는 덕분에 뿌리를 적셨고, 각종 곡식 또한 장차 윤기가 되살아날 것이니, 이 또한 매우 다행입니다. 뽁뽁한 구름이 비를 빚어 한차례 퍼부을 가망이 있으니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9. 1784년(정조 8) 4월 20일(양력 6월 7일)

畿營狀啓謄錄 5책(4352~435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2c~182c)

承政院開坼

道內十邑雨澤浥塵緣由, 俄已登聞爲白有在果, 臣營下今日午時始雨注下, 測雨器水深爲三分, 而霏灑不止, 霏然有望, 誠爲幸甚是白遣, 各邑形止, 今方撥馬關問, 待其有報, 卽當上聞,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10개 고을의 우택이 먼지만 적실 정도인 연유는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저의 감영에 오늘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렸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으니, 세차게 내릴 가망이 있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지금 막 파발마로 공문을 보내 물었으니 보고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즉시 아뢰겠습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50. 1784년(정조 8) 4월 20일(양력 6월 7일)

畿營狀啓謄錄 5책(4361~436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2c~182d)

承政院開圻

臣營測雨器水深三分, 俄已登聞爲白有在果, 卽接所報, 則安山段, 今日午時始雨, 一場驟霪, 所得爲一鋤, 富平段, 未時始雨, 不移時所得, 亦爲一鋤. 高陽·衿川·陽川·金浦等邑段, 未時始雨, 雨勢漸緊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午時以後, 水深又爲七分, 而連爲霪下, 霈洽有望, 渴悶之餘, 忭幸萬萬是白乎旆, 列邑得雨多寡, 雨後農形, 斯速狀聞, 旣奉聖教, 方又關飭列邑, 使之星火飛報, 而近邑形止, 先爲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푼인 것은 아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안산의 경우, 오늘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내린 것은 1서였고, 부평의 경우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내린 것은 또한 1서였고, 고양·금천·양천·김포 등 고을의 경우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비의 형세가 점점 거세진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오시 이후로 수심이 또 7푼이었습니다.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니 흡족하게 쏟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애타게 걱정하던 끝이라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과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은 어서 빨리 문서로 아뢰라고 이미 임금님의 지시를 받들었으니 막 또 공문으로 여러 고을에 지시하여 부리나케 빨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가까운 고을의 경위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51. 1784년(정조 8) 4월 20일(양력 6월 7일)

畿營狀啓謄錄 5책(4362~436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2d~182d)

承政院開坼

安山等邑雨澤, 纔已登聞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廣州·楊州·果川段, 今日未時始雨, 申時至所得爲一鋤, 高陽·陽川·衿川段, 申時至所得, 亦爲一鋤, 仁川段, 午時始雨霏灑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酉時至亥時, 水深又爲一寸八分, 前後通計爲二寸八分. 今以已報形止觀之, 四方近邑, 俱得一鋤, 而伊後雨勢, 一向霏霏, 一路均洽, 可以推知, 言念民事, 不勝忭幸是白乎旅, 餘外諸邑, 待其有報, 達續上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안산 등 7개 고을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양주·과천의 경우 오늘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신시까지 내린 것이 1서이고, 고양·양천·금천의 경우 신시까지 내린 것 또한 1서이고, 인천의 경우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린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유시부터 해시까지 수심이 또 1치 8푼이었는데, 앞뒤로 통틀어 계산하면 2치 8푼입니다. 지금 이미 보고한 경위로 보자면 사방의 가까운 고을은 모두 1서가 내렸는데, 이후 비의 형세가 줄곧 쏟아붓거나 주룩주룩 내리니, 한결같이 고루 흡족할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하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2. 1784년(정조 8) 4월 21일(양력 6월 8일)

畿營狀啓謄錄 5책(4371~437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3a~183b)

承政院開圻

廣州等邑雨澤, 去夜已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果川段自二十日酉時, 二十一日子時至, 連爲霪下, 高低周洽. 高陽段, 同日丑時至, 所得恰爲一犁, 陽川·衿川段, 昨日戌亥時至, 所得俱爲一犁. 金浦段, 申時至所得, 恰爲一鋤, 安山段, 酉時至所得, 合爲一犁, 交河段, 同日申時始雨, 酉時至所得爲一犁, 坡州·通津·龍仁段, 未申時始雨, 不移時所得, 俱爲一鋤. 旱損之牟麥, 頓然蘇醒, 乾涸之畚庫, 幾皆生水, 而百苗勃興, 羣情胥悅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昨日亥時, 至今日子時, 水深又爲八分是白乎所, 列邑得雨之報, 次第來到, 而或爲周洽, 或爲犁鋤, 各穀舉皆膏潤, 移秧亦將及時. 言念民事, 誠萬萬忭幸, 餘外諸邑, 隨其所報, 鱗次上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광주 등 고을의 우택은 지난밤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 접수해 보니, 과천의 경우 20일 유시부터 21일 자시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렸는데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두루 흠족하였고, 고양의 경우 같은 날 축시까지 내린 것이 거의 1려였고, 양천·금천의 경우 어제 술시·해시까지 내린 것이 모두 1려였고, 김포의 경우 신시까지 내린 것이 거의 1서였고, 안산의 경우 유시까지 내린 것이 총 1려였고, 교하의 경우 같은 날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유시까지 내린 것이 1려였고, 파주·통진·용인의 경우 미시·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내린 것이 모두 1서였는데, 가뭄으로 손상된 보리가 갑자기 되살아나고, 바짝 마른 논은 거의 다 물이 생기니, 갖가지 싹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백성들의 심정은 모두 기쁘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어제 해시부터 오늘 자시까지 수심은 또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보고가 차례로 도착하는데, 더러는 두루 흠족했고, 더러는 1려·1서가 되어 각종 곡식이 대부분 반짝반짝 윤이 나고, 모내기 또한 장차 시기를 맞출 것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하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3. 1784년(정조 8) 4월 21일(양력 6월 8일)

畿營狀啓謄錄 5책(4442~445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6d~187a)

承政院〈開坼〉

果川等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廣州·楊州·高陽·交河·坡州·長湍·陽川·金浦·衿川·富平·龍仁·水原·南陽·振威·陽智·利川·抱川·積城等十八邑, 二十一日寅卯時, 霏然霍下, 高低周洽. 通津·仁川等邑段, 同日子丑時至, 所得爲一犁, 驪州·豐德等邑段, 同日午未時始雨, 申酉時至, 所得爲一犁, 陽城·永宗等邑鎮段, 同日午未時始雨, 不移時所得, 已爲一鋤. 竹山·安城·陰竹·砥平·楊根·加平·永平·麻田·連川等邑段, 同日未申時始雨霍灑, 將有霏洽之望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今日卯時至酉時, 水深又爲七分, 前後通計, 合爲四寸三分是白乎所, 喬桐·朔寧, 姑未有報, 列邑所得, 幾皆周洽, 被損之牟麥, 舉皆蘇醒, 無慮食實, 峽野早秧, 方張移插, 目下民事萬萬幸甚. 各邑農形, 姑待齊報, 劃卽狀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

승정원 열람

과천 등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광주·양주·고양·교하·과주·장단·양천·김포·금천·부평·용인·수원·남양·진위·양지·이천·포천·적성 등 18개 고을의 경우 21일 인시·묘시에 세차게 내리며 주룩주룩 내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 두루 흠족했고, 통진·인천 등 고을의 경우 같은 날 자시·축시까지 내린 것이 1려였고, 여주·풍덕 등 고을의 경우, 같은 날 오시·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신시·유시까지 내린 것이 1려였고, 양성·영종 등 고을의 경우 같은 날 오시·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내린 것이 이미 1서였고, 죽산·안성·음죽·지평·양근·가평·영평·마전·연천 등 고을의 경우 같은 날 미시·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렸는데, 장차 흠족하게 쏟아질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오늘 묘시부터 유시까지 수심은 또 7푼이었습니다. 앞뒤로 통틀어 계산하면 총 4치 3푼입니다. 교동·삭녕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으나,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거의 다 두루 흠족했고, 손상된 보리는 대부분 되살아나 열매를 먹을 것은 염려 없고, 산골짜기나 들판의

올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으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일단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즉시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4. 1784년(정조 8) 4월 22일(양력 6월 9일)

畿營狀啓謄錄 5책(4452~446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7a~187b)

廣州等邑雨澤形止, 去夜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仁川·麻田·永平·陽城·永宗等邑鎮段, 二十一日辰巳時至, 連爲霍灑, 高低周洽. 陰竹段, 二十日戌時至, 所得爲一鋤, 安城段, 二十一日子時至, 所得亦爲一鋤, 楊根段, 同日丑時至, 所得爲二犁, 竹山段, 同日寅時至, 所得洽爲一犁, 朔寧段, 二十日酉時始雨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今日卯時至巳時, 水深又爲五分是白乎所, 今以列邑所報, 參互觀之, 雨澤之一路均洽, 可以推知. 牟麥無慮回蘇, 各穀勃然改觀, 慰滿三農, 可占有秋, 誠萬萬喜幸. 雨後農形, 待其齊報, 追于狀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광주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지난밤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인천·마전·영평·양성·영종 등 고을과 군영의 경우 21일 진시·사시까지 연이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두루 흡족했고, 음죽의 경우 20일 술시까지 내린 것이 1서였고, 안성의 경우 21일 자시까지 내린 것이 또한 1서였고, 양근의 경우 같은 날 축시까지 내린 것이 2려였고, 죽산의 경우 같은 날 인시까지 내린 것이 흡족하게 1려였고, 삭녕의 경우 20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9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사시까지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참조해 보면 우택은 한결같이 고루 흡족함을 미루어 알 수 있고, 보리는 염려할 것 없이 되살아나고 각종 곡식은 갑자기 모습이 바뀌어, 3차례 농사일을 위로하고 가을의 수확을 점칠 수 있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5. 1784년(정조 8) 4월 22일(양력 6월 9일)

畿營狀啓謄錄 5책(4461~447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5책(187b~187c)

承政院開坼

仁川等邑雨澤形止, 昨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楊州·高陽·交河·坡州·長湍·豐德·仁川·富平·衿川·安山·陽川·金浦·通津·果川·龍仁·陽智·竹山·陰竹·廣州·利川·呂州·砥平·楊根·抱川·永平·南陽·水原·振威·陽城·積城·麻田·漣川等邑段, 今月二十二日寅卯時, 或巳午時開霽, 而川渠漲流, 高低周洽. 喬桐·朔寧·加平·永宗等邑鎮段, 二十一日寅卯時至, 所得亦爲周洽, 安城段, 二十一日鋤雨後形止, 姑未及來到是白遣, 農形段, 野邑秋牟, 間多刈取, 春牟今方向熟, 早稻·黍·粟, 幾盡初除草, 中稻·黍·粟·木花及豆太, 方始初除草, 晚稻向青, 早注秧方張移插, 峽邑秋牟, 亦或刈取, 春牟發穗向實, 早稻·黍·粟, 方張初除草, 中稻·黍·粟·木花及豆太, 舉皆向長, 晚稻立苗, 早注秧今方移插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雨澤均洽卽霽, 多少適中, 兩麥回蘇, 依舊成實. 各穀勃興, 日漸改觀, 而除草移秧, 皆能及時, 滿野歡悅之色, 邑邑皆然, 望望渴急之際, 誠不勝喜幸之至是白乎等以, 枚舉邑牒, 敢此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인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어제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주·고양·교하·파주·장단·풍덕·인천·부평·금천·안산·양천·김포·통진·과천·용인·양지·죽산·음죽·광주·이천·여주·지평·양근·포천·영평·남양·수원·진위·양성·적성·마전·연천 등 고을의 경우 이번 달 22일 인사·묘시에, 더러는 사시·오시에 개었는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두루 흡족했고, 교동·삭녕·가평·영종 등 고을과 군영의 경우 21일 인사·묘시까지 내린 것이 또한 두루 흡족했고, 안성의 경우 21일에 1서의 비가 온 뒤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가을보리는 그사이에 많이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지금 막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푸르러지고, 일찍 물을 댄 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고, 산골 고을의 가을보리 또한 더러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이삭이 패서 여물어가

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대부분 자라나고, 늦벼는 싹이 트고, 일찍 물을 댄 모는 지금 막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이번 우택이 고루 흡족하고 곧 개어 다소 알맞고,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되살아나 이전처럼 열매가 영글고, 각종 곡식은 왕성하게 일어나서 날로 점점 모습이 바뀌며, 김매기와 모내기는 다 시기에 맞출 수 있으니, 들에 가득 차게 기쁜 모습은 고을마다 다 그렇고, 비를 바라는 마음이 애타게 다급할 즈음이니 정말로 지극히 기쁘고 다행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을의 문서 보고를 하나하나 들어서 감히 이렇게 긴급 보고합니다.……

0056. 1784년(정조 8) 5월 1일(양력 6월 18일)

畿營狀啓謄錄 6책(4742~4742)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6책(198a~198a)

承政院開坼

衿川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楊州·南陽·安山·金浦段, 今日寅卯時始雨, 或灑或霏, 巳午時至, 所得爲一鋤. 廣州·坡州·長湍·通津段, 卯辰時始雨, 已爲浥塵, 而連爲霏灑. 富平·果川段, 巳午時止歇, 而所得爲一犁, 高陽·交河段, (段)午未時開霽, 而所得爲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報, 次第來到, 而或犁或鋤, 所得適中, 民事, 誠甚喜幸. 外此諸邑, 待其有報, 隨即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금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주·남양·안산·김포의 경우, 오늘 인사·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떠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렸는데 사시·오시까지 내린 것이 1서였고, 광주·과주·장단·통진의 경우, 묘시·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미 먼지만 적실 정도였는데, 연이어 부슬 부슬 내리거나 뿌리고, 부평·과천의 경우, 사시·오시에 그쳤는데, 내린 것은 1려였고, 고양·교하의 경우, 오시·미시에 개였는데, 내린 것은 1서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비 보고가 차례로 도착하는데, 더러는 1려, 더러는 1서로 내린 것이 알맞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하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7. 1784년(정조 8) 5월 2일(양력 6월 19일)

畿營狀啓謄錄 6책(198b~198b)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6책(4751~4751)

承政院開圻

楊州等邑雨澤,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龍仁·振威段, 今月初一日卯時始雨, 巳午時至, 得一犁. 抱川·陽智·利川段, 自同日卯辰時, 巳時至, 所得爲一鋤, 陽城·竹山·漣川·麻田·永平段, 同日辰巳時, 所得爲浥塵, 而連爲霏灑. 水原·仁川段, 同日午未時止歇, 而得一犁, 坡州·通津段, 同日未申時開霽, 而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今以列邑所報觀之, 十日之內, 連得甘澍, 移秧方張, 各穀改觀, 目下民事, 萬萬多幸. 未到各邑, 待其齊報, 追于狀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양주 등 고을의 우택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용인·진위의 경우, 이번 달 초1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사시·오시까지 1려가 내렸고, 포천·양자·이천의 경우, 같은 날 묘시·진시부터 사시까지 내린 것이 1서였고, 양성·죽산·연천·마전·영평의 경우, 같은 날 진시·사시에 내린 것이 먼지만 적실 정도였는데,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고, 수원·인천의 경우, 같은 날 오시·미시에 그쳤는데 1려가 내렸고, 파주·통진의 경우, 같은 날 미시·신시에 개었는데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고을의 보고로 보자면, 10일 동안 연이어 단비가 내려 모내기가 한창이고 각종 곡식은 모습이 바뀌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보고가 도착하지 않은 각 고을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문서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8. 1784년(정조 8) 5월 3일(양력 6월 20일)

畿營狀啓謄錄 6책(4752~476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6책(198b~198c)

承政院開坼

龍仁等邑雨澤,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安城·陰竹·積城·朔寧·加平·驪州·砥平·楊根·豐德·永宗邑鎭段, 今月初一日辰巳時始雨, 未申時止歇, 而俱得一鋤. 富平·通津段, 初二日寅時又雨, 得一犁, 安山·果川·金浦段, 同日寅卯時, 更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報, 今已畢到, 而霽後一旬, 又被霈澤, 或鋤或犁, 峽野均適, 移秧鋤草, 俱能及時, 而早晚各穀, 一倍膏潤, 高燥奉天之地, 亦無水不足之慮. 目下民事, 誠爲萬幸是白如乎, 霽後農形, 待其報來, 卽當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용인 등 고을의 우택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안성·음죽·적성·삭녕·가평·여주·지평·양군·풍덕·영종의 고을과 군영의 경우, 이번 달 초1일 진시·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미시·신시에 그쳤는데, 모두 1서가 내렸고, 부평·통진의 경우, 초2일 인시에 또 비가 1려 내렸고, 안산·과천·김포의 경우, 같은 날 인시·묘시에 다시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비 보고는 지금 이미 모두 도착했습니다. 개인 뒤 10일 동안에 또 큰비가 내려 더러는 1서, 더러는 1려인데, 산골짜기나 들판이 고루 적당하니 모내기와 김매기는 모두 때를 맞출 수 있고, 각종 올곡과 늦곡은 곱절로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높고 메마른 곳이나 하늘만 바라보는 지역 또한 물이 부족할 염려가 없으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개인 뒤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9. 1784년(정조 8) 5월 9일(양력 6월 26일)

畿營狀啓謄錄 6책(5071~5081) /各司謄錄 1책, 畿營狀啓謄錄 6책(211d~212b)

承政院開圻

道內農形, 前月雨後, 已爲登聞爲白有在果, 昨日亥時始雨, 今日寅時至, 臣營下雨測雨器水深爲一分, 乍旱之餘, 沾潤之幸, 亦爲不少是白乎旆, 近日農形段, 野邑秋牟, 已盡刈取, 春牟間或刈取, 早稻·黍·粟方張再除, 中稻·黍·粟·木花及豆太已盡初除, 晚稻方始初除, 早秧畢移是白遣, 峽邑秋牟間多刈取, 春牟已盡成熟, 早稻·黍·粟間或再除, 中稻·黍·粟·木花及豆太方爲初除. 晚稻向長, 早移秧垂畢是如爲等如, 報來爲白乎矣, 其中衿川·陽川段, 沿江諸面, 有蟲滋生於牟麥之田, 其形似蝗, 色黑稍大, 或折削芒穗, 或刮食莖葉, 已黃熟者, 其害差少, 未盡成熟者, 被損最甚, 而既損旱田之稷唐, 或犯水田之禾苗是白乎所, 近山乾燥之地, 姑不熾滋. 沿邊污下之處, 爲害最多是白乎旆, 麻田·漣川段, 沿邊卑濕之處, 亦有此災, 而狀如再眠之蠶, 春牟耳牟之未及成熟者, 多被蝕損, 黍粟豆太之田, 不無挺及之慮是如爲白有臥乎所, 積城·麻田·漣川·朔寧·永平·抱川等六邑秋牟之蹲縮失稔, 竹山·安城·陽城·振威等四邑春牟之被旱不登, 雖甚可恨是白乎乃, 餘外諸邑段, 兩年舉皆登熟, 各穀漸至改觀是白在如中, 今此四邑蟲損, 雖非遍境所有, 設酺禳災, 似當稟請舉行是白乎矣, 前夜之雨, 庶幾洗滌消滅, 方令躬審田野, 詳細馳報, 止息與否, 待其報來, 卽當陳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농사 상황은 지난달에 비가 내린 뒤 이미 아뢰었습니다. 어제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인시까지 저의 감영의 측우기 수심은 1푼이었습니다. 잠깐 가문 끝에 다행히 축축하게 적신 곳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요즈음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모는 옮겨 심기를 마쳤으며, 산골 고을의 가을보리는 그사이에 많이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익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자라나고, 이른 모내기는 거의 마쳤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금천·양천의 경우, 강가의 여러 면은 보리밭에 벌레가 점점 더 생기는데 모양은 누리와 비슷하고 색깔은 검고 조금 큰데, 더러는 미숙한 이삭을 꺾거나 꺾고, 더러는 줄기 잎을 갉아 먹어, 이미 누렇게 익은 것은 피해가 조금 적으나 다 익지 않은 것은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이미 밭의 수수를 손상시켰고 더러는 논의 모를 침범합니다. 산에 가깝거나 메마른 지역은 아직 세차게 번지지 않지만, 물가나 낮은 곳은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마전·연천의 경우, 물가나 낮고 축축한 곳 또한 이런 재해가 있는데, 모양은 두 잠잔 누에와 같은데, 아직 익지 않은 봄보리·귀리를 갉아 먹는 피해가 많고, 기장·조·콩·팥의 밭에 번질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적성·마전·연천·삭녕·영평·포천 등 6개 고을의 가을보리는 쭉그러져 여물지 않고, 죽산·안성·양성·진위 등 4개 고을의 봄보리는 가뭄을 당해 익지 않으니, 비록 매우 한스럽기는 하지만,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대부분 잘 익었고, 각종 곡식은 점점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4개 고을의 벌레 피해는 비록 온 지역에 두루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재해를 내리는 신에게 제사하여 재앙을 물리칠 것을 요청하여 시행해야 할 듯합니다. 지난밤의 비로 거의 씻겨 사라졌는지, 막 지시하여 몸소 들판을 살펴 상세히 긴급 보고하게 하였는데, 그쳤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0. 1784년(정조 8) 5월 9일(양력 6월 26일)

畿營狀啓謄錄 6책(5101~511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3b~213c)

承政院開圻

臣營測雨器水深一寸緣由, 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衿川·水原段, 今月初八日戌亥時始雨, 初九日寅時至, 得二犁. 果川·安山·富平·廣州段, 自同日亥時, 初九日寅卯時至, 得一犁. 陽川·金浦·通津·楊州·長湍·坡州·高陽·仁川段, 自同日戌亥時, 初九日子丑時至, 得一鋤, 而坡州·交河·安山段, 玄蟲熾盛, 蠶食牟麥, 仍及田穀, 軟莖細葉, 間多折落. 牟麥日盡成熟, 爲害不至大段, 而田穀被損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膏澤頻仍, 所得適中, 田畝各穀, 日就茁長, 民事萬幸是白乎矣, 陽川·衿川之蟲災, 雨後不必有洗滌之效, 而或貼在莖葉, 或屯聚田疇, 姑未消滅開霽之後, 可知其熾熄與否是如爲白遣, 交坡·安三邑形止, 更卽馳報之意, 亦爲嚴飭,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인 연유는 방금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금천·수원의 경우, 이번 달 초8일 술시·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9일 인시까지 2려가 내렸고, 과천·안산·부평·광주의 경우, 같은 날 해시부터 초9일 인시·묘시까지 1려가 내렸고, 양천·김포·통진·양주·장단·파주·고양·인천의 경우, 같은 날 술시·해시부터 초9일 자시·축시까지 1서가 내렸고, 파주·교하·안산의 경우, 검은 벌레가 세차게 번지며 보리를 갉아 먹다가 이내 밭곡식에 이르렀는데 연한 줄기와 어린 입은 그사이에 많이 꺾여 떨어졌으며, 보리는 거의 다 익어서 피해가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밭곡식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름진 우택이 자주 내리고 내린 양이 적당하니 논밭의 각종 곡식은 날마다 싹이 자라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양천·금천의 벌레 재해는 비온 뒤에 씻어내는 효과가 반드시 있지는 않지만, 더러 줄기와 앞에 달라붙고 더러 밭두둑에 모였던 것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개인 뒤에야 번졌는지 없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다고 합니다. 교하·파주·안산 3개 고을의 경위는 다시 즉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또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1. 1784년(정조 8) 5월 10일(양력 6월 27일)

畿營狀啓謄錄 6책(5111~511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3c~213d)

承政院開坼

衿川等邑雨澤及蟲災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振威·陽智·南陽·利川·永宗段, 今月初八日戌亥時或初九日子丑時始雨, 寅卯時至, 得一犁, 楊根·抱川·安城·竹山段, 初九日子丑時始雨, 卯辰時至, 得一鋤. 驪州·陰竹·麻田·永平·加平段, 同日丑寅時始雨, 所得爲溫塵是白遣, 長湍段, 黑蟲熾滋, 狀如初眠之蠶, 而牟麥之莖葉, 俱被蝕傷, 漸長之黍粟, 亦爲挺及矣. 今番雨後, 顯有消滅之效是白乎旆, 陽川段, 蟲損形止, 一一躬審, 則山田各穀, 稍稍寢息, 至於浦田, 則牟麥刈取之後, 移犯於禾穀稷唐而一向爲害, 小不弭息是如爲白有臥乎所, 長湍蟲損之雨後卽除, 雖甚多幸是白乎乃, 陽川禾苗之又被犯蝕, 殊極悶慮. 外此六邑形止, 姑未報來, 待其有報, 隨卽登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금천 등 고을의 우택 및 벌레 재해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진위·양지·남양·이천·영종의 경우, 이번 달 초8일 술시·해시 또는 초9일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인사·묘시까지 1려가 내렸고, 양근·포천·안성·죽산의 경우, 초9일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묘시·진시까지 1서가 내렸고, 여주·음죽·마전·영평·가평의 경우 같은 날 축시·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장단의 경우, 검은 벌레가 세차게 번지는데 모양은 첫잠 잔 누에와 같으며 보리의 줄기와 잎은 모두 갉아 먹혀 손상됐고, 점점 자라던 기장과 조에도 또한 번졌는데, 이번에 비온 뒤 뚜렷하게 없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양천의 경우, 벌레의 손상 경위를 하나하나 몸소 살폈더니, 산골 밭의 각종 곡식은 조금씩 그치고, 포구의 밭은 보리를 베어 거둔 뒤 벼와 수수로 옮겨 침범해서 줄곧 해쳤는데 적지 아니 그쳤다고 합니다. 장단의 벌레 손상은 비온 뒤 즉시 없어져서 비록 매우 다행이기는 하지만, 양천의 모가 또 갉아 먹히고 있으니 매우 걱정되고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밖에 6개 고을의 경위는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는데, 보고하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2. 1784년(정조 8) 5월 13일(양력 6월 30일)

畿營狀啓謄錄 6책(5132~515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4c~215c)

承政院開圻

雨後蟲災淺深, 詳細摘奸馳報之意, 謹奉聖旨, 申飭知委於被災各邑爲白有出乎, 坡州段, 沿江四面及平野四面, 黑蟲遍滿, 蠶食黍粟之莖葉, 挺及乾播之禾苗是白遣, 近山三面, 雖不至如沿野之大段, 近村垡田之稍沃者, 間多犯蝕, 而比雨前少有寢息之漸是如爲白乎跡, 果川段, 本縣東北, 以沿江之地, 東面二里, 北面七里, 最爲熾盛, 牟麥雖或折穗傷莖, 而今方刈取, 別無爲害之可言. 至於黍粟稷糖, 多被蝕損, 而今番雨後, 稍似寢息, 山田水畚, 姑無侵及之患是如爲白乎跡, 金浦段, 始自牟麥, 犯及各穀, 牟麥已盡成熟, 雖免大害, 乾畚之禾苗, 野田之黍粟豆太, 間間犯蝕. 稚芽軟葉, 殆無餘存, 到底屯聚, 有熾無熄是如爲白乎跡, 高陽段, 沿江五面, 最被其害, 晚耕春牟之未及成熟者, 間有折穗斷莖之患. 黍粟豆太及野畚乾播, 亦被蝕損是如爲白乎跡, 陽川段, 沿江三面, 被災尤甚, 近山兩面, 姑不大段, 浦田垡田之膏沃處, 其所爲害, 殆無彼此之別是如爲白乎跡, 抱川段, 汚下土沃之處, 稷粟耳牟, 被損者居多, 其中早種各穀之莖葉稍勁者, 僅免爲災, 中晚穀之稚苗軟葉, 蝕損最甚. 近峽數三面, 姑無蔓延之患是如爲白乎跡, 積城段, 中北等四面, 卑濕之處, 稷粟居多蝕損, 晚耕之田, 耳牟最被其害, 而近峽之地, 姑無是害是如爲白乎跡, 楊根段, 蟲災始自牟麥, 牟麥刈盡之後, 轉入黍粟, 隨處蝕損, 而山田則姑無是害是如爲白乎跡, 富平段, 石川等五面, 近浦汚下之地. 始自旱田, 挺及乾畚, 蠶食莖葉, 而姑不至遍境是如爲白乎跡, 交河段, 八面內三面, 其所被害, 不至大段, 五面段, 黍粟之田, 乾播之畚, 細莖軟葉, 多被蝕損是如爲白乎跡, 安山段, 六面之中, 雖不無深淺之別, 通一境論之, 甚處過半. 黍粟稷糖, 多被損害, 而禾穀之被災, 間間有之, 或有全一畚蝕盡相考事. 今番雨後, 雖不熾滋, 姑不寢熄是如爲白乎跡, 朔寧段, 黍粟豆太之受損居多, 晚耕耳牟, 莖葉蝕盡, 或犯穗實, 似無成實之望是如爲白乎跡, 楊州段, 東南各面, 自數日前, 忽有此災, 西北面及邑下, 亦或有之. 黍粟稷糖俱被傷損, 而姑不至大段是如爲白乎跡, 漣川·麻田摘奸形止, 姑未及來到是白乎所, 此災始自衿川·陽川, 以至挺及於西南諸邑, 既無寢熄之意, 亦有熾滋之慮, 此是卑下沮洳之地, 雨水頻仍, 日氣蒸鬱, 化生濕蟲, 以至各穀之蹲縮. 蓋今年農務, 比前稍早之故, 有此災損, 既蝕之處, 所見雖甚切悶, 今則節序尙早, 黍粟稷糖, 不無傍枚回蘇之理,

而老農之言，或以爲此與七八月間蟲災有異，則似不至大段，致慮是如爲白乎矣，今其爲災，殆及半道，則宜有及時禳災之道，而臣營本無五月設醮之例，香祝不敢遽然稟請，卽令該曹，相考已例，稟旨分付云云。

승정원 열람

비온 뒤 벌레 재해의 정도를 상세히 캐내 긴급 보고하라는 뜻을 삼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재해를 입은 각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며 알렸습니다.

과주의 경우, 강가의 4개 면과 평야의 4개 면은 검은 벌레가 두루 가득 차서 기장·조의 줄기와 잎을 갉아 먹고,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벼의 싹에 미쳤고, 산에 가까운 3개 면은 비록 강가와 평야의 면처럼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가까운 마을의 조금 기름진 텃밭은 그사이에 많이 갉아먹었지만 비오기 전보다는 적고, 점점 그친다고 합니다.

과천의 경우, 과천현의 동북쪽은 강가의 땅으로 동면의 2개 리와 북면의 7개 리가 가장 세차게 번졌는데, 보리는 비록 더러 이삭이 꺾이고 줄기가 손상되었으나 지금 막 베어 거둬서 별로 해가 없다고 말할 만하고, 기장·조·옥수수의 경우 갉아먹은 피해가 많았지만 이번 비온 뒤에 조금 그쳤고, 산밭과 논은 아직 침범될 근심이 없다고 합니다.

김포의 경우, 보리에서 비롯하여 각종 곡식에 침범하는데, 보리는 이미 다 익어서 비록 큰 피해를 면했지만, 마른 논이 벼 싹과 들판 밭의 기장·조·콩·팥은 간간히 침범하여 갉아먹어서 어린 싹과 어린 잎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곳곳에 모여서 번지며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양의 경우, 강가의 5개 면이 가장 많이 재해를 입었는데, 미처 익지 않은 늦갈이 봄보리는 그사이에 이삭이 꺾이고 줄기가 잘리는 근심이 있고, 기장·조·콩·팥 및 들판 논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 또한 갉아 먹혀 손상된다고 합니다.

양천의 경우, 강가의 3개 면이 입은 재해가 더욱 심한데, 산에 가까운 2개 면은 아직 대단하지 않고, 기름진 갯밭과 텃밭은 피해가 양쪽이 거의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포천의 경우, 낮고 흙이 기름진 곳은 기장·조·귀리의 피해가 대부분인데, 그 중 일찍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의 줄기와 잎이 조금 굳센 것은 겨우 재해를 면하고, 중간이나 늦곡의 어린 싹과 어린 잎을 갉아 먹는 손상이 가장 심하고, 산골에 가까운 2, 3개 면은

아직 널리 퍼질 근심이 없다고 한다.

적성의 경우, 중북 등 4개 면의 낮고 축축한 곳은 기장·조가 대부분 갇아 먹혀 손상됐고, 늦갈이한 밭은 귀리의 피해가 가장 심하고, 산골에 가까운 땅은 아직 이런 재해가 없다고 합니다.

양근의 경우, 벌레 재해가 보리에서 비롯하여, 보리를 다 벤 뒤에는 기장·조에 옮겨 들어가 곳곳에서 갇아먹어 손상시켰으나, 산밭은 아직 이런 재해가 없다고 합니다.

부평의 경우, 석천 등 5개 면의 포구에 가까운 낮은 땅은 밭에서 비롯하여 마른 논으로 먼저 줄기와 잎을 갇아 먹는데, 아직 전 지역에 두루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하의 경우, 8개 면 중에서 3개 면은 입은 재해가 대단하지 않지만, 5개 면의 경우 밭의 기장·조와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가는 줄기와 어린 잎을 갇아 먹은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안산의 경우, 6개 면 중에 비록 정도의 구별이 없지는 않으나 전 지역을 통틀어 따진다면 심한 곳이 절반 이상이고, 기장·조·옥수수는 손해를 많이 입었고, 벼는 피해가 간간이 있는데, 더러 전체를 다 갇아먹은 논이 있는지는 살펴볼 일입니다. 이번 비 뒤에 비록 세차게 번지지는 않지만, 아직 그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삭녕의 경우, 기장·조·콩·팥은 대부분 손상됐고, 늦갈이 귀리의 줄기와 잎은 다 갇아 먹었고, 더러 이삭과 열매를 침범하였는데, 아마도 열매가 여물 가망이 없을 듯하다고 합니다.

양주의 경우, 동남쪽 각 면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 재해가 발생했고, 서북쪽 면 및 읍내에도 또한 더러 발생하여, 기장·조·옥수수가 모두 손상됐으나 아직 대단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연천·마전의 경우, 캐낸 경위는 아직 보고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해는 금천·양천에서 비롯하여 서남의 여러 고을에 번졌는데, 이미 그칠 조짐 없고 또한 세차게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낮고 축축한 땅에 빗물이 잦고,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워 습한 벌레가 발생하고 각종 곡식이 쭈그러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올해 농사는 이전보다 조금 일렀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보기에는 비록 심하여 매우 걱정되지만, 지금은 절기가 아직 이르므로 기장·조·옥수수는 결가지가 되살 아날 이치가 없지 않은데, 늙은 농부의 말에, 더러는 이는 7, 8월 사이의 벌레 재해와 다르니 아마도 대단하여 염려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해가

경기도의 거의 절반에 미쳤으니 마땅히 때맞춰 재앙을 물리치는 방도가 있어야 하기에, 저의 감영은 본래 5월에 벌레 재해를 물리치는 제사[포제]를 시행한 사례가 없지만, 감히 선불리 아뢰어 향과 제문을 요청하지는 못하니, 즉시 해당 예조에 지시하여 선례를 살펴 임금님께 아뢰도록 분부해 주십시오.

0063. 1784년(정조 8) 5월 15일(양력 7월 2일)

畿營狀啓謄錄 6책(5161~516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5c~215c)

承政院開坼

坡州等邑蟲災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陽川·衿川·果川·交河·抱川五邑所報，則數日以來，蟲災頓然寢息，減得十之七八，被損之稷糖禾穀，雖未及生芽，老農之言，皆以爲庶有回蘇食實之望，而山峽乾燥之處，仍無挺及之事是如爲白乎所，數三日以來，東風連吹，日氣清涼，蒸濕滋化之蟲，自然消除，誠爲萬幸。列邑之同然與否，姑未詳知，故方申飭邑報爲白遣，先以近邑形止，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과주 등 고을의 벌레 재해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양천·금천·과천·교하·포천 등 5개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며칠 전부터 벌레 재해가 갑자기 그치면서 10분의 7, 8로 줄어들었는데, 손상된 옥수수과 벼의 경우 비록 새싹에 미치지 않았지만, 늙은 농부의 말에 다들 거의 되살아나 열매를 먹을 가망이 있고, 산골이나 메마른 곳은 이내 번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2, 3일 전부터 동풍이 연이어 불고 날씨가 서늘하니, 후덥지근하고 축축하면 번지는 벌레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이 똑같은지 여부는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고을에 막 단단히 지시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먼저 가까운 고을의 경위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64. 1784년(정조 8) 5월 16일(양력 7월 3일)

畿營狀啓謄錄 6책(5162~517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5c~216b)

承政院開坼

節到付禮曹關內, 本道書狀據坡州·果川·金浦·高陽·陽川·抱川·積城·楊根·富平·交河·安山·朔寧·楊州·漣川·麻田·衿川等十六邑, 蟲災熾盛醕祭設行事, 不待回啓, 依例舉行事, 自政院稟旨分付爲有置. 同香祝, 知委磨鍊下送爲去乎, 中央設壇, 隨時卜日設行後, 舉行形止卽爲狀聞宜當向事關是白乎等以. 中央處楊州牧, 設壇修掃, 獻官諸執事, 以守令察訪差定, 精備奠物, 各別虔誠, 以今十六日設行之意, 申飭知委爲白有知乎, 獻官楊州牧使金鍾秀牒呈內, 同醕祭依關辭設行後, 形止牒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이번에 도착한 예조의 공문 내용에,

“귀 경기도의 문서 보고에 근거하여 파주·과천·김포·고양·양천·포천·적성·양근·부평·교하·안산·삭녕·양주·연천·마전·금천 등 16개 고을에 벌레 재해가 세차게 번져 병충해를 물리치는 제사를 시행하는 일에 대해, 보고에 대한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규정대로 거행하는 일을 승정원에서 아뢰어 임금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위의 향과 제문을 알려서 마련하여 내려보내니, 중앙에 제단을 설치하고 점친 날짜에 따라 시행한 뒤 거행한 경위를 즉시 문서로 아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는 공문입니다.

중앙에 있는 양주목에 제단을 설치하여 청소하고, 헌관과 여러 집사를 수령과 찰방 중에서 선정하고, 꼼꼼하게 제물을 마련하여 각별히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이번 16일에 시행하라는 뜻을 단단히 지시하여 알렸습니다. 헌관인 양주 목사 김종수의 문서 보고 내용에, 위 병충해를 물리치는 제사를 공문 내용대로 시행한 뒤 경위를 문서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陽川等邑蟲災寢息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楊州·高陽所報, 則最初熾盛之處, 數日東風, 稍稍消除是遣, 卑濕之處, 或有未消者, 而不至大段是如爲白遣, 廣州·南陽·通津·豐德等四邑形止, 今又追到, 而廣州段, 沿江之地, 始自旱田, 犯及乾畝, 而不至遍滋是如爲白有旆, 通津段, 數日之間, 忽然發生於污下之處, 黍粟稷糖, 多被蝕損, 乾播禾穀, 不無移犯之慮是如爲白有旆, 南陽段, 始自卑濕之田, 挺及連隴之畝, 或犯粟糖, 或犯禾苗, 而濱海築堰之地, 姑無是災是如爲白有旆, 豐德段, 滋生於卑濕之地, 黍粟禾穀, 間有被損, 而高燥之處, 幸無蔓延之患, 是如爲白有臥乎所, 傍近餘害, 侵犯隣境, 至有四邑追報之舉是白乎乃, 詳聞其爲害深淺, 則大者漸次消滅, 小者更不滋化, 其勢漸微, 不復有熾蔓之慮, 而被傷各穀之傍枝生芽, 姑觀若干日, 可以知之是如爲白遣, 此外他邑, 姑未有報, 待其報來, 卽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양친 등 고을의 벌레 재해가 그친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양주·고양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장 세차게 번졌던 곳에 며칠 동풍이 불자 조금씩 없어졌고, 낮고 축축한 곳은 더러 없어지지 않은 곳이 있지만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주·남양·통진·풍덕 등 4개 고을의 경위는 지금 또 뒤이어 도착했는데 광주의 경우, 강가의 땅은 밭에서 비롯하여 마른 논에까지 침범하였는데, 두루 번지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진의 경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낮은 곳에서 발생하였는데, 기장·조옥수수논은 값아 먹는 손상을 많이 입었고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벼는 옮겨서 침범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남양의 경우, 낮고 축축한 밭에서 비롯하여 두둑이 연이은 논에 번졌고 더러 벼와 옥수수를 침범하였고, 바닷가 독을 쌓은 땅은 아직 이러한 재해가 없다고 합니다. 풍덕의 경우, 낮고 축축한 땅에 번식하여 기장·조벼가 그사이에 손상됐고, 높고 메마른 곳은 다행히 널리 번질 근심이 없다고 합니다. 다가온 남은 재해가 이웃 지역을 침범하여 4개 고을의 뒤이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를 상세히 들어보니 큰 경우는 점차 없어지고 작은 경우는 다시 번지지 않고, 형세가 점점 약해지고 다시 세차게 번질 염려는 없는데, 손상된 각종 곡식은 겉가지에서 싹이 나서 일단 며칠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다른 고을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承政院開坼

臣營下今日午時始雨，或灑或止，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分是白如乎，雨澤稍闕，民情切望，而連爲霏灑，可期一霽是白乎旆，各邑形止，待其有報，隨卽登聞計料，緣由竝以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오늘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치더니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푼이었습니다. 우택이 조금 없어서 백성들의 심정은 매우 바랐는데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한차례 퍼붓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하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5. 1784년(정조 8) 5월 17일(양력 7월 4일)

畿營狀啓謄錄 6책(5181~518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6b~216c)

承政院開坼

臣營測雨器水深一分緣由, 昨已馳啓爲白有在果, 自昨日酉時以後, 雨勢霑下, 通宵不止, 今日寅時至. 水深爲五寸六分是白遣, 果川·陽川·高陽·廣州·楊州·安山等六邑, 昨日申酉時, 已得鋤雨形止, 先爲報來, 而前夜所得, 姑未及來到是白乎所, 乍旱之餘, 得此霈澤, 移秧未畢處, 庶皆訖功, 而蟲災亦從以洗滌消除, 誠萬萬喜幸是白乎旆, 得雨多寡, 雨後農形, 待列邑有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푼인 연유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어제 유시 이후 비의 형세는 강하여 주룩주룩 내리면서 밤새 그치지 않고 오늘 인시에 이르렀는데, 수심은 5치 6푼이었습니다. 과천·양천·고양·광주·양주·안산 등 6개 고을은 어제 신시·유시에 이미 1서의 비가 내린 경위는 먼저 보고가 왔는데, 전날 밤에 내린 것은 아직 보고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가문 끝에 이렇게 큰비가 내렸으니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 곳은 거의 다 일을 마칠 것이고, 벌레 재해 또한 씻어내서 없어질 것이니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내린 비의 양과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은 여러 고을이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6. 1784년(정조 8) 5월 17일(양력 7월 4일)

畿營狀啓謄錄 6책(5182~519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6c~216d)

承政院開圻

果川等邑雨澤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衿川·果川·安山段, 自十六日戌亥時, 或霏或灑, 十七日寅時至, 所得俱爲二犁. 陽川·高陽·富平·水原·振威·抱川·積城段, 同日子丑時至, 所得爲一犁, 金浦·交河·坡州段, 同日寅卯時至, 所得爲一鋤, 南陽·利川·陽智·龍仁等邑段, 十六日酉時始雨, 戌時至所得, 亦爲一鋤, 長湍·永平·漣川·楊根·通津·仁川等邑段, 十六日戌亥時始雨, 雨勢漸緊是如爲白有臥乎所, 以列邑形止觀之, 或犁或鋤, 高低均洽. 高燥處, 方張移秧, 牟麥田次第根耕, 而禾稼田種, 欣然改觀是白遣, 蟲災段, 日前東風過半寢息, 今番霏霖幾盡消除, 而或有餘存, 更無肆氣爲害之慮, 目下民事, 種種喜幸是白如乎, 雨後農形, 躬審馳報之意, 連加嚴飭, 待其有報, 未到邑雨澤, 竝以卽當陳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과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금천·과천·안산의 경우, 16일 술시·해시부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모두 2려였고, 양천·고양·부평·수원·진위·포천·적성의 경우, 같은 날 자시·축시까지 내린 것은 1려였고, 김포·교하·파주의 경우, 같은 날 인시·묘시까지 내린 것은 1서였고, 남양·이천·양지·용인 등 고을의 경우, 1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술시에 이르렀는데, 또한 1서였고, 장단·영평·연천·양근·통진·인천 등 고을의 경우, 16일 술시·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비의 형세가 점점 세차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로 보자면, 더러는 1려가 더러는 1서가 내렸는데, 높고 낮은 곳이 고루 흡족하여, 높고 메마른 곳은 한창 모내기하고 있고, 보리밭은 차례로 그루같이 하고, 벼와 밭곡식은 기분 좋게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며칠 전 동풍으로 절반 이상 그쳤는데, 이번에 주룩주룩 쏟아진 비로 거의 다 없어졌으며, 더러 남아 있는 것은 다시 함부로 해칠 염려가 없으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상 여러 가지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은 몸소 살펴 긴급 보고하라는 뜻을 연이어 엄하게

지시하였는데, 보고하기를 기다려 도착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을 아울러 마땅히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7. 1784년(정조 8) 5월 19일(양력 7월 6일)

畿營狀啓謄錄 6책(5191~520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6d~217b)

承政院開圻

衿川等邑雨澤, 連爲陳聞爲白有在果, 喬桐·永宗兩邑鎮外, 列邑雨報, 今已畢到. 總計三日所得, 則廣州·楊州·漣川·安山·水原·果川, 高低周洽, 利川·衿川·振威·陽城·安城·高陽, 得二犁, 砥平·楊根·抱川·永平·加平·麻田·陽川·富平·通津·南陽·仁川·龍仁·竹山·陽智·積城·陰竹, 得一犁, 驪州·朔寧·交河·坡州·長湍·豐德·金浦, 得一鋤, 乍旱切望之際, 甘露如期注下, 一路均霑. 各穀生色, 滿野歡聲, 邑牒同然是白遣, 農形段, 野邑牟田, 已多根耕, 早稻·黍·粟, 已畢再除, 間有三除, 中稻·黍·粟·木花·豆太, 或再除或三除, 晚付種早移秧, 已訖初除, 峽邑春牟, 今方刈取, 仍始根耕, 早稻·黍·粟, 幾盡再除, 中稻·黍·粟·木花·豆太, 已畢初除或有再除, 晚付種早移秧, 已盡初除. 高燥處晚移秧, 毋論峽野, 今番雨後, 方張爲之. 沿邊蟲災, 前已過半消除於東風, 今又幾盡洗滌於霈澤, 各穀之最先蝕損處, 間多傍生之芽, 庶有食實之望是如爲白乎旆, 昨日申後, 又得一陣驟霑, 臣營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所, 自春徂夏, 得雨不驟, 始自付種除草, 終至移秧根耕, 隨力有無, 分功先後, 舉無窘迫不逮之患, 而諸般農務, 次第告訖於三庚之前, 道內民事, 萬萬喜幸, 而蟲災消殄, 新芽抽發, 節序不晚, 可期成就. 被損各穀之皆能如此, 雖未預料, 通計一道, 則如干蟲損, 不足爲大段災害是白如乎, 霽後農形, 必當一倍改觀, 更爲躬審馳報之意, 嚴飭列邑, 待其有報, 卽當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금천 등 고을의 우택은 연이어 아뢰었습니다. 교동·영종 2개 고을과 군영 외에 여러 고을의 비 보고는 지금 이미 모두 도착했는데, 통틀어 계산하면 3일 내린 것의 경우, 광주·양주·연천·안산·수원·과천은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흡족하였고, 이천·금천·진위·양성·안성·고양은 2려가 내렸고, 지평·양근·포천·영평·가평·마전·양천·부평·통진·남양·인천·용인·죽산·양지·적성·음죽은 1려가 내렸고, 여주·삭녕·교하·파주·장단·풍덕·김포는 1서가 내렸는데, 잠깐 가뭄에 절실히 바랄 즈음 단비가 기대한 만큼 주룩주룩 내려 한결같이 고루 적서 각종 곡식이 빛을 내고 기쁜 소리가 들판에 가득하다고 고을의 보고가 똑같습

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보리밭은 이미 많이 그루같이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그사이에 세벌 김매기하는 곳도 있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거나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볍씨를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한 것은 더러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산골 고을의 봄보리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이내 그루같이를 시작하고,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기장·조·목화 및 콩·팥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더러 더러 김매기하는 곳도 있고, 늦게 볍씨를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높고 메마른 곳에 늦게 모내기하는 것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이번에 비온 뒤 한창 하고 있고, 바닷가 벌레 재해는 앞서 이미 동풍에 절반 이상 없어졌는데 지금 또 쏟아진 비에 거의 다 씻겨나갔고, 각종 곡식 중 가장 먼저 값아 먹혀 손상된 곳은 그사이에 곁에 많이 생긴 싹으로 거의 열매를 먹을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신시 이후 또 한바탕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내린 비는 갑작스럽지 않아서, 처음은 씨앗을 뿌리고 김매기를 하면서부터 끝내는 모내기하고 그루같이하기까지, 일꾼의 유무에 따라 작업의 선후를 나눠서, 대부분 매우 곤란하거나 이르지 못할 근심 없이 여러 가지 농사일을 삼복 전에 마쳤다고 차례로 아뢰니, 경기도 내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벌레 재해가 다 없어지고 새싹이 치솟아 절기에 늦지 않으니 여물기를 기대할 수 있고, 손상된 각종 곡식이 다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비록 미리 헤아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 계산하면 웬만큼 벌레로 손상됐으나 대단한 재해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비가 갠 뒤 농사 상황은 곱절로 모습이 바뀐 것이 분명하니, 다시 몸소 살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엄하게 지시했는데, 보고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8. 1784년(정조 8) 5월 23일(양력 7월 10일)

畿營狀啓謄錄 6책(5202~521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7b~217c)

承政院開坼

道內各邑雨澤農形, 纔已陳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雨澤, 一路均洽之後, 又於二十日二十一日驟雨, 或霏注或霏微. 高陽·長湍·龍仁·陽智·利川·楊州·抱川·永平·振威·安城等邑, 高低周洽, 廣州·驪州·富平·豐德·麻田·朔寧·永宗等邑鎮, 得一犁, 果川·安山·交河·漣川·積城·金浦·通津·喬桐等邑, 得一鋤是白遣, 雨後農形段, 田畚各穀, 日就茁茂, 而晚移根耕, 今幾畢役. 移插之稍早者, 已着根, 根耕之最先者, 已立苗, 沿峽蟲災, 盡爲消除, 而被損各穀, 次第生芽, 莖葉抽長, 無慮食實是白乎矣, 其中陽川·衿川·積城·長湍等邑, 沿邊之若干旱田, 爲害最甚, 莖根俱傷者, 尙不萌芽, 有難遲待, 不得已反耕改播是白乎乃, 節序今猶不晚, 可期一體成就是白遣, 金浦·通津·交河等邑, 野畚乾播處, 乾泥不適, 或有停鋤者, 而開霽之後, 似無愆期之慮是白乎旆, 臣營下昨日戌時始雨, 今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乎所, 驟雨頻仍, 旋即暘曝而田畚各穀日漸茁長, 諸般農務, 幾皆告訖, 而通計列邑境內, 殆無未移閑田, 三庚之前, 田功之若是克就, 實是挽近所罕, 言念民事, 不勝喜幸,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 우택은 한결같이 고루 흡족하도록 내린 뒤 또 20일·21일에 소나기가 더러는 주룩주룩 쏟아지고 더러는 부슬부슬 내렸는데, 고양·장단·용인·양지·이천·양주·포천·영평·진위·안성 등 고을은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흡족했고, 광주·여주·부평·풍덕·마전·삭녕·영종 등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과천·안산·교하·연천·적성·김포·통진·교동 등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비온 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은 날마다 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늦게 모내기하거나 그루같이하는 것은 지금 거의 일을 마쳤고, 조금 일찍 옮겨 심은 것은 이미 뿌리가 내렸고, 가장 먼저 그루같이한 것은 이미 싹이 났고, 바닷가나 산골의 벌레 재해는 다 없어졌고, 손상된 각종 곡식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줄기와 잎이 쑥쑥 자라니

염려할 것 없이 열매를 먹겠습니다. 그 중 양천·금천·적성·장단 등 고을은 물가의 약간의 밭이 재해가 가장 심한데, 줄기와 뿌리가 모두 손상된 것은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아, 지체되어 기다리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갈아엎고 바꿔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절기가 지금 오히려 늦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름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포·통진·교하 등 고을은 들판의 논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경우 마르거나 질퍽하여 김매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더러 중지하였는데, 비가 갠 뒤 아마도 시기에 늦을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저의 감영에 어제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소나기가 잦다가 곧바로 햇볕이 내리쬘니 논밭의 각종 곡식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니 여러 가지 농사일은 마쳤다고 거의 다 아뢰었는데, 여러 고을의 지역을 통틀어 계산하면 옮겨 심지 못한 노는 논밭은 거의 없고, 삼복 전에 논밭의 일을 이처럼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근래에 드문 일인데,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기쁨과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9. 1784년(정조 8) 5월 25일(양력 7월 12일)

畿營狀啓謄錄 6책(5232~524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8c~218d)

承政院開坼

道內各邑雨澤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二·三日之雨, 利川得二犁, 廣州·楊根·積城·陽智等邑得一犁, 高陽·交河·坡州·長湍·漣川·朔寧·麻田·陽川·金浦·通津·安山·仁川·富平·南陽·水原·振威·陽城·安城·果川·陰竹·竹山·驪州·砥平·永平·加平·永宗等邑鎮, 得一鋤是白遣, 臣營下昨日戌時始雨, 今日子時至, 測雨器水深爲二分是白乎所, 向日需澤, 一路均洽. 伊後雨暘, 連爲適宜, 各穀膏潤, 日就茁茂, 而昨日之雨, 又得於數日東風之餘, 民事誠爲幸甚, 緣由竝以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23일의 비로 이천은 2려가 내렸고, 광주·양근·적성·양지 등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양·교하·파주·장단·연천·삭녕·마전·양천·김포·통진·안산·인천·부평·남양·수원·진위·양성·안성·과천·음죽·죽산·여주·지평·영평·가평·영종 등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어제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자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린 큰비가 한결같이 고루 적셨고, 그 뒤 비와 햇볕이 연이어 적절하여 각종 곡식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날마다 짝이 자라 무성해지는데, 어제의 비는 또 며칠의 동풍 끝에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0. 1784년(정조 8) 5월 27일(양력 7월 14일)

畿營狀啓臚錄 6책(5242~5251) /各司臚錄 1, 畿營狀啓臚錄 6책(218d~219a)

承政院開圻

利川等邑今月二十二·三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則二十四日酉戌時, 更爲始雨, 二十六日寅卯時至, 或霏或灑. 陽川·安山·南陽等邑, 得二犁, 楊州·富平·衿川·果川·漣川·利川·振威等邑, 得一犁, 抱川·永平·高陽·坡州·交河·長湍·豐德·朔寧·積城·金浦·通津·水原·陽城·安城等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二十六日水深爲七分是白乎所, 伊來雨澤, 無日不下, 而或灑或歇, 不爲暴注, 田畝各穀, 一向茁茂, 晚移根耕, 舉已着根立苗, 民事誠爲多幸. 餘外各邑, 待其報來, 竝與農形, 而迫于上聞計料爲白乎旆, 臣之目下情勢, 不敢晏然於職務, 而係是民事, 有難遲滯, 不得而冒沒舉行, 不勝惶恐, 緣由竝以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이천 등 고을의 이번 달 22·23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4일 유사·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인시·묘시까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렸는데, 양천·안산·남양 등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양주·부평·금천·과천·연천·이천·진위 등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포천·영평·고양·파주·교하·장단·풍덕·삭녕·적성·김포·통진·수원·양성·안성 등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의 26일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이후 우택은 내리지 않은 날이 없는데, 더러 뿌리다가 더러 그치면서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지는 않으니 논밭의 각종 곡식은 줄곧 싹이 자라 무성하고, 늦게 모내기한 것과 그루같이한 것은 대부분 이미 뿌리가 내리거나 싹이 트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농사 상황과 아울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저의 눈앞 정세는 감히 직무에 평안할 수 없는데, 이는 백성들의 사정에 관계되니 지체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염치를 무릅쓰고 거행하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71. 1784년(정조 8) 6월 1일(양력 7월 17일)

畿營狀啓謄錄 6책(5251~525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9a~219b)

承政院開坼

陽川等邑去月二十六日至雨澤形止, 已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五·六日之雨, 驪州·喬桐·龍仁·陽智等邑得一犁, 廣州·楊州·竹山·麻田·陰竹等邑得一鋤是白遣, 農形段, 野邑早稻·黍·粟·木花, 已盡三除, 中稻·黍·粟·豆太已畢再除, 間有三除, 晚付種及早移秧, 間多再除. 峽邑耳牟已盡刈取, 早稻·黍·粟方張三除, 中稻·黍·粟·木花·豆太已多再除, 晚移秧根耕豆太, 毋論峽野, 已皆着根立苗, 善爲苗長是如爲白有臥乎所, 五·六邑最高奉天處, 或有未移者, 此蓋雨水雖多, 終不彌日大霑, 未及生水, 旋即暘曝之致. 若通計一路, 不過如干處, 不足爲加損於占豐之時是白遣, 自前月望後, 至于今驟雨連下, 日候風氣, 一向調順, 諸般田功, 幾皆了畢, 各樣農形, 無不茁茂, 言念民事, 萬萬喜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양천 등 고을의 지난달 26일까지 우택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5·26일 비로 여주·교동·용인·양지 등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주·양주·죽산·마전·음죽 등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목화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기장·조·콩·팥은 이미 두벌 김매기가 마쳤는데 그사이에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벼씨를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한 것은 그사이에 많이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산골 고을의 귀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중벼·기장·조·목화·콩·팥은 이미 많이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게 모내기한 것과 그루갈이한 콩·팥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이미 다 뿌리를 내리거나 싹이 터서 싹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5·6개 고을의 최고로 하늘만 바라보는 곳은 더러 모내기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는 대개 비록 빗물이 많더라도 끝내 하루 종일 주룩주룩 크게 내리지 않으면 물이 생기지 않고 곧바로 햇볕이 내리쬐는 탓인데, 통틀어 계산하면 한결같은 이런 곳은 어느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풍년을 점치는 시기에 손상이 되기에는 부족합니

다. 지난달 보름 뒤로 지금까지 소나기가 연이어 내리고 날씨와 바람이 줄곧 순조로워
여러 가지 밭일을 이미 다 마쳤고, 각종 곡식의 농사 상황은 싹이 무성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
니다.……

0072. 1784년(정조 8) 6월 2일(양력 7월 18일)

畿營狀啓謄錄 6책(5261~526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19b~219c)

承政院開坼

道內農形, 昨已登聞爲白有在果, 卽接果川·高陽·陽川·金浦·安山·仁川·富平·廣州·坡州·交河·水原等邑所報, 則今日寅卯時始雨, 所得俱爲一鋤, 而連爲霏灑是白遣, 臣營測雨器, 自寅時至酉時, 水深爲六分是白如乎, 餘外諸邑, 待其有報, 隨即上聞計料, 緣由竝以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농사 상황은 어제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과천·고양·양천·김포·안산·인천·부평·광주·파주·교하·수원 등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오늘 인시·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내린 것은 1서였고,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습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는, 인시부터 유시까지 수심이 6푼이었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하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3. 1784년(정조 8) 6월 4일(양력 7월 20일)

畿營狀啓謄錄 6책(5362~537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5c~225d)

承政院開坼

果川等邑雨澤形止, 已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二日之雨, 利川得一犁, 通津·豐德·竹山·驪州·南陽·振威·陽城·安城·積城·麻田·漣川·朔寧·楊州·抱川·永平·加平·楊根·陰竹等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臣營下初二日酉時以後, 或灑或止是白如可, 昨日酉時, 霈然大霏,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乎等以, 先爲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과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2의 비로 이천은 1려가 내렸고, 통진·풍덕·죽산·여주·남양·진위·양성·안성·적성·마전·연천·삭녕·양주·포천·영평·가평·양근·음죽 등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초2일 유시 이후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치다가 어제 유시에 세차게 주룩주룩 크게 내렸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0074. 1784년(정조 8) 6월 5일(양력 7월 21일)

畿營狀啓謄錄 6책(5371~537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5d~226a)

承政院開坼

利川等邑雨澤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二日以後, 或灑或止是如可, 初三日申酉時, 更爲霪下, 初四日子丑時至. 安山·仁川·富平·陽川·衿川·永宗等邑鎮, 川渠漲溢, 高陽·交河·金浦·通津·果川·水原·振威·楊州·楊根等邑, 得一犁, 永平·加平等邑, 得一鋤是如爲白遣, 昨日辰時以後, 臣營測雨器水深, 又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이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이후 더러 뿌리거나 그치다가 초3일 신시·유시에 다시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4일 자시·축시에 이르렀는데, 안산·인천·부평·양천·금천·영종 등 고을과 군영은 시내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고양·교하·김포·통진·과천·수원·진위·양주·양근 등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평·가평 등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어제 진시 이후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75. 1784년(정조 8) 6월 6일(양력 7월 22일)

畿營狀啓臚錄 6책(5372~5372) /各司臚錄 1, 畿營狀啓臚錄 6책(226a~226a)

承政院開圻

安山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三日四日之雨, 或大霪或霏灑是如可, 初五日辰巳時開霽, 果川·龍仁·廣州·利川·金浦·南陽·水原·振威·陽城·永平·積城·麻田等邑, 川渠漲溢, 通津·陽智·漣川·加平等邑, 俱得一犁, 而毋論沿峽, 田畚俱無潰決之患, 農形, 均占登熟之望, 目下民情, 在在歡欣是如, 一辭報來爲白有臥乎所, 今番雨水, 稍似過多, 而川渠乍漲旋退, 風日霽後調順, 各穀茂茁, 日漸成就, 道內民事, 不勝喜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안산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4일의 비로, 더러 주룩주룩 크게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5일 진시·사시에 개었는데, 과천·용인·광주·이천·김포·남양·수원·진위·양성·영평·적성·마전 등 고을은 시내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통진·양지·연천·가평 등 고을은 1려가 내렸는데, 물가나 산골을 따질 것 없이 논밭은 모두 독이 터질 근심이 없고, 농사 상황은 고루 잘 익을 가망을 점치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상 곳곳에서 기뻐한다고 한결같은 말로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의 빗물은 조금 지나치게 많은 듯하지만, 시내와 도랑이 잠깐 불어났다가 곧바로 빠지고, 개인 뒤 날씨가 순조로워 각종 곡식의 싹이 자라 무성하고 날로 점점 여물어가니 경기도 내 백성들 사정상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76. 1784년(정조 8) 6월 10일(양력 7월 26일)

畿營狀啓謄錄 6책(5381~538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6b~226b)

承政院開坼

道內各邑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野邑早稻, 間多胚胎, 早黍粟木花豆太, 鋤役已畢, 一向茁茂, 中稻·黍·粟, 幾盡三除, 晚付及早移秧, 再除幾畢. 峽邑早稻·黍·粟·木花, 幾盡三除, 中稻·黍·粟·豆太, 再除已畢, 晚移畚根耕田, 毋論峽野, 方始初除是如爲白〈有〉臥乎所, 初五日雨霽之後, 風日連爲調和, 早付之胚胎者, 今方入實, 晚移之茁茂者, 幾皆成就, 旱田之早種晚播, 無不善成. 一路農形, 恰滿民望, 誠不勝欣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들관 고을의 올벼는 그사이에 이삭을 많이 났고, 올기장·올조·목화·콩·팥은 김매기를 이미 마쳤는데 줄곧 싹이 자라 무성하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게 벼씨를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으며, 산골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목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중벼·기장·조·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게 모내기한 논과 그루같이한 밭은 산골이나 들관을 따질 것 없이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5일에 비가 갠 뒤 날씨가 연이어 조화로워 일찍 씨앗을 뿌려 이삭을 백 것은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게 모내기하여 싹이 자라 무성한 것은 이미 다 여물어가고, 밭의 올곡과 늦게 씨앗을 뿌린 것은 잘 여물지 않는 것이 없으니, 한결같이 농사 상황은 백성들의 바람을 가득 채울 듯하니 정말로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77. 1784년(정조 8) 6월 12일(양력 7월 28일)

畿營狀啓謄錄 6책(5382~538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6b~226c)

承政院開坼

道內各邑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近邑所報, 則今月十一日戌亥時始雨, 或霏或灑, 十二日丑寅時至. 衿川段, 得一犁, 高陽·陽川·果川段, 得一鋤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昨日戌時, 至今日寅時, 水深爲二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술시·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축시·인시에 이르렀는데, 금천의 경우 1려가 내렸고, 고양·양천·과천의 경우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의 경우, 어제 술시부터 오늘 인시까지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78. 1784년(정조 8) 6월 13일(양력 7월 29일)

畿營狀啓謄錄 6책(5382~539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6c~226c)

承政院開坼

高陽等近邑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子丑時始雨, 寅卯時至, 或大霏或霏灑, 金浦·仁川·富平·楊州·龍仁等五邑, 川渠漲溢, 交河·通津·廣州·利川·南陽·水原·坡州·安山等八邑, 得一犁. 高陽·陽川·果川等三邑, 同日卯辰時至, 又得一鋤是如爲白遣, 臣營下今日丑時始雨, 寅時至, 一直滂沱,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 緣由竝以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고양 등 가까운 고을의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인시·묘시까지 더러 주룩주룩 크게 내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는데, 김포·인천·부평·양주·용인 등 5개 고을은 시내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교하·통진·광주·이천·남양·수원·파주·안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양·양천·과천 등 3개 고을은 같은 날 묘시·진시까지 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오늘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인시까지 줄곧 콕콕 쏟아졌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79. 1784년(정조 8) 6월 14일(양력 7월 30일)

畿營狀啓謄錄 6책(5441~5442)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8d~229a)

承政院開圻

金浦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二日之雨, 長湍·安城·陽智·永平·抱川·麻田·漣川等七邑, 川渠漲溢, 豐德·振威·陽城·竹山·陰竹·呂州·砥平·積城等八邑, 得一犁是白遣, 十三日丑·寅時, 又爲始雨, 辰巳時至, 一直霑下. 廣州·陽川·仁川等三邑, 川渠漲溢, 衿川·安山·果川·高陽·交河·南陽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間多暴霏, 江川漲滿, 而旋即暘曝水退, 毋論峽野, 能[俱]無田畝潰決之患, 各穀豐茂, 善爲成就, 道內民事, 誠甚喜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김포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의 비로 장단·안성·양지·영평·포천·마전·연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풍덕·진위·양성·죽산·음죽·여주·지평·적성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13일 축시·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진시·사시까지 줄곧 주룩주룩 내렸는데, 광주·양천·인천 등 3개 고을은 시내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금천·안산·과천·고양·교하·남양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의 비는 그사이에 갑자기 주룩주룩 많이 내려서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는데, 곧바로 햇볕이 내리쬘고 물이 빠져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모두 논밭의 독은 터질 근심이 없고, 각종 곡식은 무성하고 잘 여물어가니 경기도 내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0. 1784년(정조 8) 6월 17일(양력 8월 2일)

畿營狀啓謄錄 6책(5442~545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9a~229a)

承政院開坼

道內各邑雨澤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近邑所報, 則今月十七日子丑時, 始雨, 霏灑, 衿川·安山兩邑, 得一犁, 高陽·陽川·果川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自今日丑時, 至巳時水深, 爲一寸七分,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자시·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렸는데, 금천·안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양·양천·과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의 경우, 오늘 축시부터 사시까지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81. 1784년(정조 8) 6월 18일(양력 8월 3일)

畿營狀啓臚錄 6책(5451~5452) /各司臚錄 1, 畿營狀啓臚錄 6책(229a~229b)

承政院開圻

衿川等邑雨澤形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十七日之雨, 仁川·富平·金浦·抱川等四邑, 川渠漲溢, 坡州·利川·楊州·南陽·永宗等五邑鎮, 得一犁, 龍仁·通津·水原·廣州·交河等五邑, 得一鋤是白遣, 農形段, 野邑早稻已多發穗, 早黍粟方張胚胎, 木花爛熳起花, 中稻·黍·粟·豆太已盡三除, 晚付種早移秧, 已畢再除, 峽邑早稻·黍·粟已多胚胎, 木花間多起花, 中稻·黍·粟·豆太今方三除, 晚移畚根耕田, 毋論峽野, 初除已畢, 間始再除是如爲白有臥乎所, 日候風氣, 一向調順, 夜晝之雨曝, 朝午之涼熱, 田畚各穀, 無不善成, 言念民事, 不勝喜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금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17일의 비로 인천·부평·김포·포천 등 4개 고을은 시내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파주·이천·양주·남양·영종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용인·통진·수원·광주·교하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들판 고을의 올벼는 이미 많이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묵화는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고, 중벼·기장·조·콩·팥은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게 씨앗을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한 것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산골 고을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이삭을 많이 났고, 묵화는 그사이에 많이 꽃이 피었고, 중벼·기장·조·콩·팥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한 논과 그루같이한 밭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는데 그사이에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씨와 바람이 줄곧 순조롭고,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쬘고,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뜨거워 잘 여물지 않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2. 1784년(정조 8) 6월 19일(양력 8월 4일)

畿營狀啓謄錄 6책(5452~546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29b~229c)

承政院開坼

道內各邑雨澤及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今月十九日丑·寅時始雨，果川·陽川·安山·高陽·富平等五邑，俱得一鋤是如爲白遣，臣營測雨器，自昨日戌時，至今日辰時，水深爲五分是白乎等以，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축시·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과천·양천·안산·고양·부평 등 5개 고을은 모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의 경우, 어제 술시부터 오늘 진시까지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3. 1784년(정조 8) 6월 26일(양력 8월 11일)

畿營狀啓臚錄 6책(5462~5471) /各司臚錄 1, 畿營狀啓臚錄 6책(229d~230a)

承政院開圻

道內各邑農形, 已爲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農報, 則野邑段, 早稻已多結實向熟, 早黍粟今方入實, 中稻·黍·粟間多胚胎, 木花及豆太方張結穎是白遣, 峽邑段, 早稻早黍粟已盡發穗, 中稻·黍·粟已盡三除, 間始發穗, 木花及豆太方張起花, 晚移畝根耕田, 毋論峽野, 已盡再除草, 漸向茁茂是如, 列邑所報, 一辭同然是白在如中, 東風彌日連吹, 晝宵不止者, 已五·六日矣. 方當各穀胚胎發穗之時, 其爲憂慮, 不啻萬萬是白乎矣, 詢及守宰, 姑無顯著被損. 且參報牒, 亦無大段受害, 此與早餘有異, 雨水前已周洽之故, 莖穗不至被風乾枯, 繼此得雨, 自可無慮是如爲白乎等以, 風後一霽, 今方顯祝爲白乎旆, 災害有無深淺, 更爲遍問於諸邑, 待其有報, 卽當陳聞計料,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상황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농사 보고를 접수해 보니, 들판 고을의 올벼는 이미 열매를 많이 맺어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중벼·기장·조는 그사이에 이삭을 많이 맺고, 목화 및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습니다. 산골 고을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었는데, 그사이에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 및 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늦게 모내기한 논과 그루같이한 밭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점점 싹이 자라 무성해진다고 하며 여러 고을의 보고는 하나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날씨와 바람이 줄곧 순조롭고,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고,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뜨거워 잘 여물지 않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동풍이 하루 종일 연이어 불며 밤낮으로 그치지 않은 지 이미 5·6일인데, 바야흐로 각종 곡식이 알을 배거나 이삭이 패는 시기여서 매우 우려될 뿐만이 아니어서 수령들에게 물었더니 아직 뚜렷한 피해는 없고, 또 문서 보고를 참작하면 또한 대단한 피해도 없는데, 이는 가뭄 끝과 차이가

있고, 빗물이 앞서 이미 두루 흡족하였기 때문에, 줄기와 이삭이 바람을 맞아 바싹 마르기에는 이르지 않았고, 이에 이어서 비가 내려서 염려 없다고 할 만하다고 합니다. 바람 뒤에 한차례 비를 퍼붓기를 지금 바야흐로 우러러 빕니다. 재해의 유무와 정도는 다시 여러 고을에 두루 물어서 보고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4. 1784년(정조 8) 6월 27일(양력 8월 12일)

畿營狀啓臚錄 6책(5472~5481) /各司臚錄 1, 畿營狀啓臚錄 6책(230a~230b)

承政院開圻

道內各邑農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東風以後各穀之被災有無, 躬審馳報之意, 關飭列邑爲白有在乎, 卽接陽川·衿川·果川·高陽·交河·長湍·金浦·通津·富平·楊州·安城·永平等邑所報, 則自今二十一日以來, 東風一直連吹, 尙今不止. 正當各穀發穗之時, 不無披靡受傷之慮是乎乃, 入實之早稻, 未穗之晚穀, 別無爲害之端, 而至於發穗之中稻·黍·粟, 起花之豆太, 果有含縮不發之患是乎矣, 連被雨澤, 各穀膏潤, 故姑不至大段被損. 數日之中, 若得一霽, 則可免傷損是如爲白有臥乎所, 今以各邑所報觀之, 田畝各穀, 既不大段受傷, 風氣稍定, 雨意且濃, 及今一霽, 方切願祝,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경기도 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동풍이 분 이후 각종 곡식의 피해 유무를 몸소 살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양천·금천·과천·고양·교하·장단·김포·통진·부평·양주·안성·영평 등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21일 이후로 동풍이 줄곧 연이어 불며 아직도 그치지 않는데, 각종 곡식의 이삭이 패는 시기를 맞아 쓰러지고 손상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알이 든 올벼와 이삭이 패지 않은 늦곡은 손상될 단서가 별로 없고, 이삭이 팼 중벼·기장·조와 꽃이 핀 콩·팥의 경우 정말로 움츠리고 패지 않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우택을 맞아 각종 곡식은 반짝반짝 윤기가 나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만약 비가 한차례 퍼붓는다면 손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각 고을의 보고로 보자면, 논밭의 각종 곡식은 이미 손상이 대단하지 않고, 바람이 조금 안정되며 비올 조짐이 또 짙으니, 지금에 이르러 한차례 퍼붓기를 우러러 빕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5. 1784년(정조 8) 6월 28일(양력 8월 13일)

畿營狀啓謄錄 6책(5481~5481) /各司謄錄 1, 畿營狀啓謄錄 6책(230b~230b)

承政院開坼

陽川等邑風後農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自今日丑時, 反風下雨, 辰時至. 臣營測雨器水深爲二分是白遣, 見方雨意漸緊, 可期均霑, 屢日被風之餘, 田畝各穀, 舉將蘇潤, 快免損害, 目下民事, 萬萬幸甚是白乎旆, 列邑形止, 待其有報, 隨即登聞計料, 緣由爲先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양천 등 고을에 바람이 분 뒤 농사 상황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축시부터 반대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올 조짐이 점점 다급하니 고루 적시기를 기대할 수 있고, 여러 날 바람을 맞은 끝에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윤기가 되살아날 것이고, 말끔하게 손해에서 벗어날 것이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하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86. 1784년(정조 8) 6월 30일(양력 8월 15일)

畿營狀啓臚錄 6책(5481~5491) /各司臚錄 1, 畿營狀啓臚錄 6책(230b~230d)

承政院開圻

衿川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八日之雨, 抱川·永平·麻田·積城等四邑段, 川渠漲流, 仁川·南陽·水原·振威·陽城·安城·陽智·龍仁·利川·坡州·長湍·豐德·喬桐·永宗等十二邑鎮段, 得一犁, 漣川·朔寧·加平·楊根·砥平·呂州·竹山·陰竹等八邑段, 得一鋤. 衿川·果川·安山段, 二十八日得一犁之後, 同日辰巳時, 更爲始雨, 二十九日卯辰時至, 川渠漲流, 陽川·金浦·通津·富平·高陽·交河·廣州·楊州等八邑段, 亦於二十九日寅卯時, 又得一犁, 而高低均洽, 多寡適中, 被風各穀, 舉得蘇潤之澤, 快免受損之患, 民事萬幸是如, 報來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毋論峽野田畝, 及時均洽, 風不爲災, 旋即開霽, 日漸成就, 慰滿民望, 不勝忭幸, 緣由馳啓云云.

승정원 열람

금천 등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8일의 비로 포천·영평·마전·적성 등 4개 고을의 경우, 시내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인천·남양·수원·진위·양성·안성·양지·용인·이천·파주·장단·풍덕·교동·영종 등 고을과 군영의 경우, 1려가 내렸고, 연천·삭녕·가평·양근·지평·여주·죽산·음죽 등 8개 고을의 경우, 1서가 내렸고, 금천·과천·안산의 경우 28일에 1려가 내린 뒤 같은 날 진시·사시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9일 묘시·진시에 이르렀는데, 시내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양천·김포·통진·부평·고양·교하·광주·양주 등 8개 고을의 경우, 또한 29일 인사·묘시에 또 1려가 내렸는데, 높고 낮은 곳이 고루 흡족하고, 양은 적당하니, 바람을 맞은 각종 곡식은 대부분 우택으로 윤기가 되살아나고 손상될 근심에서 말끔하게 벗어나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이라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의 비로 논밭은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때맞춰 고루 흡족하고 바람이 재해가 되지 않고 곧바로 개이고, 날로 점점 여물어가니 백성들의 바람을 위로하며 가득 채워 주니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7. 1861년(철종 12) 5월 2일(양력 6월 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5b~1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8a~588b)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今月初一日酉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卯時量, 〈乃止〉, 所得爲二犁許, 而農形段, 秋粳舉皆向熟, 春粳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 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皆耕播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려 가량이었고,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8. 1861년(철종 12) 5월 4일(양력 6월 1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6a~1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8b~588c)

啓

本府雨澤, 今月初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尹周鎮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或雲陰是如可, 至初三日寅時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2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초3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9. 1861년(철종 12) 5월 12일(양력 6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6a~1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8c~588c)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境內各處秋麴, 方張刈取, 春麴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有水根洞畚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윤주진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임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0. 1861년(철종 12) 5월 15일(양력 6월 22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6b~1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8c~588c)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今月十二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辰時量〈乃止〉, 所得爲二犁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一寸九分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진시쯤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라고 합니다.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1. 1861년(철종 12) 5월 17일(양력 6월 2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6b~1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8c~588d)

啓

本府雨澤, 今月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一寸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尹周鎮牒報, 則伊日辰時以後, 連爲霏灑, 至十六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4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6일 사시쯤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2. 1861년(철종 12) 5월 20일(양력 6월 2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7a~1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8d~588d)

啓

本府雨澤, 今月十六日巳時至, 測雨器水深一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尹周鎮牒呈, 則伊日巳時以後, 連爲陰雲是如可, 自十七日卯時量, 更爲霏灑, 至十九日寅時量, 開霽. 其間所得爲三犁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6일 사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사시 이후 연이어 먹구름이 끼다가 17일 묘시쯤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인시쯤 개었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3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보고합니다.

0093. 1861년(철종 12) 5월 23일(양력 6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7b~17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9a~589b)

啓

即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今月二十一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卯時量, 〈乃止〉, 所得爲二犁一鋤許. 農形段, 秋粃幾盡刈取, 春粃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今始初除草, 根耕豆太, 方始耕播, 先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如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려나 1서가량이었으며,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둬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푸르고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라고 합니다.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4. 1861년(철종 12) 5월 26일(양력 7월 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7b~18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89b~589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二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尹周鎮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二十六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2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먹구름이 끼다가 26일 묘시쯤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5. 1861년(철종 12) 6월 3일(양력 7월 1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0a~20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0c~590c)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境內各處春粳已盡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日漸苗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고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6. 1861년(철종 12) 6월 9일(양력 7월 16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0b~20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0d~590d)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今月初六日未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掣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7. 1861년(철종 12) 6월 13일(양력 7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0b~20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0d~590d)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鎭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方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次第立苗, 移秧畝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은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가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8. 1861년(철종 12) 6월 22일(양력 7월 2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0b~21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0d~591a)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今月十九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一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四犁一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기도 더러 뿌리다가 2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1서가량이고,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4치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9. 1861년(철종 12) 6월 24일(양력 7월 3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1a~21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1a~591a)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一日卯時至, 測雨器水深四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尹周鎮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雲陰, 或霏灑, 至二十三日卯時量, 開霽. 其間所得, 爲二犁一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1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4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0. 1861년(철종 12) 6월 28일(양력 8월 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1a~21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1b~591b)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今月二十六日寅時量, 始雨, 或霪或灑, 至二十七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二犁一鋤許是如爲白遭,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1. 1861년(철종 12) 7월 3일(양력 8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2a~22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1c~591c)

啓

卽接本府判官尹周鎮牒呈, 則境內各處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方張三除草. 根耕豆太, 今始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윤주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은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가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2. 1861년(철종 12) 8월 13일(양력 9월 1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22b~23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92a~592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南輔牒呈, 則境內各處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棉今方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이남보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었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3. 1862년(철종 13) 3월 29일(양력 4월 2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38b~38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0b~600b)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八日丑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午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8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이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4. 1862년(철종 13) 4월 3일(양력 5월 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39a~3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0d~600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向青, 秋種兩耨日漸茁長, 早稻·黍·粟方張付種, 畚庫鋪役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절반 이상 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5. 1862년(철종 13) 4월 5일(양력 5월 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39b~3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0d~601a)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三日午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사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6. 1862년(철종 13) 4월 10일(양력 5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39b~40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1a~601a)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八日未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午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7. 1862년(철종 13) 4월 13일(양력 5월 1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0b~40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1c~601c)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春甦漸就茁長, 秋甦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鍤役幾盡了畢. 早豆太·木綿,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8. 1862년(철종 13) 4월 20일(양력 5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1b~41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2a~602a)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十八日酉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辰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반 달 18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라고 합니다.

0109. 1862년(철종 13) 4월 22일(양력 5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1b~41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2a~602a)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春粳今始胚胎, 秋粳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0. 1862년(철종 13) 5월 4일(양력 5월 3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2a~42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2b~602c)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一日午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三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農形段, 秋粃已盡發穗, 春粃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舉皆出土, 中稻·黍·粟, 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1. 1862년(철종 13) 5월 14일(양력 6월 1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2b~42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2c~602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 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2. 1862년(철종 13) 5월 19일(양력 6월 15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3b~43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3a~603b)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十八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3. 1862년(철종 13) 5월 24일(양력 6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4a~44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3c~603c)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秋麴方張刈取, 春麴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4. 1862년(철종 13) 6월 4일(양력 6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4a~4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3c~603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幾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今始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 而日旱太甚, 先移之秧, 間或萎枯, 後移之秧, 亦皆乾涸是如是白乎所, 見今雨意漠然, 民情遑汲. 言念穡事, 誠切悶然乙仍于, 本府祈雨祭, 不卜日, 以今初六日設行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날마다 가뭄이 매우 심하여 먼저 모내기한 것은 간혹 시들며 마르고 늦게 모내기한 것 또한 다 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현재 비올 조짐이 아득하고 백성들의 심정은 다급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본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초6일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5. 1862년(철종 13) 6월 8일(양력 7월 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4b~4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3d~603d)

啓

本府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六日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申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分是如爲白乎旆, 渴望之餘, 尙未普洽. 言念民事, 誠切悶然, 祈雨祭連爲虔誠設行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기우제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반 달 초6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푼이라고 합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이어서 아직 두루 흡족하지는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러워 기우제를 연이어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6. 1862년(철종 13) 6월 11일(양력 7월 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4b~45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3d~604a)

啓

本府祈雨祭連爲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十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卯時量, 所得爲三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是如爲白乎旆, 亢旱之餘, 得此甘霖. 言念民事, 誠切萬幸, 見今雨勢, 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祈雨祭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라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이며,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7. 1862년(철종 13) 6월 14일(양력 7월 1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5a~45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4a~604a)

啓

本府雨澤, 今月十一日卯時至, 測雨器水深三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鄭基命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十三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農形成, 春甞已盡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未移之秧, 今番雨後, 方張移插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1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모내기하지 못한 것은 이번에 비온 뒤 한창 옮겨 심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2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8. 1862년(철종 13) 6월 17일(양력 7월 1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5b~4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4a~604b)

啓

本府雨澤, 今月十三日卯時至, 水深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鄭基命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十六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爲四犁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3일 묘시까지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1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9. 1862년(철종 13) 6월 21일(양력 7월 1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5b~4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4b~604b)

啓

本府雨澤, 今月十六日巳時量至, 水深三寸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鄭基命牒呈, 則伊日卯時量以後, 或霏或灑, 至二十日卯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尺三寸一分是如爲白乎旃, 見今雨勢成霖, 川渠漲溢,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6일 사시쯤까지 수심이 3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쯤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자 3치 1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장마가 되는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
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0. 1862년(철종 13) 6월 24일(양력 7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5b~4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4b~604c)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日卯時量至, 水深一尺三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鄭基命牒呈, 則伊日卯時量以後, 或霏灑, 或雲陰是如可, 至二十三日卯時量, 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 而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先移之秧. 方張初除草,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0일 묘시쯤까지 수심이 1자 3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쯤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었는데,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가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고 윤기가 난다고 하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9치 2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1. 1862년(철종 13) 6월 28일(양력 7월 24일)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46b~46b) /各司牒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604d~604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五日辰時量, 始雨, 或霏灑, 或霏微是如可, 至二十七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五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더니 27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5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2. 1862년(철종 13) 7월 4일(양력 7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6b~4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5a~605a)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一日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辰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一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가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3. 1862년(철종 13) 7월 10일(양력 8월 5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7b~47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5b~605c)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五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四犁二鋤許, 臣營下(測雨)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4. 1862년(철종 13) 7월 14일(양력 8월 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8a~48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5d~605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穀,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方張三除草. 根耕豆太, 今始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5. 1862년(철종 13) 7월 23일(양력 8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8b~48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6a~606a)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一日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許. 農形段,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方張結顆, 早豆太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漸就茁長,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나고 있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6. 1862년(철종 13) 8월 5일(양력 8월 2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9a~49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6b~606b)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三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許. 農形段,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舉皆結顆,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7. 1862년(철종 13) 8월 11일(양력 9월 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9a~4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6c~606c)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八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十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8. 1862년(철종 13) 8월 15일(양력 9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9b~4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6c~606c)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十三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卯時量, 所得爲一犁一鋤許. 農形段,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間或摘取,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已盡開花,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됐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메밀은 이미 다 모두 꽃이 피었으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9. 1862년(철종 13) 8월 21일(양력 9월 1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9b~4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6c~606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十九日未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四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0. 1862년(철종 13) 8월 24일(양력 9월 1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49b~50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06d~606d)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一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 農形段,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晚稻·黍·粟, 已盡發穗, 木綿方張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根耕豆太, 今方成實. 木麥間或結實,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막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으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1. 1863년(철종 14) 3월 21일(양력 5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臚錄 1책(102b~102b) /各司臚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1책(626b~626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二十日丑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酉時量, 乃止. 其間所得, 洽爲一犁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흙죽하게 1려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2. 1863년(철종 14) 3월 14일(양력 5월 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2b~102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26a~626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向靑,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鋪役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절반 이상 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3. 1863년(철종 14) 3월 24일(양력 5월 1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3a~103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26c~626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春麴漸就茁長, 秋麴方張胚胎, 早稻·黍·粟, 舉皆付種, 畚庫鍤役垂畢, 早豆太·木綿,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고 있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4. 1863년(철종 14) 4월 1일(양력 5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3b~103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26d~626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去月三十日丑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今月初一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 洽爲一犁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흙죽하게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 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5. 1863년(철종 14) 4월 4일(양력 5월 21일)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103b~103b) /各司牒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626d~627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今始胚胎, 秋粳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6. 1863년(철종 14) 4월 27일(양력 6월 1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8a~108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29c~629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二十五日戌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7. 1863년(철종 14) 5월 1일(양력 6월 16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9a~109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0a~630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去月二十九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今月初一日寅時量, 所得, 洽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 而見今雨勢, 連爲霏微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待更報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흙족하게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인데,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린다고 합니다. 이후의 경위는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8. 1863년(철종 14) 5월 2일(양력 6월 1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9a~10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0a~630b)

啓

本府雨澤, 今月初一日寅時至, 水深二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永應牒呈, 則伊日寅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初二日巳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1일 인시까지 수심이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초2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9. 1863년(철종 14) 5월 5일(양력 6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09b~10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0b~630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方張刈取, 春麴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0. 1863년(철종 14) 5월 9일(양력 6월 2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0a~110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0c~630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初八日丑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午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1. 1863년(철종 14) 6월 15일(양력 7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3b~53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0d~631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十二日酉時量, 始雨, 或霖或灑, 至十四日卯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2. 1863년(철종 14) 6월 27일(양력 8월 1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4a~54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1b~631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豆太間或結穀,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3. 1863년(철종 14) 7월 5일(양력 8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4b~55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1c~631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初二日酉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四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4. 1863년(철종 14) 7월 7일(양력 8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5a~55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1d~631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方張結穎, 早豆太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 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5. 1863년(철종 14) 7월 8일(양력 8월 2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6a~5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2b~632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初七日戌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6. 1863년(철종 14) 7월 16일(양력 8월 2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6a~5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2b~632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根耕豆太, 方張結穀, 木麥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콩·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7. 1863년(철종 14) 7월 20일(양력 9월 2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6a~5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2c~632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十八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午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8. 1863년(철종 14) 7월 26일(양력 9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6b~5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2c~632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幾盡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콩·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9. 1863년(철종 14) 8월 6일(양력 9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56b~5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32d~632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晚稻·黍·粟, 已盡發穗, 木綿今始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根耕豆太, 今方成實, 木麥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지금 따서 거두기 시작하였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그루깎이한 콩·팥은 지금 막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0. 1864년(고종 1) 2월 26일(양력 4월 2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71a~71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0b~640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二十四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午時量, 所得爲一犁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見今雨勢, 連爲霏微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는데,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린다고 합니다.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1. 1864년(고종 1) 2월 27일(양력 4월 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71a~71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0c~640c)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五日午時至, 測雨器水深二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永應牒呈, 則伊日午時以後, 或霏或灑, 至二十七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5일 오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오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하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2. 1864년(고종 1) 3월 5일(양력 4월 1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71b~71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0d~640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膺牒呈, 則境內各處, 春粳間或出土, 秋種兩麥舉皆向青, 水根洞畝, 今方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간혹 짝이 땅 밖으로 나오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3. 1864년(고종 1) 3월 15일(양력 4월 20일)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72a~72a) /各司牒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640d~640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十三日未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卯時量, 所得爲三犁許, 而農形段, 春粃舉皆出土, 秋種兩麥, 日漸青潤, 畚廬方張鍤役是如爲白遭,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4. 1864년(고종 1) 3월 25일(양력 4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1a~111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1a~641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向靑,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耨鍾役, 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이 가래질은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5. 1864년(고종 1) 5월 23일(양력 6월 26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5a~115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3a~643b)

啓

本府農形, 前已連續登聞是白在果, 日旱太甚, 秧節漸愆, 民情日益渴悶乙仍于, 本府祈雨祭, 不卜日以今二十四日, 虔誠設行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아뢰었습니다. 날마다 가뭄이 매우 심하여 모내기철에 점점 어긋나니 백성들의 심정은 날이 갈수록 애타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23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6. 1864년(고종 1) 6월 4일(양력 7월 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5a~11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3b~643b)

啓

本府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初三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丑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乎所, 渴望之餘, 一犁之雨, 雖甚爲幸, 尙不普洽, 故祈雨祭連爲設行,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1려의 비는 비록 매우 다행이지만 아직 두루 흡족하지는 못하므로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겠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7. 1864년(고종 1) 6월 6일(양력 7월 9일)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116b~116b) /各司牒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643d~644a)

啓

本府祈雨祭, 連爲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初五日未時量, 始雨, 終夜滂沱, 至初六日午時量, 所得不可鋤犁論. 川渠漲滿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露, 言念民事, 誠切萬幸. 見今雨勢連霖,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祈雨祭仍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에서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한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콕콕 쏟아지면서 초6일 오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는 따질 수 없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기우제는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8. 1864년(고종 1) 6월 7일(양력 7월 1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7a~11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4b~644b)

啓

本府雨澤, 今月初六日午時至, 三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永應牒呈, 則伊日午時以後, 或霏或灑, 或雲陰, 至初七日辰時量, 乃止.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이 이번 달 초6일 오시까지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오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초7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9. 1864년(고종 1) 6월 6일(양력 7월 9일)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116b~116b) /各司牒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牒錄 1책(643d~644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甿已盡刈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 根耕豆太, 間或出土, 而日前一犁之雨, 未足沃渴, 圭壁連舉, 尙靳靄然, 先移之秧, 間或萎枯. 未移之處, 亦皆乾涸是白如乎, 言念穡事, 誠切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간혹 짝이 땅 밖으로 나오는데, 며칠 전 1려의 비는 갈증을 적시기에 부족하여 기우제를 연이어 거행하였는데 아직 세차게 내리지 않아 먼저 모내기한 곳은 간혹 시들어 마르고 모내기하지 못한 곳 또한 다 바짝 말랐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0. 1864년(고종 1) 6월 12일(양력 7월 15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7a~11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4b~644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初十日午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二日辰時量, 所得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인데,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립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1. 1864년(고종 1) 6월 15일(양력 7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7b~117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4c~644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2. 1864년(고종 1) 7월 16일(양력 8월 1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18b~118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5a~645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方張結穎, 早豆太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方開花, 木麥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콩·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막 꽃이 피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3. 1864년(고종 1) 9월 13일(양력 10월 1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123b~123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1책(647c~647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應牒呈, 則今月十二日夜,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4. 1865년(고종 2) 5월 15일(양력 6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臚錄 2책(5b~5b) /各司臚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2책(655d~655d)

啓

卽接本府判官李恒翼牒呈, 則境內各處, 秋甞舉皆向熟, 春甞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 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皆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항익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5. 1865년(고종 2) 6월 15일(양력 8월 6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b~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55d~656a)

啓

卽接本府判官李恒翼牒呈, 則今月十三日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辰時量, 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항익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6. 1867년(고종 4) 3월 15일(양력 4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25b~2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66a~666b)

啓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十三日亥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未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7. 1868년(고종 5) 3월 20일(양력 4월 12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3b~53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2a~682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十九日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8. 1868년(고종 5) 3월 23일(양력 4월 15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3b~53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2a~682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二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69. 1868년(고종 5) 3월 27일(양력 4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1b~51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0d~681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七日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卯時量, 開霽. 其間所得, 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묘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0. 1868년(고종 5) 4월 3일(양력 4월 25일)

廣州府留營狀啓臚錄 2책(54a~54a) /各司臚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2책(682a~682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二日丑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三日卯時量, 所得爲三
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八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
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1. 1868년(고종 5) 4월 5일(양력 4월 2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4b~5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2c~682c)

啓

本府雨澤, 今月初三日卯時至, 二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柳承根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初四日戌時量, 開霽. 其間所得, 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이 이번 달 초3일 묘시까지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 어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술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2. 1868년(고종 5) 4월 7일(양력 4월 2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4b~5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2c~682d)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春麴舉皆向青, 秋種兩麥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鋪役, 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이 가래질은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3. 1868년(고종 5) 4월 8일(양력 4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5a~5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2d~683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十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4. 1868년(고종 5) 4월 27일(양력 5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5b~5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a~683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春耨今始胚胎, 秋耨次第發穗, 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5. 1868년(고종 5) 윤4월 3일(양력 5월 2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5b~5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a~683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二日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三日辰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6. 1868년(고종 5) 윤4월 8일(양력 5월 2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5b~5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a~683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舉皆出土, 中稻·黍·粟, 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7. 1868년(고종 5) 윤4월 11일(양력 6월 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6a~5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b~683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十日未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巳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8. 1868년(고종 5) 윤4월 15일(양력 6월 5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6a~56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b~683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十四日未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犁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9. 1868년(고종 5) 윤4월 18일(양력 6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6a~5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b~683c)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 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皆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0. 1868년(고종 5) 윤4월 19일(양력 6월 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6b~5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c~683c)

本府雨澤, 今月十七日辰時至, 所得測雨器水深爲二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柳承根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 或雲陰是如可, 至十八日辰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7일 진시까지 내린 것이 측우기 수심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1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1. 1868년(고종 5) 윤4월 23일(양력 6월 1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6b~56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c~683d)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二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2. 1868년(고종 5) 윤4월 26일(양력 6월 16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7a~5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d~683d)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四日酉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卯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六分是如爲白遭,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3. 1868년(고종 5) 윤4월 29일(양력 6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7a~5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3d~683d)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柳承根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微, 或雲陰是如可, 至二十八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6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4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2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4. 1868년(고종 5) 5월 5일(양력 6월 24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7a~57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a~684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三日亥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五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三掣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5. 1868년(고종 5) 5월 9일(양력 6월 2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9a~59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d~684d)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秋粃已盡刈取, 春粃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今始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6. 1868년(고종 5) 5월 19일(양력 7월 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7b~58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b~684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春甦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再除草,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뒤에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7. 1868년(고종 5) 5월 22일(양력 7월 1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8a~58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b~684c)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一日酉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寅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8. 1868년(고종 5) 5월 24일(양력 7월 13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8a~58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c~684c)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二日亥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辰時量, 乃止. 其所得爲, 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89. 1868년(고종 5) 5월 29일(양력 7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8b~58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c~684c)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畝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0. 1868년(고종 5) 6월 2일(양력 7월 2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8b~58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c~684d)

啓

本府雨澤, 去月二十九日辰時至, 水深爲五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柳承根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或灑, 至今月初二日卯時量, 所得爲二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一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成霖, 雲陰四低, 雨意尙濃,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지난달 29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2일 묘시쯤까지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장마가 되고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올 조짐이 아직 짙은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대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1. 1868년(고종 5) 6월 9일(양력 7월 2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9a~5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4d~685a)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2. 1868년(고종 5) 6월 17일(양력 8월 5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9b~5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5a~685a)

啓

本府雨澤, 今月初二日卯時至, 水深二寸一分, 而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柳承根牒呈, 則伊日以後, 或霏或灑, 或霏微, 或雲陰是如可, 至今月十六日午時量, 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尺七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2일 묘시까지 수심이 2치 1푼인 것과 이후의 경위는 말씀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고,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이번 달 16일 오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자 7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3. 1868년(고종 5) 6월 19일(양력 8월 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59b~59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5a~685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殼,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4. 1868년(고종 5) 6월 29일(양력 8월 17일)

廣州府留營狀啓牒錄 2책(59b~60a) /各司牒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牒錄 2책(685b~685b)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七日子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八日辰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 而農形段,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方張結顆,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5. 1868년(고종 5) 7월 2일(양력 8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0a~60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5c~685c)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一日子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三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6. 1868년(고종 5) 7월 10일(양력 8월 2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0b~61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85d~685d)

啓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八日子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寅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 而農形段,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7푼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7. 1869년(고종 6) 3월 8일(양력 4월 19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77b~78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5c~695d)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今月初七日子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卯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鋤許. 農形段, 春粳舉皆出土, 秋種兩麥, 日漸青潤, 畚庫方張鍤役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8. 1869년(고종 6) 3월 18일(양력 4월 29일)

廣州府留營狀啓臚錄 2책(81a~81a) /各司臚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2책(697a~697b)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今月十七日卯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寅時量, 開霽, 其間所得, 爲二犁二鋤許. 農形段, 春耨舉皆向青,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鹿鍤役, 幾至過半, 而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인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이 가래질은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9. 1869년(고종 6) 5월 21일(양력 6월 30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4b~8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9a~699a)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今月二十日巳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一日辰時量, 所得爲四犁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七分, 而見今雨勢, 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0. 1869년(고종 6) 5월 19일(양력 6월 2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4a~8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8d~699a)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境內各處, 秋甦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今始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1. 1869년(고종 6) 5월 22일(양력 7월 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4b~84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9a~699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一日辰時量至, 所得測雨器水深三寸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權儀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或灑是如可, 至申時量, 乃止. 其間所得, 爲一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1일 진시쯤까지 내린 것은 측우기 수심이 3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라 하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2. 1869년(고종 6) 5월 28일(양력 7월 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5a~85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9b~699c)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二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瓘儀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微, 或雲陰是如可, 至二十七日申時量, 開霽. 其間所得, 爲一鋤許是白乎旆, 農形段, 春甦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 而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6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27일 신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나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3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3. 1869년(고종 6) 6월 10일(양력 7월 1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5a~8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9c~699c)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4. 1869년(고종 6) 6월 13일(양력 7월 21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5b~85b)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699c~699c)

啓

本府雨澤, 今月初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瓘儀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雲陰, 或霏灑, 至今月十二日卯時量, 所得爲三犁一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寸一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成霖,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이 이번 달 초8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고,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12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장마가 되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5. 1869년(고종 6) 6월 20일(양력 7월 28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6b~8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700b~700b)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6. 1869년(고종 6) 6월 30일(양력 8월 7일)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87a~87a) /各司謄錄 4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2책(700b~700c)

啓

卽接本府判官李瓘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穀,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관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7. 1870년(고종 7) 5월 11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3책(29b~2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5b~15b)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綺年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幾皆耕播是如爲白乎矣, 日旱太甚, 兩麥間多有乾枯者, 爲民事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이기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날마다 가뭄이 매우 심해 보리와 밀은 그사이에 바짝 마른 것이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8. 1870년(고종 7) 5월 18일(양력 6월 16일)

廣營啓錄 3책(29b~3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5b~15c)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綺年牒呈, 則今月十一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寅時量, 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是如是白乎所, 旱餘得此甘澍, 民事誠爲萬幸. 嗣後形止, 待更報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이기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라고 합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는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의 경위는 다시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9. 1870년(고종 7) 5월 19일(양력 6월 17일)

廣營啓錄 3책(30a~3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5c~15c)

啓

本府雨澤, 今月十八日寅時量, 測雨器水深一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兼任中軍李綺年牒呈, 則伊日寅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十九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五分是如爲白有臥乎所, 甘澍旋止, 未得周洽, 穡事極爲悶然, 祈雨祭連爲設行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8일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겸임 중군 이기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19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5푼이었다고 합니다. 단비가 곧바로 그쳐 두루 흡족하지 못하여 농사상 걱정스럽기 그지없어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0. 1870년(고종 7) 5월 24일(양력 6월 22일)

廣營啓錄 3책(30b~3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5d~16a)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三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四日卯時量, 所得爲二犁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是白乎所, 渴望之餘, 得此甘澍, 爲民事萬幸.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이라 하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단비가 내려 백성들의 상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1. 1870년(고종 7) 5월 21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3책(30a~3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5c~15d)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綺年牒呈, 則境內各處, 秋甦方張刈取, 春甦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間或立苗, 有水根洞畝先移之秧, 次第着根, 而日前雨後, 各穀皆有勃然之意. 繼此霽然, 方切顚望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이기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립니다. 며칠 전 비온 뒤 각종 곡식은 다 왕성한 조짐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세차게 내리기를 바야흐로 매우 간절히 바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2. 1870년(고종 7) 5월 26일(양력 6월 24일)

廣營啓錄 3책(31a~3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6a~16a)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四日卯時至, 測雨器水深一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連爲雲陰是如可, 二十五日亥時量, 更爲始雨, 至二十六日寅時量, 所得爲二犁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七分是白乎所, 雨意尙濃而猶未周洽, 祈雨祭連爲設行,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4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연이어 먹구름이 끼었다가 25일 해시쯤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7푼이었습니다. 비올 조짐이 아직 짙고 여전히 두루 흡족하지 못하여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3. 1870년(고종 7) 5월 28일(양력 6월 26일)

廣營啓錄 3책(31a~31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6a~16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六日寅時量至, 測雨器水深一寸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寅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二十八日卯時量, 所得爲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五分是白乎所, 連日所得, 恰過數犁, 雲陰周布, 雨意尙濃, 祈雨祭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6일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태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28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 하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5푼이었습니다. 연일 내린 것이 흠족하게 몇 려를 넘고, 먹구름이 두루 퍼졌으며 비올 조짐이 아직 짙으니,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4. 1870년(고종 7) 5월 30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3책(31a~3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6b~16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一寸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雲陰或霏灑是如可, 至三十日卯時量, 所得爲一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是白乎所, 嗣後形止, 待更報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8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거나 더러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30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였습니다. 이후의 경위는 다시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5. 1870년(고종 7) 6월 1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3책(31b~3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6b~16c)

啓

本府雨澤, 去月三十日卯時至, 測雨器水深一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未時量, 一陣驟雨急霑, 所得爲二鋤許, 其後或雲陰或霑灑, 至今月初一日卯時量, 所得又爲二鋤許, 而農形段, 秋麴已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再除草, 中稻黍粟初除草已畢, 晚稻黍粟今始初除草, 根耕豆太方張耕播, 先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지난달 30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미시쯤에 한바탕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렸는데,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그 뒤 더러 먹구름이 끼고 더러 비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6. 1870년(고종 7) 6월 11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3책(32a~3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6c~16d)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今方再除草, 晚稻黍粟初除草垂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日漸茁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7. 1870년(고종 7) 6월 21일(양력 7월 19일)

廣營啓錄 3책(32a~32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6d~16d)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一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再除草已畢, 晚稻黍粟再除草, 根耕豆太次第立苗, 移秧之畝方張除草, 而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8. 1870년(고종 7) 7월 2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3책(33a~3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7b~17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9. 1870년(고종 7) 7월 7일(양력 8월 3일)

廣營啓錄 3책(33b~3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7c~17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六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而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0. 1870년(고종 7) 7월 12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3책(33b~3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7c~17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1. 1870년(고종 7) 7월 26일(양력 8월 22일)

廣營啓錄 3책(34a~34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7d~18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四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卯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寸二分是如是白遣, 見今雨勢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가 없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2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2. 1870년(고종 7) 7월 22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3책(34a~3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7d~17d)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今方發穗, 木綿方張結穎, 早豆太間或結實, 中稻黍粟次第胚胎, 晚稻黍粟三除草已畢, 根耕豆太今始開花, 木麥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팍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팍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3. 1870년(고종 7) 7월 28일(양력 8월 24일)

廣營啓錄 3책(34a~3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8a~18a)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五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五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二十七日卯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五寸四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成霖,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5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가 없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4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장마가 되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4. 1870년(고종 7) 8월 2일(양력 8월 28일)

廣營啓錄 3책(34b~3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8a~18b)

啓

本府雨澤, 去月二十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五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灑或雲陰, 至今月初一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犁許, 而農形段, 早稻黍粟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間或發穗, 晚稻黍粟次第胚胎, 根耕豆太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지난달 27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이번 달 초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5. 1870년(고종 7) 8월 12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3책(35a~3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8c~18d)

啓

即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幾皆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今始向熟, 中稻黍粟已盡發穗, 晚稻黍粟方張發穗, 根耕豆太漸就結實, 木麥幾盡開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2서 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으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6. 1870년(고종 7) 8월 27일(양력 9월 22일)

廣營啓錄 3책(39a~3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20b~20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六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7. 1871년(고종 8) 2월 23일(양력 4월 12일)

廣營啓錄 3책(63b~6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2b~32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二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卯時量, 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8. 1871년(고종 8) 2월 21일(양력 4월 10일)

廣營啓錄 3책(63a~6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2b~32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甦已盡耕播, 秋種兩麥舉皆向青, 水根洞畚今方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을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9. 1871년(고종 8) 2월 24일(양력 4월 13일)

廣營啓錄 3책(63b~6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2c~32c)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二日卯時至, 所得測雨器水深〈爲〉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雲陰或霏灑, 至二十三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2일 묘시까지 내린 것은 측우기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고 더러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3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0. 1871년(고종 8) 3월 15일(양력 5월 4일)

廣營啓錄 3책(64b~6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3a~33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十二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1. 1871년(고종 8) 3월 11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3책(64b~6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3a~33a)

啓

即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舉皆向青, 秋種兩麥日漸茁長, 早稻黍粟方張付種, 畚庫鋪役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2. 1871년(고종 8) 3월 21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3책(65a~6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3b~33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甦漸就茁長, 秋甦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鍤役幾盡了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있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이 가래질은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3. 1871년(고종 8) 4월 2일(양력 5월 20일)

廣營啓錄 3책(67b~6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4b~34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今始胚胎, 秋粳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4. 1871년(고종 8) 4월 4일(양력 5월 22일)

廣營啓錄 3책(68b~68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35a~35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三日酉時量始雨, 或淫或灑, 至初四日丑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3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5. 1871년(고종 8) 4월 12일(양력 5월 30일)

廣營啓錄 3책(69a~6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35b~35b)

啓

即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6. 1871년(고종 8) 4월 22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3책(70a~7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6a~36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秋甦舉皆向熟, 春甦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幾皆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7. 1871년(고종 8) 5월 9일(양력 6월 26일)

廣營啓錄 3책(70b~7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6b~36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八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辰時量, 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如爲白遣, 見今雨勢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8. 1871년(고종 8) 5월 2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3책(70b~7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36a~36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方張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今始初除草, 晚稻黍粟間或立苗, 有水根洞畝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수근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9. 1871년(고종 8) 5월 11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3책(70b~7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6b~36c)

啓

本府雨澤, 今月初九日辰時至, 測雨器水深一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十一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而農形段, 秋麴已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再除草, 中稻黍粟初除草已畢, 晚稻黍粟今始初除草, 根耕豆太方張耕播, 先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9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태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1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형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0. 1871년(고종 8) 5월 13일(양력 6월 30일)

廣營啓錄 3책(71a~7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6c~36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十二日卯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十三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1려 1서기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1. 1871년(고종 8) 5월 22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3책(72a~7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6d~37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春麴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今方再除草, 晚稻黍粟初除草垂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日漸茁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팍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2. 1871년(고종 8) 6월 4일(양력 7월 21일)

廣營啓錄 3책(72b~72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7a~37b)

啓

節過初庚, 亢旱轉甚, 高燥之地, 尙多未移之秧, 雖已移者, 亦未免焦枯, 民情日益渴悶乙仍于, 本府祈雨祭, 不卜日以今初五日, 處誠設行之意, 發甘分付於本府判官李泰應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절기가 초복을 지났는데 오랜 가뭄은 갈수록 심하고, 높고 메마른 지역은 아직 모내기를 많이 못 했고, 비록 이미 모내기한 것 또한 타들어 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애타도록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이번 초5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지내라는 뜻으로 본부 판관 이태웅에게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3. 1871년(고종 8) 6월 2일(양력 7월 19일)

廣營啓錄 3책(72a~72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37a~37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再除草已畢, 晚稻黍粟再除草, 根耕豆太次第立苗, 移秧之畝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4. 1871년(고종 8) 6월 6일(양력 7월 23일)

廣營啓錄 3책(72b~72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37b~37b)

啓

本府祈雨祭設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五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六日寅時量, 所得爲三犁一鋤許, 而雨勢連爲霏微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九分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霖, 言念民事, 誠切萬幸,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旅, 祈雨祭觀勢設行之意題送,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1서가량인데,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린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절실하게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이며,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5. 1871년(고종 8) 6월 8일(양력 7월 25일)

廣營啓錄 3책(72b~7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7b~37c)

啓

本府雨澤, 今初六日寅時至, 水深二寸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寅時以後, 或霏或灑, 至初七日寅時量, 所得爲一犁一鋤許, 雨勢連爲霏微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六分是如是白乎等以, 祈雨祭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초6일 인시까지 수심이 2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고,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린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6푼이라고 하며,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6. 1871년(고종 8) 6월 9일(양력 7월 26일)

廣營啓錄 3책(73a~7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7c~37c)

啓

本府雨澤, 今月初七日寅時至, 水深一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以後, 或霏或灑, 至初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而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7일 인시까지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태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7. 1871년(고종 8) 6월 12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3책(73a~7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7c~37d)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8. 1871년(고종 8) 6월 22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3책(73b~7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7d~37d)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農形段,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初除草, 木麥間或出土, 而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49. 1871년(고종 8) 6월 29일(양력 8월 15일)

廣營啓錄 3책(73b~7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8a~38a)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八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丑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8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0. 1871년(고종 8) 7월 3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3책(74a~7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8a~38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一日辰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二日卯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一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成霖,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 따질 수 없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장마가 되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1. 1871년(고종 8) 7월 17일(양력 9월 1일)

廣營啓錄 3책(76a~7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9a~39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十六日辰時量始雨, 或霏灑或霏微是如可, 至亥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犁一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더니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2. 1871년(고종 8) 7월 18일(양력 9월 2일)

廣營啓錄 3책(76b~76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39b~39b)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十八日子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3. 1871년(고종 8) 8월 3일(양력 9월 17일)

廣營啓錄 3책(76b~7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39b~39c)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刈取, 中稻黍粟次第向熟, 木綿今方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晚稻黍粟幾盡發穗, 根耕豆太幾皆成實, 木麥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初一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 而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러로 따질 수 없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4. 1871년(고종 8) 8월 7일(양력 9월 21일)

廣營啓錄 3책(78b~7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0b~40b)

啓

本府雨澤, 今月初五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泰應牒呈, 則伊日寅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初七日申<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초5일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초7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5. 1871년(고종 8) 8월 28일(양력 10월 12일)

廣營啓錄 3책(81b~82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41c~41d)

啓

卽接本府判官李泰應牒呈, 則今月二十七日夜,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태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6. 1872년(고종 9) 3월 4일(양력 4월 11일)

廣營啓錄 3책(91b~9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6c~46c)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初三日寅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四日寅時量開霽, 其間所得爲三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인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3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7. 1872년(고종 9) 3월 2일(양력 4월 9일)

廣營啓錄 3책(91b~9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6c~46c)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春甦已盡耕播, 秋種兩麥舉皆向青, 水根洞畚今方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을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8. 1872년(고종 9) 3월 7일(양력 4월 14일)

廣營啓錄 3책(92a~9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6c~46d)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初六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9. 1872년(고종 9) 3월 17일(양력 4월 24일)

廣營啓錄 3책(94b~9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7d~47d)

啓

本府雨澤, 今月十五日卯時至, 所得測雨器水深五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成鼎鎬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十六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5일 묘시까지 내린 것은 측우기 수심이 5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0. 1872년(고종 9) 3월 22일(양력 4월 29일)

廣營啓錄 3책(94b~94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47d~48a)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二十一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二鋤許, 農形段, 春甦舉皆向青, 秋種兩麥日漸茁長, 早稻黍粟方張付種, 畚庫鍤役幾至過半, 而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1. 1872년(고종 9) 4월 13일(양력 5월 19일)

廣營啓錄 3책(96b~9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9a~49a)

啓

即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春粳今始胚胎, 秋種兩麥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2. 1872년(고종 9) 4월 23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3책(97a~9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9a~49b)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二十二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卯時量, 所得爲二犁許, 農形段, 秋麴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 而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一分是如爲白乎所, 見今雨勢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3. 1872년(고종 9) 4월 24일(양력 5월 30일)

廣營啓錄 3책(97a~9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49b~49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二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成鼎鎬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二十四日丑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3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4. 1872년(고종 9) 5월 11일(양력 6월 16일)

廣營啓錄 3책(98b~9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0a~50b)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初十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寅時量, 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如爲白遣, 見今雨勢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5. 1872년(고종 9) 5월 3일(양력 6월 8일)

廣營啓錄 3책(98b~9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0a~50a)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幾皆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6. 1872년(고종 9) 5월 26일(양력 7월 1일)

廣營啓錄 3책(99b~99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0c~50c)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二十四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7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7. 1872년(고종 9) 5월 23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3책(99a~9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0b~50c)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已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再除草, 中稻黍粟初除草已畢, 晚稻黍粟今始初除草, 根耕豆太方張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이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8. 1872년(고종 9) 5월 30일(양력 7월 5일)

廣營啓錄 3책(100a~10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0d~50d)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二十八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三十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3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69. 1872년(고종 9) 6월 5일(양력 7월 10일)

廣營啓錄 3책(100a~10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1a~51a)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初四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五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0. 1872년(고종 9) 6월 9일(양력 7월 14일)

廣營啓錄 3책(100b~10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1a~51a)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初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1. 1872년(고종 9) 6월 13일(양력 7월 18일)

廣營啓錄 3책(101a~10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1b~51b)

啓

即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十一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一鋤許, 而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再除草已畢, 晚稻黍粟再除草, 根耕豆太次第立苗, 移秧之畝方張除草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2. 1872년(고종 9) 6월 23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3책(101b~101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1c~51d)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二十一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 而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3. 1872년(고종 9) 7월 4일(양력 8월 7일)

廣營啓錄 3책(101b~10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1d~51d)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팍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 콩·팍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4. 1872년(고종 9) 7월 15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3책(102a~10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2a~52a)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十三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卯時量, 所得爲四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六分是如是白遣, 見今雨勢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5. 1872년(고종 9) 7월 24일(양력 8월 27일)

廣營啓錄 3책(102b~10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2b~52b)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間或發穗, 晚稻黍粟次第胚胎, 根耕豆太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6. 1872년(고종 9) 8월 7일(양력 9월 9일)

廣營啓錄 3책(103b~10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2c~52d)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初六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7. 1872년(고종 9) 8월 4일(양력 9월 6일)

廣營啓錄 3책(103a~10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2c~52c)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幾皆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今始向熟, 中稻黍粟已盡發穗, 晚稻黍粟方張發穗, 根耕豆太漸就結實, 木麥幾盡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팍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8. 1872년(고종 9) 8월 25일(양력 9월 27일)

廣營啓錄 3책(103b~10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2d~52d)

啓

卽接本府判官成鼎鎬牒呈, 則今月二十四日夜,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성정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79. 1873년(고종 10) 2월 24일(양력 3월 22일)

廣營啓錄 3책(116a~116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9a~59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鼎淵牒呈, 則本府雨澤, 今月二十二日亥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二十三日午時量開霽,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김정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2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3일 오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0. 1873년(고종 10) 2월 22일(양력 3월 20일)

廣營啓錄 3책(116a~116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9a~59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鼎淵牒呈, 則本府境內, 浦野向陽田, 春甦間或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김정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지역 내 포구와 들판의 양지바른 밭의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1. 1873년(고종 10) 3월 9일(양력 4월 5일)

廣營啓錄 3책(116b~11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59b~59b)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初七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是如是白遭,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7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2. 1873년(고종 10) 3월 2일(양력 3월 29일)

廣營啓錄 3책(116a~116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59a~59b)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鼎淵牒呈, 則境內各處, 春耨方張耕播, 秋種兩麥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김정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3. 1873년(고종 10) 3월 12일(양력 4월 8일)

廣營啓錄 3책(118a~11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0a~60a)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境內各處, 春耨已盡耕播, 秋種兩麥舉皆向青, 水根洞畝方張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4. 1873년(고종 10) 3월 12일(양력 4월 8일)

廣營啓錄 3책(118a~11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0a~60a)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十一日亥時量始雨,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十二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1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2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5. 1873년(고종 10) 3월 19일(양력 4월 15일)

廣營啓錄 3책(119b~11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0d~60d)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則本府雨澤今月十七日子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八日午時量，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所，見今雨勢連爲霏微，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7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오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6. 1873년(고종 10) 3월 20일(양력 4월 16일)

廣營啓錄 3책(119b~119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60d~61a)

啓

本府雨澤, 今月十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一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趙熙奭牒呈, 則伊日午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二十日寅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8일 오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오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20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7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7. 1873년(고종 10) 3월 22일(양력 4월 18일)

廣營啓錄 3책(121b~12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1d~61d)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出土, 秋種兩麥次第青潤, 畚庫方張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8. 1873년(고종 10) 5월 8일(양력 6월 2일)

廣營啓錄 3책(124b~12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a~63a)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今月初六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辰時量, 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9. 1873년(고종 10) 5월 4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3책(124a~12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a~63a)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0. 1873년(고종 10) 5월 27일(양력 6월 21일)

廣營啓錄 3책(125a~12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b~63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四日辰時量至, 測雨器水深二寸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雲陰或霏微是如可, 至二十六日未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4일 진시쯤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6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1. 1873년(고종 10) 6월 2일(양력 6월 26일)

廣營啓錄 3책(125a~12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b~63c)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去月三十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是如可, 至今月初一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2. 1873년(고종 10) 6월 4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3책(125a~12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c~63c)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境內各處, 秋粃已盡刈取, 春粃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再除草, 中稻黍粟初除草已畢, 晚稻黍粟今始初除草, 根耕豆太方張耕播, 先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3. 1873년(고종 10) 6월 11일(양력 7월 5일)

廣營啓錄 3책(125b~125b) /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c~63d)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今月初九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十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4. 1873년(고종 10) 6월 14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3책(125b~12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3d~63d)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今月十一日申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十三日卯時量, 所得爲二犁一鋤許, 農形段, 春耨已盡刈取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今方再除草, 晚稻黍粟初除草垂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日漸茁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고 수확하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나 난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5. 1873년(고종 10) 6월 24일(양력 7월 18일)

廣營啓錄 3책(126b~12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4a~64b)

啓

即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今月二十一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卯時量, 所得爲一犁二鋤許, 而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再除草已畢, 晚稻黍粟再除草, 根耕豆太次第立苗, 先移之秧今方再除草, 後移之秧今始初除草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 而見今雨勢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차례로 싹이 트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6. 1873년(고종 10) 6월 29일(양력 7월 23일)

廣營啓錄 3책(127a~127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64c~64c)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趙熙奭牒呈, 則伊日以後,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二十六日未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又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3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6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1려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7. 1873년(고종 10) 윤6월 7일(양력 7월 30일)

廣營啓錄 3책(127b~12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4c~64d)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今月初四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六日辰時, 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 而見今雨勢, 尙此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8. 1873년(고종 10) 윤6월 15일(양력 8월 7일)

廣營啓錄 3책(127b~12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4d~64d)

啓

卽接本府判官趙熙奭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조희석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9. 1873년(고종 10) 윤6월 27일(양력 8월 19일)

廣營啓錄 3책(128a~12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4d~65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鼎淵牒呈, 則今月二十六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김정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0. 1873년(고종 10) 7월 8일(양력 8월 30일)

廣營啓錄 3책(129b~13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5d~65d)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今月初二日丑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四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白乎旆, 農形段, 境內各處, 早稻黍粟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間或發穗, 晚稻黍粟次第胚胎, 根耕豆太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며,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1. 1873년(고종 10) 7월 14일(양력 9월 5일)

廣營啓錄 3책(130a~13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5d~66a)

啓

即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今月十四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乎旂, 農形段, 早稻黍粟幾皆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今始向熟, 中稻黍粟已盡發穗, 晚稻黍粟方張發穗, 根耕豆太漸就結實, 木麥幾盡開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2. 1873년(고종 10) 7월 27일(양력 9월 18일)

廣營啓錄 3책(130b~13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66a~66b)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今月二十五日丑時量始雨, 或霪或灑, 至二十六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3. 1873년(고종 10) 7월 25일(양력 9월 16일)

廣營啓錄 3책(130a~13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66a~66a)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刈取, 中稻黍粟次第向熟, 木綿今方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晚稻黍粟幾盡發穗, 根耕豆太幾皆成實, 木麥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4. 1873년(고종 10) 9월 3일(양력 10월 23일)

廣營啓錄 3책(133b~13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67c~67c)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今月初二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5. 1874년(고종 11) 3월 18일(양력 5월 3일)

廣營啓錄 3책(154a~15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7c~77d)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十七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四犁許是如是白遭,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7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6. 1874년(고종 11) 3월 15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3책(153a~15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7a~77b)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向靑, 秋種兩麥日漸茁長, 早稻黍粟方張付種, 畚耨鋤役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7. 1874년(고종 11) 3월 22일(양력 5월 7일)

廣營啓錄 3책(155a~15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8b~78b)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今月二十一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라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8. 1874년(고종 11) 3월 25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3책(155a~155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78b~78b)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境內各處, 春甦漸就茁長, 秋甦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鍤役幾盡了畢, 早豆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09. 1874년(고종 11) 3월 28일(양력 5월 13일)

廣營啓錄 3책(155b~155b) /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8b~78c)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本府雨澤, 今月二十七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0. 1874년(고종 11) 4월 5일(양력 5월 20일)

廣營啓錄 3책(156b~156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78d~79a)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境內各處, 春甦今始胚胎, 秋甦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1. 1874년(고종 11) 4월 5일(양력 5월 20일)

廣營啓錄 3책(156b~15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8d~79a)

啓

卽接本府判官洪淳迥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初四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五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遭,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홍순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4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2. 1874년(고종 11) 4월 9일(양력 5월 24일)

廣營啓錄 3책(157a~15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9c~79c)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今月初八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卯時量, 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 而見今雨勢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고,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3. 1874년(고종 11) 4월 12일(양력 5월 27일)

廣營啓錄 3책(157b~15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79c~79c)

啓

本府雨澤, 今月初九日卯時至, 測雨器水深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雲陰或霏灑, 至十一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 又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9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본부 관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9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4. 1874년(고종 11) 4월 15일(양력 5월 30일)

廣營啓錄 3책(157b~157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79c~79d)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5. 1874년(고종 11) 4월 25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3책(158a~15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a~80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今月二十三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四日辰時量, 所得爲二鋤許, 而農形段,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幾皆耕播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 而見今雨勢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고,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6. 1874년(고종 11) 4월 25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3책(158b~158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80a~80b)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七分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灑或霏下, 至二十五日戌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4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본부 판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25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7. 1874년(고종 11) 5월 2일(양력 6월 15일)

廣營啓錄 3책(158b~15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b~80b)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去月二十九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今月初二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8. 1874년(고종 11) 5월 6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3책(159a~15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b~80c)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閔成鎬牒呈, 則今月初四日辰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五日辰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是白乎秌, 農形段, 秋麴方張刈取, 春麴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今始初除草, 晚稻黍粟間或立苗, 水根洞畚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寸七分, 而見今雨勢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민성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 따질 수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7푼이고,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9. 1874년(고종 11) 5월 13일(양력 6월 26일)

廣營啓錄 3책(159a~15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c~80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十二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0. 1874년(고종 11) 5월 16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3책(159b~15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d~80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幾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初除草已畢, 晚稻黍粟今始初除草, 根耕豆太方張耕播, 先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1. 1874년(고종 11) 5월 21일(양력 7월 4일)

廣營啓錄 3책(159b~15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d~80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十九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一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四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2. 1874년(고종 11) 5월 29일(양력 7월 12일)

廣營啓錄 3책(160a~16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1a~81a)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四日寅時量至, 所得爲二犁二鋤許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伊日以後, 或霏微或雲陰是白如可, 至二十八日寅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4일 인시까지 내린 것이 2려 2서가량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28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3. 1874년(고종 11) 5월 26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3책(159b~16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0d~81a)

啓

即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今方再除草, 晚稻黍粟初除草垂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日漸茁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짝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짝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4. 1874년(고종 11) 6월 19일(양력 8월 1일)

廣營啓錄 3책(162b~162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82c~82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十六日午時量始雨, 或淫或灑, 至十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6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5. 1874년(고종 11) 6월 16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3책(162b~162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2b~82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畝, 舉皆再除草, 根耕豆太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6. 1874년(고종 11) 6월 26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3책(163a~61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2d~82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二十四日卯時量始雨, 或霏下或霏灑, 至二十五日午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溢是乎旃, 農形段,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移秧畝三除草, 根耕豆太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尺四分是白乎所, 見今雨勢連爲霏灑,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25일 오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 따질 수 없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자 4푼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7. 1874년(고종 11) 7월 17일(양력 8월 28일)

廣營啓錄 3책(164b~16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3d~83d)

啓

即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間或發穗, 晚稻黍粟次第胚胎, 根耕豆太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8. 1874년(고종 11) 7월 27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3책(165b~16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4b~84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二十五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乎旃, 農形段, 早稻黍粟幾皆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今始向熟, 中稻黍粟已盡發穗, 晚稻黍粟方張發穗, 根耕豆太漸就結實, 木麥幾盡開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29. 1874년(고종 11) 8월 1일(양력 9월 11일)

廣營啓錄 3책(166a~16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4c~84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本府雨澤, 去月二十九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三十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3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0. 1874년(고종 11) 8월 7일(양력 9월 17일)

廣營啓錄 3책(166b~16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4d~84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初四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六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是乎秬, 農形段, 早稻黍粟方張刈取, 中稻黍粟次第向熟, 木綿今方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晚稻黍粟幾盡發穗, 根耕豆太幾盡成實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1. 1874년(고종 11) 9월 8일(양력 10월 17일)

廣營啓錄 3책(173b~17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88a~88a)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初七日夜,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2. 1875년(고종 12) 3월 16일(양력 4월 21일)

廣營啓錄 3책(189a~18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96b~96b)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十四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4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3. 1875년(고종 12) 3월 15일(양력 4월 20일)

廣營啓錄 3책(189a~18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96b~96b)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春麴舉皆出土, 秋種兩麥日漸青潤, 畚廩方張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4. 1875년(고종 12) 3월 25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3책(189b~189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96c~96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春麴舉皆向青, 秋種兩麥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耨鋤役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5. 1875년(고종 12) 4월 25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3책(195a~19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99b~99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二十三日酉時量始雨, 或霪或灑, 二十日戌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6. 1875년(고종 12) 4월 25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3책(195a~19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99c~99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本綿, 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7. 1875년(고종 12) 5월 10일(양력 6월 13일)

廣營啓錄 3책(195b~19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99c~99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初八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十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四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8. 1875년(고종 12) 5월 5일(양력 6월 8일)

廣營啓錄 3책(195a~195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99c~99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幾皆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9. 1875년(고종 12) 5월 22일(양력 6월 25일)

廣營啓錄 3책(196b~19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00c~100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二十二日子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0. 1875년(고종 12) 5월 16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3책(196a~19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00a~100b)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方張刈取, 春麴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今始初除草, 晚稻黍粟間或立苗, 水根洞畝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自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1. 1875년(고종 12) 6월 7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3책(197a~19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00c~100d)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春粳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今方再除草, 晚稻黍粟初除草垂葦[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日漸茁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짝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짝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2. 1875년(고종 12) 6월 17일(양력 7월 19일)

廣營啓錄 3책(197a~19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00d~101a)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再除草已畢, 晚稻黍粟再除草, 根耕豆太次第立苗, 移秧畝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3. 1875년(고종 12) 6월 24일(양력 7월 26일)

廣營啓錄 3책(197b~19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01a~101a)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二十一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四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4. 1875년(고종 12) 6월 27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3책(197a~197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3책(101a~101a)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黍粟及先移之秧, 舉皆再除草, 根耕豆太日漸茁長, 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먼저 모내기한 것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5. 1875년(고종 12) 6월 26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3책(199b~19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02a~102b)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今月十七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寸四分是白乎所, 見今雲陰四低, 雨意尙濃,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4푼이었습니다. 현재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있어 비올 조짐이 아직 짙은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6. 1875년(고종 12) 6월 27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3책(198b~19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3책(101c~101c)

啓

卽接本府判官金有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次第開花, 早豆太間或結殼, 中稻黍粟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移秧畚三除草, 根耕豆太初除草, 木麥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7. 1875년(고종 12) 7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1a~1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02c~102d)

啓

本府雨澤, 去月二十三日午時至, 測雨器水深三寸六分之由, 前留守臣李 已爲馳啓爲白有在
果. 連接判官金有鉉牒呈, 則伊日午時以後, 或雲陰或霏灑, 至今月初八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지난달 23일까지 측우기 수심은 6치 4푼인 연유는 전 유수 이우(李埶)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김유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오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8. 1875년(고종 12) 9월 일(양력 10월 일)

廣營啓錄 4책(2a~2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4책(103a~103a)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今月十四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9. 1876년(고종 13) 4월 일(양력 4월 일)

廣營啓錄 4책(6b~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6a~106a)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初一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戌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爲白遭,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1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0. 1876년(고종 13) 5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6b~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6a~106a)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境內各處, 秋粃已盡發穗, 春粃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 而一直亢旱, 枯損居多, 言念農務, 日益渴悶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땅 갈기를 시작하였는데, 줄곧 오랜 가뭄으로 대부분 말라서 손상되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날이 갈수록 애타게 걱정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1. 1876년(고종 13) 5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7a~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6b~106b)

啓

本府祈雨祭, 連爲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李錫應牒呈, 則今月十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二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是如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霖, 言念民事, 誠切萬幸是白乎等以, 祈雨祭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에서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이 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2. 1876년(고종 13) 5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7b~7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06b~106c)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今方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插之苗, 既多枯損, 未移之秧, 轉致節晚, 而雨澤尙闕, 民情遑汲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심은 모는 이미 다 말라서 손상됐고, 옮겨 심지 못한 모는 절기에 늦게 되었는데, 우택은 아직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다급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3. 1876년(고종 13) 6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8a~8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06d~107a)

啓

即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段, 在在未移者, 已過節矣. 僅僅已移者, 亦多乾矣. 四野龜坼, 衆移已致節晚, 民情遑汲, 誠極憂情, 魚喁憧憧憂悶, 愈往愈甚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석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의 경우 곳곳에서 옮겨 심지 못했는데 이미 절기가 지났고, 겨우겨우 이미 옮겨 심은 것도 또한 마른 것이 많습니다. 사방 들판이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많은 경우 옮겨 심기에는 이미 절기에 늦었으니, 백성들의 심정이 다급하니 정말로 그지없이 근심되는 마음이고, 물이 말라 물고기가 혈떡이듯 안타깝고 근심·걱정이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4. 1876년(고종 13) 6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8b~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7a~107a)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今月十六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辰時量, 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露, 言念民事, 誠切萬幸, 而見今雨勢, 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5. 1876년(고종 13) 6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8b~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7a~107b)

啓

本府雨澤, 今月十七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錫應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雲陰或霏灑, 至十九日卯時量, 所得爲二犁一鋤許, 而農形段, 早稻黍粟早豆·太·木綿及中稻黍粟, 平野低濕處, 間或胚胎, 高原乾燥處, 轉至萎枯, 而晚稻黍粟, 已致節晚, 耕播之木麥, 姑未出土, 根耕豆太, 尙未茁長是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露, 庶慰民情, 誠爲萬幸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7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석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고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중벼·기장·조는 평야의 낮고 축축한 곳에서는 간혹 알을 매고, 높고 메마른 곳에서는 시들어 말라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절기에 늦었고,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 메밀은 아직 싹이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아직 싹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백성들의 심정을 위로할 듯하니, 정말로 매우 다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6. 1876년(고종 13) 6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9a~9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4책(107b~107b)

啓

本府雨澤, 今月十九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二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錫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二十日卯時量, 川渠漲流, 所得不可但以鋤犁論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五寸二分, 而見今雨勢, 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9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석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쯤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내린 것은 다만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5치 2푼이었는데,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7. 1876년(고종 13) 6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9a~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07c~107c)

啓

即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間或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今方結實, 中稻黍粟次第胚胎. 晚稻段, 未移者已致節晚, 間多代播是乎所, 惟幸雨澤既洽, 農望稍慰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판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지금 막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의 경우 모내기하지 못한 것은 이미 절기에 늦어, 그사이 에 대신 씨앗을 뿌린 것이 많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우택이 이미 흠족하니 농사에 가망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8. 1876년(고종 13) 7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9b~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7d~107d)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今月初六日午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七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오시쯤 비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9. 1876년(고종 13) 7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10a~10a) /各司膳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膳錄 4책(108a~108a)

啓

即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已盡發穗, 木綿舉皆成顆, 早豆太成實, 中稻黍粟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方張結顆, 木麥今始茁長, 而近因雨暘稍均, 民情庶慰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가 영글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지금 싹이 자라기 시작했으며, 요즈음 날씨가 조금 고름에 따라 백성들의 심정이 위로될 듯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0. 1876년(고종 13) 7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11a~11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08d~108d)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今月十九日未時量始雨, 或淫或灑, 至二十一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1. 1876년(고종 13) 7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11b~1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08d~108d)

啓

即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或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더러 열매가 다 영글었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2. 1876년(고종 13) 8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11b~11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08d~109a)

啓

卽接本府判官李錫應牒呈, 則今月十一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석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3. 1877년(고종 14) 2월 일(양력 3월 일)

廣營啓錄 4책(18a~18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2d~112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初六日卯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當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6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같은 날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4. 1877년(고종 14) 2월 일(양력 3월 일)

廣營啓錄 4책(18a~1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2d~112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方張耕播, 秋種兩麥, 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5. 1877년(고종 14) 2월 일(양력 4월 일)

廣營啓錄 4책(18a~1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3a~113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二十四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而農形段, 境內各處, 春甦, 已盡耕播, 秋種兩麥, 舉皆向青, 水根洞沓, 今方插役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 한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6. 1877년(고종 14) 3월 일(양력 4월 일)

廣營啓錄 4책(18b~18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3b~113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三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亥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7. 1877년(고종 14) 3월 일(양력 4월 일)

廣營啓錄 4책(19a~1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3b~113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麴舉皆出土, 秋種兩麥稍益青潤, 畚庫方張插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조금 더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8. 1877년(고종 14) 3월 일(양력 4월 일)

廣營啓錄 4책(19a~1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3b~113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十一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未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9. 1877년(고종 14) 3월 일(양력 4월 일)

廣營啓錄 4책(19a~1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3c~113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甦舉皆向靑,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插役幾至過半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0. 1877년(고종 14) 3월 일(양력 5월 일)

廣營啓錄 4책(21a~2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4a~114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麤益就茁長, 秋麤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插役幾盡垂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더욱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1.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5월 일)

廣營啓錄 4책(21a~21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4b~114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去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霑, 至今月初一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2.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5월 일)

廣營啓錄 4책(21a~2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4b~114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麤, 今始胚胎, 秋麤, 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3.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2a~22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5a~115a)

啓

即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見方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현재 막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4.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2a~22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5a~115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二十四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5.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2b~22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5b~115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成熟, 春麴今方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다 성숙하였고, 봄보리는 지금 막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6.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2b~22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5b~115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二十七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戌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였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7.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2b~2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5c~115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秋麴間或刈取, 春麴舉皆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 先移之秧, 次第立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8. 1877년(고종 14) 4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3a~2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5c~115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二十九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9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79. 1877년(고종 14) 5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3b~2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6a~116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初十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二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五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10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5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0. 1877년(고종 14) 5월 일(양력 6월 일)

廣營啓錄 4책(23b~2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6a~116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獲,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秧苗之先移者茁長, 後移者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1. 1877년(고종 14) 6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25a~2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7a~117a)

啓

卽接本府判官金水稷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先移之秧, 方張再除草, 後移之秧, 今方初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2. 1877년(고종 14) 7월 일(양력 8월 일)

廣營啓錄 4책(25a~2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7a~117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三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五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3. 1877년(고종 14) 7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25b~2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7b~117b)

啓

即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幾〈盡〉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間或結實, 木麥幾皆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팍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간혹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4. 1877년(고종 14) 8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25b~25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7b~117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二日丑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三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5. 1877년(고종 14) 8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25b~2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7b~117c)

啓

即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九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乎秭, 農形段,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었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6. 1877년(고종 14) 8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26a~2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7c~117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十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7. 1877년(고종 14) 8월 일(양력 9월 일)

廣營啓錄 4책(26a~2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17d~117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十六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亥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8. 1877년(고종 14) 9월 일(양력 10월 일)

廣營啓錄 4책(26b~26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17d~117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七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9. 1878년(고종 15) 2월 23일(양력 3월 26일)

廣營啓錄 4책(33a~3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21a~121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二十二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0. 1878년(고종 15) 2월 19일(양력 3월 22일)

廣營啓錄 4책(32b~33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21a~121a)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本府境內浦野向陽田, 春甦間或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지역 내 포구와 들판의 양지바른 밭에는 봄보리를 간혹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1. 1878년(고종 15) 3월 18일(양력 4월 20일)

廣營啓錄 4책(34a~34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4책(121d~121d)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十六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午時量乃上[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6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2. 1878년(고종 15) 4월 9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4책(35a~3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22b~122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耨, 漸就茁長, 秋耨, 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畝庫鍾役幾盡垂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3. 1878년(고종 15) 5월 12일(양력 6월 12일)

廣營啓錄 4책(35b~3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22b~122b)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今月初十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鋤許是如<是>白遭.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4. 1878년(고종 15) 6월 11일(양력 7월 10일)

廣營啓錄 4책(35b~3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4책(122b~122c)

啓

卽接本府判官金永稷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영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5. 1884년(고종 21) 4월 5일(양력 4월 29일)

廣營啓錄 5책(5b~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6b~126b)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春甦舉皆向青,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粟, 方張付種, 畚庫插役, 幾盡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6. 1884년(고종 21) 4월 26일(양력 5월 20일)

廣營啓錄 5책(6a~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6c~126d)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四日午時至, 測雨器水深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周儀牒呈, 則伊日午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二十五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 又爲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4일 오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오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25일 사지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7. 1884년(고종 21) 5월 5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5책(6b~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6d~126d)

啓

即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今月初四日丑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本府農形段, 境內各處, 秋麩, 已盡發穗, 春麩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축시쯤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본부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8. 1884년(고종 21) 5월 15일(양력 6월 8일)

廣營啓錄 5책(6b~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7a~127a)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99. 1884년(고종 21) 5월 21일(양력 6월 14일)

廣營啓錄 5책(6b~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27a~127a)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今月二十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一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0. 1884년(고종 21) 윤5월 6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5책(7a~7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5책(127a~127b)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幾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始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1. 1884년(고종 21) 윤5월 16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5책(7a~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27b~127b)

啓

本府雨澤, 今月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周儀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十五日午時量開霽. 其間別無所得, 而農形段, 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4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었다가 15일 오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2. 1884년(고종 21) 윤5월 26일(양력 7월 18일)

廣營啓錄 5책(7b~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7b~127c)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3. 1884년(고종 21) 윤5월 28일(양력 7월 20일)

廣營啓錄 5책(7b~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7c~127c)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今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八日申時量乃至.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신시쯤에 이르렀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4. 1884년(고종 21) 6월 7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5책(7b~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27c~127d)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先移之秧,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먼저 모내기한 것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5. 1884년(고종 21) 6월 27일(양력 8월 17일)

廣營啓錄 5책(7b~8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27d~127d)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 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6. 1885년(고종 22) 2월 14일(양력 3월 30일)

廣營啓錄 5책(13b~1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31a~131b)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方張耕播, 秋種兩麥, 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7. 1885년(고종 22) 2월 29일(양력 4월 14일)

廣營啓錄 5책(12b~1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0d~130d)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今月二十七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8. 1885년(고종 22) 4월 16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5책(14b~1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2a~132a)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如[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09. 1885년(고종 22) 4월 19일(양력 6월 1일)

廣營啓錄 5책(15a~1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32a~132a)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今月十八日子時量始雨, 或霏或灑, 到當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五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5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4치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0. 1885년(고종 22) 5월 26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5책(15a~1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2b~132b)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1. 1885년(고종 22) 5월 27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5책(15a~1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2b~132c)

啓

本府雨澤，雖得數鋤之霑，而尙靳一霽，高燥之地，尙多未移之秧，已移者，亦未免焦枯，民情日益渴悶乙仍于，本府祈雨祭，不卜日以今二十八日，虔誠設行之意，發甘分付於本府判官李周儀處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비록 몇 서의 비로 적셨지만, 여전히 한차례 퍼붓는 비가 없어 높고 매마른 땅은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많고, 모내기한 것 또한 타들어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니, 백성들의 심정은 날로 더욱 애타게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본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28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을 관관 이주의에게 공문으로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2. 1885년(고종 22) 6월 4일(양력 7월 15일)

廣營啓錄 5책(15b~1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2c~132c)

啓

本府雨澤，去月二十九日卯時至，測雨器水深一寸二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然[連]接判官李周儀牒呈，則伊日辰時以後，或雲陰或霏灑，至今月初三日未時量，所得又爲三犁二鋤許是如[白]遣，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乎所，渴望之餘，得此甘露，言念穡事，誠切萬幸。本府祈雨祭，姑爲停止，嗣後形止，待快晴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지난달 29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3일 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3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본부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3. 1885년(고종 22) 6월 17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5책(15b~1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2c~132d)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先移之秧,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먼저 모내기한 것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4. 1885년(고종 22) 6월 27일(양력 8월 7일)

廣營啓錄 5책(15b~1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2d~132d)

啓

卽接本府判官李周儀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 次[晚]第開花, 早豆太, 間或結穀, 中稻黍,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 間或出土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주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5. 1886년(고종 23) 2월 26일(양력 3월 31일)

廣營啓錄 5책(25a~2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38a~138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燭牒呈, 則境內各處, 春甞, 方張耕播, 秋種兩麥, 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6. 1886년(고종 23) 3월 3일(양력 4월 6일)

廣營啓錄 5책(25b~2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8c~138c)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辰時量, 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7. 1886년(고종 23) 3월 3일(양력 4월 6일)

廣營啓錄 5책(26a~26a) /各司膳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膳錄 5책(138c~138d)

啓

本府雨澤, 今月初二日辰時量至, 水深爲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李承喜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初三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2일 진시쯤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초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미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8. 1886년(고종 23) 3월 9일(양력 4월 12일)

廣營啓錄 5책(26b~26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38d~139a)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七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9. 1886년(고종 23) 3월 17일(양력 4월 20일)

廣營啓錄 5책(26b~2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9a~139a)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春甦舉皆出土, 秋種兩麥, 日漸青潤, 畚庫方張挿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0. 1886년(고종 23) 3월 23일(양력 4월 26일)

廣營啓錄 5책(27a~2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9b~139b)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二十一日子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丑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였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1. 1886년(고종 23) 3월 27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5책(27a~2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39b~139c)

啓

即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春甦舉皆向青,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插役, 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2. 1886년(고종 23) 3월 30일(양력 5월 3일)

廣營啓錄 5책(27a~2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39c~139c)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二十七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3. 1886년(고종 23) 4월 7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5책(27b~2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0a~140a)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春耨漸就茁長, 秋耨方張胚胎, 早稻黍粟, 舉皆付種, 畚庫插役, 幾盡垂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4. 1886년(고종 23) 4월 15일(양력 5월 18일)

廣營啓錄 5책(28a~2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0b~140b)

啓

本府雨澤, 今月初九日未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十一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四犁一鋤許是白遣, 本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是白乎所, 留守臣金〈金允植〉, 一向廢務乙仍于, 臣替行封啓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9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본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였습니다. 유수 김윤식이 줄곧 업무를 보지 않기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5. 1886년(고종 23) 4월 17일(양력 5월 20일)

廣營啓錄 5책(28b~2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0d~140d)

啓

本府境內各處, 春甞, 今始胚胎, 秋甞, 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白乎所, 留守臣金〈金允植〉, 一向廢務乙仍于, 臣替行封啓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옵니다. 유수 김윤식이 줄곧 업무를 보지 않기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6. 1886년(고종 23) 4월 24일(양력 5월 27일)

廣營啓錄 5책(28b~2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0d~141a)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一日辰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 至二十三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
鋤許是白遣, 本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所, 留守臣金〈金允植〉, 謂以恩宥雖極惶感,
情蹤轉益悚凜, 一向廢務乙仍于, 臣替行封啓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
가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본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유수 김윤식이 “은혜로운
용서는 비록 그지없이 황송하고 감격스럽지만, 정황은 갈수록 더 두렵습니다.”라고 하면
서 줄곧 업무를 보지 않기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7. 1886년(고종 23) 4월 27일(양력 5월 30일)

廣營啓錄 5책(29a~2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41a~141a)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秋粃已盡發穗, 春粃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8. 1886년(고종 23) 5월 8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5책(29a~2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1b~141b)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秋麴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29. 1886년(고종 23) 5월 12일(양력 6월 13일)

廣營啓錄 5책(29b~2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1b~141b)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未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而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고, 유명 측우기 수심은 6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0. 1886년(고종 23) 5월 18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5책(29b~2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1b~141c)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十四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 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四分是乎旆, 農形段, 秋旌, 方張刈取, 春旌, 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고, 유명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1. 1886년(고종 23) 5월 23일(양력 6월 24일)

廣營啓錄 5책(29b~2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1c~141c)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二十一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 不可以犁鋤論, 而營下測雨器水深, 爲六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2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2. 1886년(고종 23) 5월 27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5책(29b~3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1c~141d)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二十四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辰時量, 所得不可但以鋤犁論,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九寸四分是乎所, 見今雲陰四低, 雨意尙濃, 嗣後形止, 待快晴馳報計料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 따질 수 없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9치 4푼이었습니다. 현재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올 조짐이 아직 짙은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긴급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3. 1886년(고종 23) 5월 28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5책(30a~30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41d~141d)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幾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4. 1886년(고종 23) 6월 2일(양력 7월 3일)

廣營啓錄 5책(30a~30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5책(141d~142a)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本府雨澤, 去月二十日辰時至, 測雨器水深九寸七分之由, 已爲馳報爲〈白〉有在果, 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去月三十日未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지난달 20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9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어 있다가 지난달 30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5. 1886년(고종 23) 6월 8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5책(30a~3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2a~142a)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陵,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6. 1886년(고종 23) 6월 10일(양력 7월 11일)

廣營啓錄 5책(30b~3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42b~142b)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八日已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九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 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7. 1886년(고종 23) 6월 15일(양력 7월 16일)

廣營啓錄 5책(30b~3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2b~142b)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十二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四日辰時量, 所得爲二犁二鋤許,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 見今雲陰四低, 雨意尙濃, 嗣後形止, 待快晴馳報計料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며, 현재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올 조짐이 아직 짙은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8. 1886년(고종 23) 6월 18일(양력 7월 19일)

廣營啓錄 5책(31a~3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2c~142c)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9. 1886년(고종 23) 6월 28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5책(31a~31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42c~142d)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本府雨澤, 今月二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二寸四分之由, 已爲馳報爲有在果, 伊日辰時以後,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二十七日未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又爲四犁一鋤許, 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九分是乎旆, 農形段, 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先移之秧,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4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진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7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4려 1서가량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먼저 모내기한 것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0. 1886년(고종 23) 7월 5일(양력 8월 4일)

廣營啓錄 5책(31a~3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2d~142d)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二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 不可但以鋤犁論, 營下測雨器水深, 爲六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러로 따질 수 없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1. 1886년(고종 23) 7월 9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5책(31b~3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2d~143a)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六日巳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初八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 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四分是乎脉, 農形段, 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 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殼,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고, 유명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팍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2. 1886년(고종 23) 7월 19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5책(32b~32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3c~143d)

啓

卽接廣州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十六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是乎旃, 農形段, 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3. 1886년(고종 23) 7월 29일(양력 8월 28일)

廣營啓錄 5책(33a~3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4b~144b)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二十五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八日丑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乎旂, 農形段,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 舉皆結顆,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 今始開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4. 1886년(고종 23) 8월 5일(양력 9월 2일)

廣營啓錄 5책(33b~3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44b~144c)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初一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였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5. 1886년(고종 23) 8월 10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5책(33b~3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4c~144c)

啓

即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 間或開花,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 幾盡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6. 1886년(고종 23) 8월 16일(양력 9월 13일)

廣營啓錄 5책(33b~3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44c~144c)

啓

卽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十三日申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十五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7. 1886년(고종 23) 8월 20일(양력 9월 17일)

廣營啓錄 5책(33b~3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44c~144d)

啓

即接本府判官李承喜牒呈, 則今月十七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農形段,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 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이승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었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8. 1887년(고종 24) 3월 17일(양력 4월 10일)

廣營啓錄 5책(42b~42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0c~150d)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燾牒呈, 則境內各處, 春耨, 已盡耕播, 秋種兩麥, 舉皆向青, 水根洞
畚, 今方插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을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9. 1887년(고종 24) 3월 19일(양력 4월 12일)

廣營啓錄 5책(42b~4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0d~150d)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燾牒呈, 則今月十七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0. 1887년(고종 24) 4월 8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5책(44b~4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2a~152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燾牒呈, 則境內各處, 春甦舉皆向青,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畝庫插役, 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1. 1887년(고종 24) 4월 8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5책(45a~4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2a~152b)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燾牒呈, 則今月初六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2. 1887년(고종 24) 4월 15일(양력 5월 7일)

廣營啓錄 5책(48b~4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4d~154d)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燾牒呈, 則今月十三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3. 1887년(고종 24) 4월 18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5책(49a~4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4d~155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燭牒呈, 則境內各處, 春粳漸就茁長, 秋粳, 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插役, 幾盡垂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4. 1887년(고종 24) 4월 28일(양력 5월 20일)

廣營啓錄 5책(49a~4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5a~155a)

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燾牒呈, 則境內各處, 春粃, 今始胚胎, 秋粃, 次第發穗, 早稻黍粟及
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허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
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5. 1887년(고종 24) 윤4월 18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5책(49b~4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5b~155b)

啓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6. 1887년(고종 24) 윤4월 19일(양력 6월 10일)

廣營啓錄 5책(49b~49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5b~155c)

啓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七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辰時量乃止. 其其[間]所得, 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7. 1887년(고종 24) 윤4월 25일(양력 6월 16일)

廣營啓錄 5책(49b~5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5c~155c)

啓

今月二十二日傳曰, 近嘆頗久, 將熟之麥, 未移之秧, 俱未免枯損, 言念民事, 其所憂悶, 一日爲急, 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命下教是白乎所, 本府段置, 祈雨祭不卜日以今二十六日設行之意, 發甘分付於本府判官朴世秉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이번 달 22일 임금님께서 전교하시기를, “요즘 가뭄이 자못 오래되어 장차 익을 보리나 옮겨 심지 못한 모는 모두 말라 손상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하루가 급하니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부에서도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26일에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부 판관 박세병에게 공문을 보내 분부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8. 1887년(고종 24) 윤4월 25일(양력 6월 16일)

廣營啓錄 5책(50a~5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5c~155d)

啓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二十三日未時量始雨, 或霏灑或霏微, 至二十四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3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더니 2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59. 1887년(고종 24) 윤4월 28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5책(50a~50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5d~155d)

啓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方張刈取, 春麴, 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0. 1887년(고종 24) 5월 9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5책(50a~5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5d~155d)

啓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幾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1. 1887년(고종 24) 5월 10일(양력 6월 30일)

廣營啓錄 5책(50a~5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5d~156a)

啓

本府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初九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乎所, 旱餘甘霈, 乍始旋止, 言念民事, 去益遑急乙仍于, 祈雨祭連爲虔誠設行之意, 甘飭於判官朴世秉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잠깐 시작했다가 곧바로 그쳤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매우 다급합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연이어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을 판관 박세병에게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2. 1887년(고종 24) 5월 19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5책(51a~5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6c~156d)

啓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七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辰時量, 所得爲三犁一鋤許, 農形段, 春耨,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稻, 未移之秧, 漸致節晚, 適值雨澤, 連爲移插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一分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霖,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祈雨祭姑爲停止爲白乎旃,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1서가량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벼와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것은 점점 절기에 늦어지는데, 마침 우택을 만나 연이어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3. 1887년(고종 24) 5월 21일(양력 7월 11일)

廣營啓錄 5책(51a~5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6d~156d)

啓

本府雨澤, 今月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三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灑或雲陰, 至二十日辰時量, 所得又爲三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八分是白乎所, 渴望之餘, 得此普洽, 言念民事, 誠切萬幸,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8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0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3려 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8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두루 흡족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4. 1887년(고종 24) 5월 23일(양력 7월 13일)

廣營啓錄 5책(51b~51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6d~157a)

啓

本府雨澤, 今月二十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二十三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0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5. 1887년(고종 24) 6월 2일(양력 7월 22일)

廣營啓錄 5책(52a~52a) /各司膳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膳錄 5책(157b~157c)

啓

卽接廣州府判官朴世秉牒呈, 則去月二十六日寅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今月初一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三犁二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是白遣, 本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三分是如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이번 달 초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6. 1887년(고종 24) 6월 9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5책(52a~5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7c~157c)

啓

卽接廣州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先移之秧,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먼저 모내기한 것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목화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7. 1887년(고종 24) 6월 18일(양력 8월 7일)

廣營啓錄 5책(53a~53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8a~158a)

啓

卽接廣州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五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未時量, 所得爲四犁二鋤許. 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二分,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馳報計料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 2서가쯤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며,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8. 1887년(고종 24) 6월 19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5책(53a~5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8a~158b)

啓

卽接廣州府判官朴世秉牒呈, 則本府雨澤, 今月十七日未時至, 測雨器水深四寸二分之由, 已爲馳報爲白有在果, 伊日未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十八日巳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乎旆, 農形段, 境內各處, 早稻黍粟方張胚胎, 木綿, 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殼,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7일 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4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8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9. 1887년(고종 24) 6월 25일(양력 8월 14일)

廣營啓錄 5책(53a~53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8b~158b)

啓

卽接廣州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二十四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광주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며,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0. 1887년(고종 24) 6월 29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5책(55a~5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8c~158d)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 至二十八日卯時量, 所得爲二犁許,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馳報計料爲旆, 農形段, 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8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이며,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1. 1887년(고종 24) 7월 3일(양력 8월 21일)

廣營啓錄 5책(55b~5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8d~159a)

本府雨澤, 去月二十八日卯時至, 水深一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今月初三日卯時量, 所得又爲四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九分是如是白乎所, 見今雨勢成霖,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지난달 28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3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4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장마가 되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씀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2. 1887년(고종 24) 7월 10일(양력 8월 28일)

廣營啓錄 5책(56a~5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9a~159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 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 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팍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3. 1887년(고종 24) 7월 15일(양력 9월 2일)

廣營啓錄 5책(56a~5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9b~159b)

本府雨澤, 今月初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九分, 而嗣後形止, 待快晴登聞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十四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3일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이었으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뢰겠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에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4. 1887년(고종 24) 7월 20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5책(56b~56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59b~159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 間或開花,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 幾盡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5. 1887년(고종 24) 7월 28일(양력 9월 15일)

廣營啓錄 5책(56b~5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9c~159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八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6. 1887년(고종 24) 8월 1일(양력 9월 17일)

廣營啓錄 5책(57a~5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59c~159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 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7. 1887년(고종 24) 9월 4일(양력 10월 20일)

廣營啓錄 5책(58a~58a) /各司膳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膳錄 5책(160a~160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初三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8. 1888년(고종 25) 3월 19일(양력 4월 29일)

廣營啓錄 5책(65a~6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4a~164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八日卯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 至十九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乎旆, 農形段, 境內各處, 春甦舉皆向青,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廩插役, 幾至過半是如是白遭,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9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9. 1888년(고종 25) 4월 9일(양력 5월 19일)

廣營啓錄 5책(65b~6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4a~164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春耨, 今始胚胎, 秋耨, 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0. 1888년(고종 25) 4월 19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5책(66a~6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4b~164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七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 而農形段, 秋麴, 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1. 1888년(고종 25) 4월 29일(양력 6월 8일)

廣營啓錄 5책(66a~6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4c~164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2. 1888년(고종 25) 5월 9일(양력 6월 18일)

廣營啓錄 5책(66b~67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5책(164d~164d)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方張刈取, 春麴, 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3. 1888년(고종 25) 5월 20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5책(67a~6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64d~165a)

日旱太甚, 秧節漸愆, 民情去益渴悶乙仍于, 本府祈雨祭, 不卜日以今六月初一日, 虔誠設行之意, 發甘分付於本府判官朴世秉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날로 가뭄이 매우 심하고 모내기철은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애타게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본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6월 초1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부 관관 박세병에게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4. 1888년(고종 25) 5월 29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5책(67a~67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65a~165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稻黍粟, 未移之秧, 漸致節晚, 言念民事, 誠爲渴悶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벼·늦기장·늦조와 모내기하지 못한 것은 점점 절기가 늦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애타게 걱정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5. 1888년(고종 25) 5월 29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5책(67a~6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5a~165b)

本府祈雨祭, 以今六月初一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二十九日子時量始雨, 一直霑下, 至未時量, 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寸九分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露,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見今雨勢, 連爲霏灑,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祈雨祭不爲設行,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기우제를 이번 6월 초1일에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9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9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기우제는 시행하지 않았습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6. 1888년(고종 25) 6월 1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5책(67b~6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5b~165b)

本府雨澤，去月二十九日未時至，測雨器水深六寸九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判官朴世秉牒呈，則伊日未時以後，連爲霪下，至今月初一日巳時量，所得川渠漲溢，又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九分是白乎所，見今水氣行空，餘雨〈尙〉濃，姑無收霽之意，嗣後形止，待快晴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지난달 29일 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6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미시 이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사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또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9푼이었습니다. 현재 물기가 하늘을 지나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으니 일단 개일 조짐이 없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7. 1888년(고종 25) 6월 10일(양력 7월 18일)

廣營啓錄 5책(67b~6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5b~165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8. 1888년(고종 25) 6월 12일(양력 7월 20일)

廣營啓錄 5책(68a~6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65c~165c)

本府雨澤, 今月初一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九分, 而嗣後形止, 待快晴登聞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巳時以後,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十二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1일 사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 9푼인 것과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뢰겠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사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9. 1889년(고종 26) 3월 20일(양력 4월 19일)

廣營啓錄 5책(78a~78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70a~170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春麴舉皆出土, 秋種兩麥, 日漸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0. 1889년(고종 26) 3월 21일(양력 4월 20일)

廣營啓錄 5책(78a~7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0b~170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 或霏微或雲陰, 至二十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0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1. 1889년(고종 26) 3월 30일(양력 4월 29일)

廣營啓錄 5책(78b~7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0b~170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向青,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插役, 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2. 1889년(고종 26) 4월 2일(양력 5월 1일)

廣營啓錄 5책(79a~7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0c~170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初一日卯時量始雨, 或霏微或雲陰, 至初二日寅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초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3. 1889년(고종 26) 4월 10일(양력 5월 9일)

廣營啓錄 5책(80a~80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71a~171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日>就茁長, 秋甦, 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插役, 幾盡已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날로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4. 1889년(고종 26) 4월 16일(양력 5월 15일)

廣營啓錄 5책(80a~80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1a~171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四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三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5. 1889년(고종 26) 4월 30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5책(80a~8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1a~171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6. 1889년(고종 26) 5월 10일(양력 6월 8일)

廣營啓錄 5책(80b~8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5책(171b~171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秋粃, 舉皆向熟, 春粃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가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7. 1889년(고종 26) 5월 13일(양력 6월 11일)

廣營啓錄 5책(80b~8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1b~171b)

元[亢]旱太甚, 秧節漸怨[愆], 民情日益渴悶乙仍于, 本府祈雨祭, 不卜日以今十五日虔誠設行之意, 發甘分付於本府判官朴世秉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오랜 가뭄이 매우 심하고 모내기철은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심정은 날이 갈수록 애타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15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부 판관 박세병에게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8. 1889년(고종 26) 5월 20일(양력 6월 18일)

廣營啓錄 5책(80b~8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1b~171c)

本府祈雨祭設行之意〈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十八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卯時量, 所得爲三犁二鋤許. 農形段, 境內各處, 秋麴, 方張刈取, 春麴, 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 舉皆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沓,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四分是白乎所, 亢旱之餘, 得此甘露,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間計料爲白乎旅, 祈雨祭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9. 1889년(고종 26) 5월 24일(양력 6월 22일)

廣營啓錄 5책(81a~8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5책(171c~171d)

本府雨澤, 今月十九日卯時量至, 水深爲三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微或雲陰, 至二十三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9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3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0. 1889년(고종 26) 5월 27일(양력 6월 25일)

廣營啓錄 6책(1a~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2a~172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二十五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寅時量, 所得川渠漲溢,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寸一分是白乎所, 見今雨意尙濃,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으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서나 러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6치 1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올 조짐이 아직 짙은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1. 1889년(고종 26) 6월 1일(양력 6월 28일)

廣營啓錄 6책(1b~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2b~172b)

本府雨澤去月二十七日寅時量至, 水深爲六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伊日[時]寅時以後, 或霏或灑, 至去月二十九日寅時量, 所得爲二鋤許, 而農形段, 秋麴, 幾盡刈取, 春麴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始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지난달 27일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6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인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지난달 29일 인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2. 1889년(고종 26) 6월 10일(양력 7월 7일)

廣營啓錄 6책(2a~2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2c~172d)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初四日申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 至初十日卯時量, 所得爲二犁許, 而農形段, 春麩,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八分是白乎所, 見今雨意尙濃,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초10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올 조짐이 아직 짙은데, 이후의 경위는 말씀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3. 1889년(고종 26) 6월 18일(양력 7월 15일)

廣營啓錄 6책(3b~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3c~173c)

本府雨澤待快晴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初十日卯時以後, 或霏灑或雲陰, 至十八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尺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뿔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묘시쯤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자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4. 1889년(고종 26) 6월 21일(양력 7월 18일)

廣營啓錄 6책(3b~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3c~173d)

本府雨澤待快晴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今月初十日卯時以後, 或霏灑或雲陰, 至十八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 而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先移之秧, 今方再[初]除草, 後移之秧, 今方初除草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尺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묘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 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 따질 수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 한 것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자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5. 1889년(고종 26) 7월 1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6책(4a~4b) /各司膳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膳錄 6책(174a~174a)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去月二十四日辰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 至三十日卯時量, 所得爲四犁許, 而農形段, 早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先移之秧,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30일 묘시쯤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먼저 모내기한 것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목화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6. 1889년(고종 26) 7월 11일(양력 8월 7일)

廣營啓錄 6책(4b~4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74a~174b)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 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穀,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7. 1889년(고종 26) 7월 21일(양력 8월 17일)

廣營啓錄 6책(5a~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74b~174c)

本府雨澤待快晴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朴世秉牒呈, 則去月三十日卯時以後, 或霏灑或雲陰, 至今月十五日寅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四犁許, 而農形段,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 묘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이번 달 15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4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8. 1889년(고종 26) 8월 2일(양력 8월 27일)

廣營啓錄 6책(5a~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4c~174c)

卽接本府判官朴世秉牒呈, 則去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微或雲陰, 至二十九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 而農形段,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舉皆胚胎, 根耕豆太, 方張結穎, 木麥, 今始開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박세병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25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대부분 알을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열매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09. 1889년(고종 26) 8월 11일(양력 9월 5일)

廣營啓錄 6책(5b~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4c~174d)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豐來牒呈, 則今月初七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而農形段, 早稻黍粟, 幾皆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 幾盡開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겸임 중군 이풍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이미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0. 1889년(고종 26) 8월 22일(양력 9월 16일)

廣營啓錄 6책(5b~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4d~174d)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豐來牒呈, 則今月十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二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而農形段,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 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겸임 중군 이풍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1. 1889년(고종 26) 9월 29일(양력 10월 23일)

廣營啓錄 6책(8b~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76b~176b)

卽接本府判官趙奭永牒呈，則今月二十七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조석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2. 1890년(고종 27) 윤2월 5일(양력 3월 25일)

廣營啓錄 6책(17b~1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0d~180d)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初三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3. 1890년(고종 27) 윤2월 11일(양력 3월 31일)

廣營啓錄 6책(17b~1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0d~180d)

卽接本府判官宋萬變牒呈, 則境內各處, 春甞, 方張耕播, 秋種兩麥, 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4. 1890년(고종 27) 윤2월 21일(양력 4월 10일)

廣營啓錄 6책(18b~1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1b~181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耕播, 秋種兩麥, 舉皆向青, 水根洞畚, 今方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을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5. 1890년(고종 27) 3월 2일(양력 4월 20일)

廣營啓錄 6책(18b~1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1b~181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春粳舉皆出土, 秋種兩麥, 日漸青潤, 水根洞畚庫方張
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나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6. 1890년(고종 27) 3월 3일(양력 4월 21일)

廣營啓錄 6책(18b~1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1c~181c)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初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二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7. 1890년(고종 27) 3월 12일(양력 4월 30일)

廣營啓錄 6책(18b~1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1c~181c)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春耨舉皆向青, 秋種兩牟,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鋪役, 幾至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이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8. 1890년(고종 27) 3월 14일(양력 5월 2일)

廣營啓錄 6책(19a~1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1c~181d)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初十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19. 1890년(고종 27) 3월 22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6책(19b~1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2a~182a)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春耨, 漸就茁長, 秋耨, 方張胚胎, 早稻黍粟, 舉皆付種, 畚耨鋤役, 幾盡垂畢, 早豆·太·木綿,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0. 1890년(고종 27) 4월 일(양력 5월 일)

廣營啓錄 6책(19b~1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2a~182a)

卽接本府判官宋萬變牒呈, 則境內各處, 春麴, 今始胚胎, 秋麴, 次第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間或出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1. 1890년(고종 27) 4월 5일(양력 5월 23일)

廣營啓錄 6책(20a~20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82a~182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初三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2. 1890년(고종 27) 4월 12일(양력 5월 30일)

廣營啓錄 6책(20b~20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2c~182c)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秋麴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3. 1890년(고종 27) 4월 14일(양력 6월 1일)

廣營啓錄 6책(21a~21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82d~182d)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十二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水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4. 1890년(고종 27) 4월 22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6책(23a~2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3c~183c)

卽接本府判官宋萬變牒呈, 則境內各處, 秋粃, 舉皆向熟, 春粃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5. 1890년(고종 27) 4월 27일(양력 6월 14일)

廣營啓錄 6책(23a~2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3c~183c)

卽接本府判官宋萬變牒呈, 則今月二十六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6. 1890년(고종 27) 5월 3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6책(23a~2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3c~183d)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方張刈取, 春麴, 今始向熟, 早稻黍稷[粟]及早
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稷, 今始初除草, 晚稻黍稷, 間或立苗, 水根洞畚,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
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
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7. 1890년(고종 27) 5월 11일(양력 6월 27일)

廣營啓錄 6책(23b~2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3d~183d)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初九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十日巳時量<乃止>, 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寸八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跡,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8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8. 1890년(고종 27) 5월 13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6책(23b~2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3d~184a)

啓

本府雨澤, 今月初十日巳時至, 測雨器水深五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宋萬燮牒呈, 則伊日巳時以後, 或霏或灑, 至十二日申時量乃止. 其間所得, 又爲三犁一鋤許. 農形段, 秋甿, 幾盡刈取, 春甿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10일 사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사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3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둬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9. 1890년(고종 27) 5월 17일(양력 7월 3일)

廣營啓錄 6책(24a~2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4a~184a)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十五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0. 1890년(고종 27) 5월 23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6책(24a~24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4a~184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1. 1890년(고종 27) 5월 27일(양력 7월 13일)

廣營啓錄 6책(24b~2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4c~184c)

卽接本府判官宋萬變牒呈, 則今月二十五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戌時量乃止. 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七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씀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2. 1890년(고종 27) 5월 30일(양력 7월 16일)

廣營啓錄 6책(24b~2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4d~184d)

本府雨澤, 今月二十六日戌時量至, 測雨器水深四寸七分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宋萬燮牒呈, 則伊日戌時以後,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三十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三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26일 술시쯤까지 측우기 수심이 4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술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30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3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3. 1890년(고종 27) 6월 3일(양력 7월 19일)

廣營啓錄 6책(25a~2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84d~185a)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先移之畓, 方張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싹이 트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4. 1890년(고종 27) 6월 13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6책(25b~25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85a~185a)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之畝,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5. 1890년(고종 27) 6월 23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6책(26a~26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85b~185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 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殼,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 間或出土是如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6. 1890년(고종 27) 6월 28일(양력 8월 13일)

廣營啓錄 6책(26a~2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5b~185c)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二十七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八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7. 1890년(고종 27) 7월 3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6책(26a~2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5c~185c)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去月三十日酉時量始雨,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今月初二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乎旆, 農形段,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顆,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이번 달 초2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8. 1890년(고종 27) 7월 13일(양력 8월 28일)

廣營啓錄 6책(27a~27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5d~186a)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十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二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乎旂, 農形段,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 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 今始開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39. 1890년(고종 27) 7월 17일(양력 9월 1일)

廣營啓錄 6책(27a~27a) /各司膳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膳錄 6책(186a~186a)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十五日子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0. 1890년(고종 27) 7월 23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6책(27a~2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6a~186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今月二十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乎旆, 農形段,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 間或開花,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 幾盡開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1. 1890년(고종 27) 8월 4일(양력 9월 17일)

廣營啓錄 6책(27b~2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86b~186b)

卽接本府判官宋萬燮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 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송만섭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밭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68-01
ISBN	979-11-6988-367-2(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